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 26일 6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4월 20일(음력3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522호

투명한 재정…공정한 운영

조계종 잇따른 위법·의혹에 自淨 의지 천명… '총체적 개혁' 기대

조계종에 '자정(自淨)' 바람이 불고 있다. 불국사 불법 골프연습장과 국조보조금 횡령 등 일부 스님들의 위법행위가 기폭제가 돼 자정이 종단차원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고위스님들은 대책마련을 천명했으며, 총무원과 교구본사스님들도 '자정'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불교계 단체들 역시 '객관적 조사기구' 등을 구성해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과거와 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면 위로 뜬 '자정'

교단자정 요구가 촉발된 계기는 문화연대의 기자회견. 문화시민운동단체인 문화연대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골프연습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단체들)도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국사 골프연습장 및 주지 종상 스님의 호화요트 구입과 외환관리법위반 혐의, 화엄사 前 주지 명섭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관련 의혹, 동국대의 교비전용 및 필동병원 매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모든 것을 밝히고, 종단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불국사 골프연습장은 지난 15일 철거됐으며, 명섭 스님에 대해서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4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불교중앙박물관 관련 의혹은 조계종 총무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책임자 문책과 시공사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동국대 관련 의혹은 조계종 중앙종회 내에 특위가 구성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스템 정비로 종단 거듭나야"

단체들은 성명발표 다음날인 13일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만나 △중앙박물관 문제에 대한 객관적 조사기구 구성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설치 △종단 각급 기관의 '직무수행 청규' 제정 △재정투명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종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반 및 특별감사에 재가자를 포함시키고 국고지원사업이행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며, 종무구조혁신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일련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자정의지를 밝혔다.

총무원은 성명에서 "종단은 이번 사태를 소중한 계기로 삼아 종단과 사찰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시금석으로 삼겠다"며 "모든 것을 사부대중이 함께 운영하는 열린종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과 호계원장 월서 스님도 4월 14일 단체 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종단어른들과 상의해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문 채택

교구본사주지스님들도 자정 움직임에 동참했다. 14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교구와 사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또 "각종 불사를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종단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투명한 종무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청정한 교단을 세우는 데 적극 협력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환치기를 했거나 호화요트를 구입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일각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종상 스님은 또 "최근 불교계 안팎의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2면으로 계속



"서로를 차이를 인정할 때 세계 평화도…." 전쟁 희생자를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호마법회(護摩法會)'가 달라이 라마의 집전으로 4월 13일 일본 쿠마모토현 렌게인 탄죠유지사에서 봉행됐다. 사진/일본 쿠마모토=한상희 기자

'환영과 존경' 달라이 라마 일본법회 큰 인기

8일 도착후 일정 순조

"자비와 이타심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힘입니다."

티베트의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4월 8일 오후 3시 메이지신궁 참배를 시작으로 12일간 일본 전국을 돌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도쿄 코쿠기칸 스모경기장(9일), 쿠마모토현 강당(10일), 큐수대학(12일 오전), 오쿠인사(12일 오후), 렌제인사(13일) 등에서 다양한 법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달라이 라마의 법회에는 매번 수천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모처럼 일본을 방문한 귀한 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았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행사의 공식 촬영팀으로 선정돼 달라이 라마가 일본을 떠나는 19일까지의 일정을 함께 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관련기사 5면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원융 스님 / 4월 23일 오후 2시 범어사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도피안사·本社, 제1차 '구국구세 대법회' 마련

5월 1일부터 10주간, 전문가 주제 강연

가정의 가치를 불교의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제고해 보는 대규모 법회가 열린다.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 – 새로운 가정의 가치를 찾아서'를 주제로 제1차 구국구세 대법회를 봉행한다.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법회에서는 스님 가정관리학자 의사 등이 강사로 나와 주제 강연을 한다.

이번 법회는 가정의 붕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기획됐다. 때문에 강사들은 가정의 가치를 '연기와 중도'라는 관점에서 찾아낼 계획이다.

가정의 가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사회의 가치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과적 등식을 확인하고 그간의 삶의 형태와 관습,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윤리의 붕괴 등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진단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과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가정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법회를 기획한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가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보살도의 실천도 불가능한 것"이라 전제하고 "이번 법회는 반야바라밀의 실천적 토대인 가정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깨달음의 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 말했다.

도피안사는 법회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사당역8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강연의 핵심내용은 현대불교 지면을 통해 소개된다. 법회문의(031)676-8700도피안사 종무소.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 일정 및 주제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

월	일	강사	강연주제
5	1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부처님은 가정과 부부를 어떻게 보는가
	8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	서양인은 한국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15	안숙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판소리 '불타전' 중 부처님 탄생부분 음성공양
	22	조희금(대구대 교수)	오늘날 한국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29	옥선화(서울대 교수)	모두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6	5	정현숙(상명대 교수)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12	고성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연구위원)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19	최혜경(이화여대 교수)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성인자녀와 노부모)
	26	김외숙(방송대 교수)	불자가족의 가정관리
7	3	최훈동(한길정신병원장)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

'할'



그림·조태호

지환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조계종 포교원 '사이버 포교…' 연찬회, 진단과 제안

"포교 콘텐츠 개발에 미래 걸자"

전문가 양성 시급한 과제…종단 차원 지원기구도 필요

불교계 인터넷 포교의 현실은 어느 정도 일까. 지금까지는 '구호성' '일회성'이 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터넷 포교, 사이버 포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조계종이 4대 종책 가운데 하나로 정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성과는 미비하다.

이런 차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제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사이버 포교의 현실과 전망'을 논한 것은 획기적인 타개책에는 못 미치지만 사이버 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이자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4월 12일 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종책연찬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구형 겸임교수(동국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쇄술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TV 등 막강한 미디어를 가지고 어느 종교도 종교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산 속에 있는 사찰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TV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다가올 때 어느 종교보다 더 쉽고 가깝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경 총괄팀장(현대불교 불교정보센터) 역시 "'불교'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고도 포교할 수 있는 방법과 젊은 세대를 위한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와 그 방향성'을 발표한 조수동 교수(대구한의대)는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선거공약에서부터 취임 이후 주요종책기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터넷 포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임기 후 3년이 되는 올해까지 이렇다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이버 사업단 및 사이버 위원회 구성'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한 인터넷 세대 조직 구축' 'DMB 대응책 및 불교 콘텐츠 공유 및 이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불교사이트 이용자들의 신행활동'에 대해 발표한 박수호 박사(중앙승가대 강사)는 "중앙 차원의 관리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앙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중심의 접근을 고려해야 하고 정보검열위원회 등을 통해 오류·왜곡 불교정보를 걷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 스님(포교연구실장)은 "포교원의 종책 비전 등에서도 사이버 미디어 포교가 절실하다고 말해왔던 만큼 이번 연찬회에서 나온 대책이 실현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능인선원 중창불사 회향식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오른쪽 10번째)과 내외 귀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정혜사 능인선원 70년만에 중창 낙성

덕숭총림, 선방 30평 요사채 40평 정비

만공스님 134돌 탄신다례도

근세 한국불교의 최초 선원이자 경허·만공 스님이 주석하며 선풍을 떨쳤던 덕숭총림 능인선원이 2년여 중창불사를 회향했다. 정혜사 선방 30평과 요사채 40평을 중수했고, 욕실 화장실 식당 등을 새로 준공했으며, 대대적인 조경공사로 경내를 더욱 단아하게 정비했다. 1895년 개원한 능인선원은 1938년 만공스님이 1차 중수했고, 근 70년만에 중창불사를 한 것이다.

만공 스님 탄신 134주년을 맞아 다례와 함께 봉행된 4월15일 능인선원 중창불사 회향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도영·교육원장 청화 스님과 종회의원들, 전국 선원장들과 수덕사 유나 설정·법주사 회주 혜정·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등 문도회 수장들과 박종순 예산군수 등 5백여 명이 동참했다.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은 유나 설정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건물불사가 아니라 능인선원이 갖는 정신을 기리고 뜻을 잘 따르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운수납자가 구름처럼 모여 도인이 많이 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에 앞서 주지 법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0월 표면적인 준공을 하고 수좌 설정스님과 선덕 법안 스님을 중심으로 제방수좌들과 동안거를 마치고 오늘 공식적인 회향의식을 마련했다"며 각계의 관심과 협조로 요사채를 중수했고 욕실 화장실 식당 등을 새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함주 스님(법주사 총지선원장)도 축사를 통해 새로 마련된 도량에서 수선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기쁨과 나눔의 등' 세상 밝힌다

22일 서울시청앞 광장서 점등식

올해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는 시청 앞 점등식 및 연등음악회가 4월 22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기쁨과 나눔의 등'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과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5000여명의 불자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연등음악회는 시청 앞 점등식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다.

연등음악회에는 장사익, 신효범씨 등을 비롯해 사물놀이의 대가인 김덕수씨, 연등축제 음악인 '연등 들어 밝히자'를 부른 김현성씨, '나눔과 기쁨'을 부른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대동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종로와 세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3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돼 부처님오신 날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회 불자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로 나눔사랑 헌혈 캠페인이 펼쳐진다. 남동우 기자

통신통합사업 실시 조계종, 네트워크 강화

조계종이 통신통합(총무원-사찰간 유선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종단소속 전체 사찰에 필요한 안내 및 공지사항을 일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주요사찰(본사, 직영·특별분담금 사찰) 내 선화 구축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연간 5~1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올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 사업의 수익금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한편, 단체들은 15일 두 차례 논평을 발표, 조계종 자정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불국사 골프연습장 문제는 사과 차원이 아니라 관련 사회법과 종헌 종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객관적 조사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관련한 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식 먼저 바꿔야…각계 요구

이러한 자정 흐름과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계사 율원장 철우 스님은 "수승한 것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최근의 사태는 스님들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전면적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윤원철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 본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 봐야한다"며 "깊은 성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김희욱 원장과 법률사무소 <신영>의 김성규 대표변호사는 "신도가 사찰운영에 참여해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도 받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지금은 말 그대로 철저한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스님들의 의식변화, 종단관리 시스템의 마련, 본말사 감사기능 확대 등의 총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교단 내부의 반성을 바탕으로 조계종 총무원이 '자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침 본지 521호 14면 송산노인복지회관 기사 중 '의정부 불암사 주지'를 '남양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군종특별교구법 공포…설치위 구성 착수

6월말 교구출범 될 듯

조계종은 군종특별교구법을 4월 8일 공포하고 군종특별교구 출범을 위한 군종특별교구 설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교원장으로 하며, 조계종 군불교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설치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군종특별교구장 추천 및 심의, 내규 정비, 직제 및 사무체계 수립, 군불교위원회 임무 인수인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설치위원회는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군불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반업무를 확정하고, 군종교구 설치안을 종무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무원장은 종무회의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군종교구를 선포하고 교구장을 임명한다. 6월말 군종특별교구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불자대상 공모 봉축법요식때 시상

조계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를 격려하기 위해 불기 2549년 '불자대상'을 공모한다.

불자대상 자격은 ▲불법홍포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의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 발전 등에 공로가 큰 자이다.

추천을 원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서장, 조계종 소속 사찰 주지스님(말사의 경우 교구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조계종 등록 각급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포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는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류를 첨부해 총무원 총무부(전송 02-720-3305)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5월 1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실시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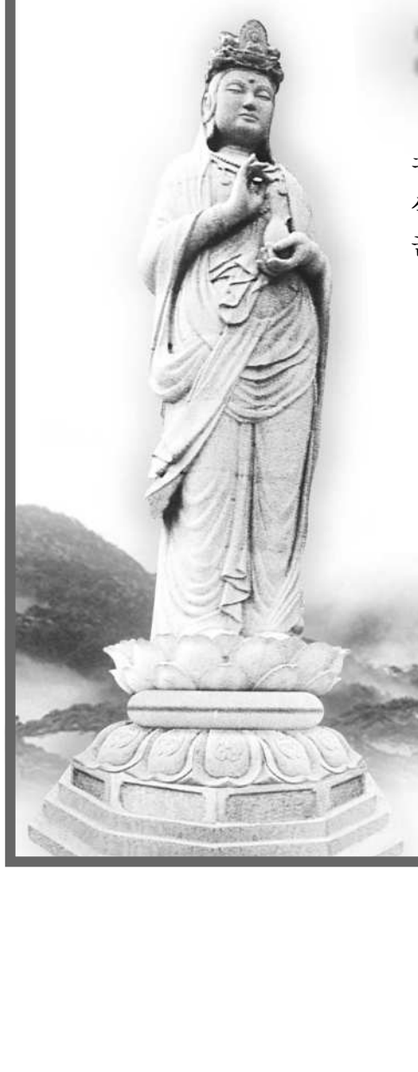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 | 태 | 민 | 안 | 평 | 화 | 통 | 일

관악산 관음사

관음보살 조성 회향 및 산사음악회



귀의삼보하옵고
신라말엽인 서기 1895년(진성여왕 9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비보사찰로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사부대중의 숙원이었던 관세음보살 입상을 조성 그 회향식을 봉대함에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하오니 유연 무연을 초월 동참하시어 선연 작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2005년 5월 1일 일요일 (음. 3. 23)
● 점안식 및 육법공양 - 오전10시 30분 ● 산사음악회 - 오후 1시
장 소 : 천년고찰 관음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사 회 : 김병조
출연진 : 송대관, 김성환, 장미화, 배일호, 머루와다래, 이자연, 추가은, 김명순과 국악한마당, 관음사합창단(지휘 : 이동원 / 단장 : 김영애) 관음사사물놀이(지도 : 국악인 이재화 / 단장 : 이순라)

● 관세음보살님 봉축등 접수 받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 공연기획 : 아미타예술공연단
● 문 의 : 02)582-8609, 581-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관악구 관음사 주지 진산 종하 합장

절·산·바다 구경 신나네요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날 맞아 나들이

"밖에 나오니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걸. 와, 저 나무는 크기도 하다!"

날씨 좋은 바깥 풍경, 싱그러운 봄날 기분을 만끽하는 65명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4월 13일 강원도 평창 월정사 전나무 숲을 가득 메운다. 월정사 8각9층석탑 앞에서 사회국장 관행 스님의 탑 설명과 월정사 창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월정사에 이어 찾아간 곳은 푸른 동해가 보이는 강릉. 산 하나를 온통 조각 공원으로 꾸며 놓은 '하슬라 아트월드' 산책길을 오르는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웃음이 서린다. 산책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쉬면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전시작품을 대하는 눈길에는 신기함이 가득하다. 그 중에도 특히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수평선과 활짝 핀 벚꽃은 장애인들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다가온다.

4월 20일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이 마련한 '밝은 세상 나들이' 현장. 이번 나들이 대상자는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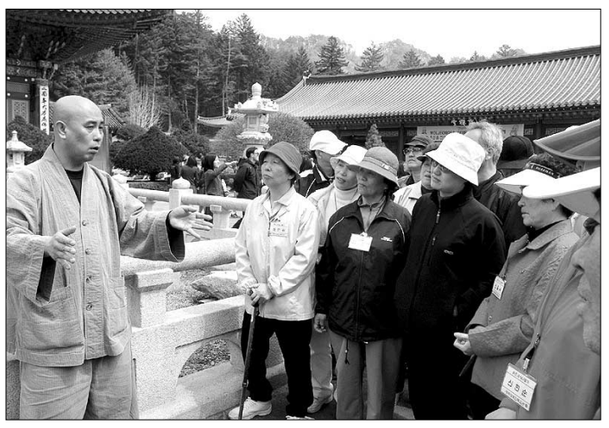
이번 나들이는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도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강원도까지, 다소 먼 거리를 달려 나왔다. 월정사 석탑과 전나무 숲도, 강릉 미술관에서 보는 바다도 나들이를 나온 장애인들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풍경들이다. 2년 전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다는 한윤희(가명 · 58)씨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어 기쁘고 삶의 즐거움까지 되찾았다"고 말할 정도다.

이도선(가명 · 69)씨도 "9년 전 쓰러지고 난 후 장애를 얻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세상 구경을 하는 것에 힘을 얻는다"고 거들었다.

'장애'가 특별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장애인들 스스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길을 마련한 이번 행사에 참가자들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4월 21일과 22일 장애인 20명 초청, 합천 해인사와 김천 직지사에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개최한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4월13일 월정사 8각 9층 석탑앞에서 사회국장 관행 스님에게 '월정사 창건 이야기'를 듣는 강북장애인복지관 '밝은세상 나들이' 참가자들.

스님 : 목사 그라운드 대결

월정사 23일 축구대회… 내달 5일 수행학림 개최

스님과 목사님이 그라운드에서 만난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4월 23일 오전 10시 평창군 진부면 소재 도로공사 대관령지사 운동장 및 오대천 둔치 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 '제1회 월정사 주지기 평창군 축구대회'에서다.

이날 시범경기로 열리는 월정사 스님과 평창군 목사간 축구시합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15명의 월정사 스님들이 나선다.

월정사는 "경기결과를 떠나 종교계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민들과 하나가 되는 잔치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경기가 끝나면 총 8개 팀 선수 250여명이 참가하는 본경기가 열린다. 평창읍(축사모팀, 노성팀, 현무팀), 대화면(대화팀), 용평면(용평팀), 봉평면(메밀꽃팀), 진부면(진부팀), 도암면(대관령팀) 등 평창군 8개 읍 · 면 중 6개 읍 · 면 대표팀이 각 조별 리그전으로 예선 경기를 펼친 뒤 토너먼트로 결선을 치른다. 1, 2, 3위에게는 우승기, 트로피, 상금 등이 지급된다.

한편 월정사는 한암대종사 사상을 재발견하고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한암대종사 선양 수행학림'을 5월 5일부터 6일까지 월정사 및 상원사에서 개최한다.

승가오칙(僧伽五則)에 의한 교단의 심득수행(心得修行)을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에는 이병남 LG 인사담당 부사장, 김우선 사람과 산 편집장 등 각계 32인의 불자들이 참여해 철야용맹정진을 한다.

수행학림은 탄신재일을 맞아 5일 10시 30분 다례재를 시작으로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의 '한암대종사 수행가풍 법문',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의 '한암대종사 선사상 강의', 철야용맹정진, 십악참회 및 십선계예참, 한암대종사 참선곡 강의, 적멸보궁 삼보일배 정근 등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숙불회(회장 최정민)'의 상황이 보도(본지 520호 1면기사 참조)되면서 전국각지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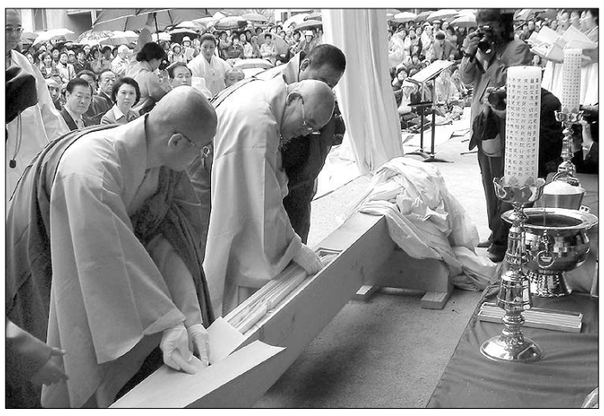
안성 석남사 신도이자 정무스님 문도회장인 이 황씨는 신도회 차원에서 숙불회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법사 파견 등을 약속했다. 성남의 일학 스님은 본사로 숙불회 학생들에게 기공참선을 지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 기공참선 강좌를 열어 숙불회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숙불회 돕겠다' 줄이어
재정·법사 지원 등 약속

부산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한 불자는 숙불회에 지원하고 싶다며 방법을 문의해왔고, 숙불회 법당을 방문해 숙불회를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스님들의 발길도 계속되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을 따르려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격려하던 한 스님은 보시금 10만원을 내놓고 돌아갔다.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 아무개씨는 숙불회로 전해달라는 편지를 본지로 보내왔다. 김씨는 숙불회가 불지회의 도움을 받아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봉사체험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대들보에 상량문을 넣고 있다.

조계사 대웅전 중수 상량식 봉행

연말 불사 마무리 예정

조계사(주지 원담)는 대웅전 중수 불사 상량식을 4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김충용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

조계사 대웅전은 1937년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본산 건설 결의에 따라 정읍 보천교 성전이었던 '십일전'을 옮겨온 것. 2000년 조계사 대웅전 · 목석가좌불상 · 후불탱화 등이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 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근래에 천장 상부의 목재들이 심각하게 틀어지고 일부 목재가 부러지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2년 10월부터 전면적인 해체보수를 공사를 진행해 왔었다.

조용수 기자

송파구민 무료진료
5월6일 불광사서

불광사(회주 지홍)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 미용 봉사 '사랑의119'를 실시한다.

송파소방서와 함께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 불광사에서 진행하는 이번 봉사에서는 양방과 한방, 수지침 등의 무료진료가 실시된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에 대한 보람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대학생 기획강좌 열린다

대불련 주최, '청년, 변화 그리고 향상' 주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홍현)가 5월 6일~6월 3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대학생을 위한 2005년 봄 불교기획강좌 '청년, 변화 그리고 향상'을 조계사 불교대학 2층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불자 대학생 외에도 일반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강연은 젊은이들을 경쟁사회로 몰아가는 현 시대에 불교수행의 역할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는 5월 6일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이 '오늘 붓다는 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13일 한형조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벼락같은 가르침, 금강경-변화를 통찰하는 힘'을, 20일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사회참여를 보는 불교의 눈'을, 27일 현웅 스님(미국 육조사 선원장)이 '수행, 날마다 향상하는 길'을, 6월 3일 청아 스님(동국대 강사)이 '선(禪), 자기혁신의 최전선'을 강연한다. (02)732-0239

강지연 기자

위빠사나 문화수행도량
홍원사 28~30일 점안식

오는 10월 서울 가양동에 대규모 위빠사나 수행도량이 문을 연다.

(사)근본불교 수행도량 연화산 홍원사(주지 동주)는 4월 28~30일 3일간 본존불 및 신중탱화점안식 및 영산재 시연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개원준비에 들어간다. 행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다.

홍원사는 동시에 700~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갖추게 되며, 개원에 맞춰 10월 30일 '위빠사나 국제 학술세미나'와 '선서화전'을 열 예정이다.

동주 스님은 "개원 후 몇 개월 뒤부터 전통범패의식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홍원사를 문화수행도량으로 가꿔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천성산 조사 5월 실시
22일 실무합의 될 듯

천성산 환경조사에 대한 실무합의가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천성산 대책위 양측 전문가들은 4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천성산 환경조사 최종합의서를 22일 오후 2시에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5월초에는 본격적인 환경조사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철주 기자

한-일 전통사찰체험 비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일본 템플스테이 연수단이 3월 29일~4월 2일 일본 사찰숙박 시스템과 문화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연수에는 22개 사찰에서 스님과 실무자 31명과 사무국 직원 6명, 문화관광부 사무관 1명 등 총 38명이 참가했다. 연수단은 일본 와까야마현 고야산 금강봉사 밀엄원, 교토 히에산 연력사, 후꾸이현 영평사 등에서 일본의 전통 사찰 숙식시설 '숙방'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좌선, 울력, 차담, 세미나 등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했다.

연수에 참가한 현장 스님(대원사 주지)은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이나 편의시설이 최근에야 갖춰진 우리나라 사찰과 달리 반해 일본은 일찍부터 방문객을 위한 '숙방'같은 공간을 만들어 편의시설을 운영해 왔다"며 "일본의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다는 사찰별로 특색에 맞게 선체험이라든가 일일수행체험 등 스님들의 하루 생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WAWA 바자회 · 벼룩시장
5월1일 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경륜)은 봉축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5월 1일 수련관 야외마당에서 'WAWA 사랑 바자회 &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 11~27일 바자회에 내놓을 각종 후원 물품, 벼룩시장 참가 등을 접수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www.wawa.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바자회와 벼룩시장 외에도 청소년 풍물 · 댄스 동아리 공연과 컵등 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 무료 캐리커쳐 ·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바자회와 벼룩시장 수익금은 전액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 청소년들에게 지원된다.

강지연 기자

2549부처님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사이버 봉은사, 인터넷에서 봉은사를 만납니다

봉은사 홈페이지 www.bongeunsa.org OPEN!!!



봉은사 홈페이지를 돌아보신 소감을 듣겠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애정어린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신행수기 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행활동 속에서 모두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신행수기를 접수합니다.
"아름다운 봉은사"를 위해 봉은사와 관련된 소중한 사진자료를 접수받습니다.
봉은사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 더욱 더 아름다운 봉은사를 만드는데 많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문의 / 접수 :** 포교팀 02)516-5652, 전산담당 02)3218-4837

부처님오신날 봉은사로 오세요

불기 2549 봉은사 연등축제 주요행사

구 분	행 사 명	일 정	장 소	주 요 내 용
우리도 부처님 같이	동자승출가체험	5. 1~16	선불당 봉은사 주변	- 5~7세 어린이 출가체험 - 주요행사 동참 및 봉축 홍보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국회, KBS방송국 출연 및 홍보 - 자비의 탁발 봉행
	전통등전시회	5. 6~15	보우당	- 전통의 우리 등 축제 - 대내외 주요 인사 초청 - 연등축제의 꽃으로 집중
	도전, 범종을 울려라	5. 10(화) 13시	대웅전 앞마당	- 불교상식 퀴즈대회 - 화합 한마당
	마음의 등 나누기	5. 6~15	보우당 앞	- 등공양의 참의미 전달 - 세계인이 함께하는 등만들기
	불교 전통 혼례식	5.7(토) 12시30분	법왕루	- 우수한 전통혼례 실제 재현
	봉축 법요식	5. 15(일) 11시	대웅전 앞마당	- 대내외 주요 인사 초청 - 관불식, 서원서탕 나누기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나눔으로 함께하는 무료차 시음회	5. 6~15	보우당	- 차, 다구 판매 - 차문화 우수성 홍보 - 수익금 : 복지단체 기 부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우 및 지역 어르신 초청 봉은사 나들이	5. 11(수) 10시부터	경 내 아쿠아리움	- 복지관 장애우 및 지역 독거노인 초청 사랑과 나눔의 한마당 - 봉은사 순례 - 전통등전시회 관람 - 아쿠아리움 견학
	동자승 자비의 탁발	5. 14(토) 15시부터	코액스 일대	- 코액스몰 일대 - 봉축 홍보 - 나눔을 위한 자비의 탁발 - 수익금 : 복지단체 기부
	나눔으로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	5. 15(일) 20시부터	종루 앞	- 봉축 회향 - 봉은불자 화합 한마당 - 나눔 의미 전달 - 두드락 퍼포먼스 - 수익금 : 복지단체 기부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낙산사, 화마 극복의 현장을 가다

그침없는 목탁소리 … ‘복원 의지’ 가득



낙산사 원통보전 앞 7층석탑이 ‘출입금지’ 팻말과 경계선 속에 갇혀 있다. 스님과 불자들이 탑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박익순 기자



범어사 승가대 학인스님 30여명이 4월 12일 낙산사를 찾아 복구와 도량정비작업에 동참했다. 사진제공=범어사

한국전쟁 이후 초유의 참화를 겪은 지 9일이 지난 4월 14일 낙산사를 찾았다. ‘무료입장’이라는 표지가 세워져 있는 홍예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서니 어지럽게 널려있던 타버린 건물과 집기 잔해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언뜻 보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다. 연인원 4700여명(14일 현재)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결과였다. 경내 곳곳에 걸려있는 “낙산사 화재에 아픔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현수막이 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산불로 단체여행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고, 방문객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지만, 낙산사를 찾는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힘들 때 의지처가 돼준데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한국전쟁의 포화도 이겨냈다는, 건재한 사천왕문을 지나 낙산사 중심부로 들어서자 인근 군부대에서 세워준 군용막사 3동이 반긴다. 여기서 낙산사 신도회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기와불사를 접수받고 있다.

동종이 녹아내렸던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1968년 보물지정 당시 세워진 표지석을 올려놓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닐테이프를 둘러쳐 접근을 차단해 잔해가 아직 그대로 있는 원통보전 터에는 인등용 등잔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앞에 7층석탑만 외로이 남아 옛 낙산사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한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얀 해수관음상은 안쓰럽기만 하다.

춘천에서 달려왔다는 양재수씨는 “늘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흐뭇했는데, 이같은 참화를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갑자기 경내가 소란스럽다.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다.

“불씨 하나 잘못 버려 발생한 산불로 우리는 원통보전과 동종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잃고 말았어요.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보물 제479호 동종이 걸려 있던 종각 터 기단 위에 올라선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소리친다. 낙산사는 어느새 ‘산불 체험학습장’이 돼가고 있는가?

수학여행단을 이끌고 낙산사를 찾은 서울 대동정보산업고 금홍섭 교감은 “화재현장으로 수학여행 온다는 것이 미안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교육 효과가 크다고 여행을 권장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산불의 위험성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낙산사는 불탄 모습으로도 중생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학생들이 관음보살께 청법하는 문수동자 같았다.

사찰이 안정을 찾으면서 작은 공사들도 이뤄지고 있다. 의상교육관 2층에서는 불단조성 공사가, 홍련암 법당 옆에서는 요사채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 불단이 완공되면 의상교육관 지하에 있는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362호)은 2층으로 모시게 된다.

화마를 이겨낸 홍련암. 화재 다음날부터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천재지변 같은 산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자성에서 참회 기도가 시작됐다. 기도는 5명의 스님이 2시간씩 교대로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동참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기도는 계속된다. 해조음(海潮音)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정근 소리에 금방이라도 무명이 걷히고 깨침의 문이 열릴 것만 같다. 업장을 녹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참회기도야말로 낙산사 복원의 가장 분명한 중심축이 아닐까?

본격적인 복원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화재 당일 모든 소실전각과 동종을 국고지원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각으로 국한할 것임을 밝히더니, 급기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대상을 대폭 좁히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규모에 대한 평가도 문화재청은 3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사찰측의 300억이나 양양군의 93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문화재청의 복원의지까지도 의심받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원통보전만큼은 국민들의 동참으로 복원하고, 낙산사 산림 또한 국민이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마음의 동산으로 일구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15일 인근 산불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했다.

양양 낙산사=박익순 기자

“업장 먼저 녹이자” 24시간 참회기도

화재잔해 대부분 치워 … 9일간 4700여명 봉사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종 잔해 공개



지난 5일 화재로 녹아버린 낙산사 동종잔해.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로 옮겨진 낙산사 동종 잔해가 4월 11일 공개됐다.

동종 잔해는 화재당시의 고열에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연구소측은 이 잔해를 성분분석하고, 구리와 주석 등의 합금비율을 밝혀내 동종 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한국의 범종(국립문화재연구소)>과 <낙산사 동종의 안전진단 보고서(서울대 정밀기계연구소)>의 실측도면과 탁본문양이 남아있어 복구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피해 후속대책 강구

대책위, 피해액 산정 · 범국민 모금활동 전개

등달기 · 나무심기 전개

양양 고성 및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양양 · 고성 낙산사 산불피해 대책회의원회(위원장 무관 · 조계종 총무부장)는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내 ▲복원지원팀(팀장 문화부장) ▲대정부협의팀(팀장 기획실장) ▲성금모금팀(팀장 사회국장) ▲복구지원팀(팀장 총무부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원지원팀은 낙산사 피해액 산정 및 향후 복원계획과 일정 수립을, 대정부협의팀은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과 낙산사 복원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지원사항을 담당한다. 종단 차원의 범국민 산불피해 복구 모금활동은 성금모금팀이, 낙산사 복원과 관련한 종단 차원의 각종 행정적 지원은 복구지원팀이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또 이재민 및 낙산사 복원 불사를 위해 전 종도 및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 사회부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낙산사 복원 동참 특별 불전함 설치 운영 ▲1인 1기와 불사 동참하기 ▲낙산사 복원을 위한 등달기 ▲1인 한 그루 나무 심기 등을 제안했다.

대책위원회는 모금활동 외에도 전 종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현장 탐방을 통한 신앙심 및 애종심을 고취하기 위해 낙산사 성지순례 및 원만 복원 기원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화재 등으로 건축물이 전소될 경우를 대비해 주요 건축물 일제조사를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대책회위원회는 총무원 부실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 재정분과위원장 · 사회분과위원장, 중앙신도회장 · 신흥사 신도회장 등 신도단체 임원진, 신흥사 주지를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전국서 복원동참 열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불기 2549년 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양양 · 고성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낙산사가 이번 재난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성스럽게 여기는 관음성지의 위의를 다시금 온전히 갖추는 일에 앞장서 동참한다. 향후 중요한 문화유산이 화마와 같은 재해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사회가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념 · 월정사 주지)는 이재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자비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불교연합회는 4월 12일 춘천시청 앞에서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으며, 21일 영서지역, 22일 영동지역에서도 봉행할 예정이다. 또 사찰별로 모금함 설치 및 모금법회 개최, 피해지역 및 사찰 현장 자원봉사 시행, 구호품 전달 및 위문 방문 등의 지원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도 4월 12~13일 강원 학인스님 3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낙산사에 파견, 복구와 도량 정비에 힘을 보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서산 용현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도난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던 고려 중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지난 3월 19~20일 사이에 도난당했다. 이 좌상은 높이 93cm 넓이 40cm 두께 15cm 크기로 문화재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난당한 서산 용현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도난신고한 법홍 스님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일제시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유리원판목록 200194호에 등재돼 보원사지 사적 316호로 보호받아온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불교문화재”라며 “시급히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080-290-8000서산경찰서 수사과 041-669-4112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봉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축

제7대 총무원장 영공대산 취임

종 정 월공벽암
부종정 엄 혜 우

총무원장 영공대산 종회의장 하청암

총무부장 김자헌
교무부장 김대운
재무부장 이천인
사회부장 이대현
문화부장 이지법
법인원장 권성우
기획부장 노승희
감사부장 허지월

포교원장 정영산
포교부장 김고산
감찰원장 김효월
교육부장 김진표
연수부장 이효명

서울북부종무원장 조명각
중부종무원장 김성도
강서종무원장 이법진
인천 종무원장 최해원
경기북부종무원장 도 광
강원 종무원장 허금성
경남서부종무원장 서일광
경남동부종무원장 김신진
전남 종무원장 이혜광
대전 종무원장 이대일
부산 종무원장 나석진

(재)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1-나동 / TEL 02)2242-1049

인 사 말 씀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포교원장이시고 법성사 주지이신
덕오당 법성대법사의 영결식을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법성사에서
엄숙히 봉행 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종정예하를 비롯한 원로 큰스님과 제방의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예를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러워하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불기 2549년 4월 6일 (음 2월 28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성 대법사 장의위원장 이 홍 파

덕오당 법성 대법사 문중대표 황 법영 법성사 신도일동
전화 (055)521-1925, 2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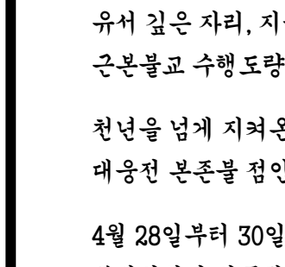


자비의 법회 통해 세계 평화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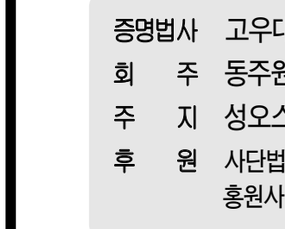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일본 방문

인류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세계적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8일 일본을 방문, 그를 환영하는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 생생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의 법석에는 매번 수천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으며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배우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달라이 라마의 4월 8~14일의 일본방문중 일정과 법문을 요약했다.





4월 8일 메이지신궁 방문



4월 13일 렌제인지 대중법문 현장

평화와 자비를 설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달라이 라마. 그의 법문은 수많은 일본인들의 삶에 한줄기 감로수가 됐다.

4월 9일 도쿄 코쿠기칸 대중법문

"남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

달라이 라마 방일 일정 첫 번째 대중법문은 '자비와 인류정의' 주제로 4월 9일 도쿄 코쿠기칸 스모경기장에서 열렸다. 6천여 불자들은 달라이 라마가 입장하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를 맞았다.

달라이 라마는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법문에서 "인류가 지닌 자비는 '착(着)이 없는 사랑'이다"며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자비심은 남을 위한 배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 결국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셈"이라며 "이 힘이 모여 인류 권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10일 쿠마모토현 강당에서 '세계평화' 주제법문 요약

"평화는 개인 내면에서 비롯된다"

오늘 법문 주제인 평화는 삶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자비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와 평화는 타인을 나처럼, 나아가 자신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란 개인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자비심이 생기고 타인을 여여하게 대할 수 있다. 내 평정심을 통해 내 주변이, 가족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

세계의 평화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이뤄낼 수 있다. 개인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서서히 온 마음을 다해 평온함과 편안함에서 얻은 그 힘을 점점 더 키워 나가라.

우리 모두의 평화는 갈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룰 수 없다. 오늘날의 갈등은 각자 다른 현실에서 비롯돼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갈등과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은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갈등과 폭력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갈등관계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진심 어린 행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갈등을 빚은 마음을 풀기 위한 대화의 실천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세대와 세대, 사회 구성원 간, 나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화가 결국 온 세계의 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여기에서 곧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이 하는 말, 타인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와 닮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게 돼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로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갈등요소를 없애는 해결책이다.

지난날 인류는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전쟁보다 나은 방법을 분명 선택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비폭력, 반전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기득권층 몇몇은 전쟁이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전쟁을 통해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 평화를 향한 움직임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다. 평화의 실천은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크고 작은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할 것을 당부한다.



4월 9일 달라이 라마는 도쿄 코쿠기칸 스모경기장에서 '자비와 인류 정의'를 주제로 법문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법회에서 '자비는 집착 없는 사랑'임을 강조했다.

12일 큐슈간호 복지대학 특별강연

"다른 이들 사랑하는 삶을 찾으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젊은이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이타심과 자비행을 통해 남을 배려할수록 자신이 얻는 것이 크다."

달라이 라마는 4월 12일 오전 쿠마모토현 큐슈간호복지대학 특별강연에 모인 1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타심을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며 "나 역시 어린 시절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삶이란 행복과 고난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13일 렌제인 탄죠유지사 특별법회

전쟁희생자들 추모법회 직접 집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희생자를 추모하는 특별 법회가 4월 13일 오전 일본 쿠마모토현 타마나시 렌제인 탄죠유지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일본불교의 전통과 티베트불교의 예불의식을 혼합함으로써 현지 언론과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특별법회는 달라이 라마의 집전으로 남방불교 전통을 따라 진행했다. 먼저 인도식 램프에 깃발을 태우는 의식을 통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전쟁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랬다. 이후 렌게인사 에이쇼우 카와하라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1천 여 일본불자들과 더불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일본불교 방식으로 법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14일 카나자와 고마츠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방문의 목적은 순수한 포교활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한상희 기자

달라이 라마 메이지신궁 등 신사참배

"일본 문화 · 전통에 대한 존중의 표시"

달라이 라마의 일본방문이 제국주의의 뿌리인 메이지신궁 방문으로 시작된 것을 둘러싸고 불자들의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달라이 라마는 4월 8일 일본에 도착해 이날 오후 도쿄 시내 메이지신궁을 방문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등 주요인사의 신사참배는 지금까지 국적과 지위를 떠나 세계 여론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뿌리인 메이지신궁 방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기자들도 이를 앞 다퉈 취재해 갔다.

달라이 라마는 이에 대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적 가치에 있다"며 "내 행동은 신사참배가 아니라 방문국인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에도 쿠마모토 현 아소신사를 방문했다.



달라이 라마는 4월 12일 오전 큐수대에서 법문을 한데 이어 오후에는 일본사찰 오쿠노인지에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법문을 설했다.

홍원사 대웅전본존불 점안법회

유서 깊은 자리, 지극한 불심으로 창건한
근본불교 수행도량 가양동 홍원사,

천년을 넘게 지켜온 범패전통의식으로
대웅전 본존불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복장의식과 신중탱화 석가모니불 점안식이
이어지는 보기 드문 점안법회에 동참하시어
봄처럼 아름다운 불연을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증명법사 고우대선사 도월수진스님
회 주 동주원명스님
주 지 성오스님
후 원 사단법인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신도회, 성전거사림 가족법회

안 내

- **4월 28일 오전 10시** 원불 복장의식
- **4월 29일 오전 10시** 104위 신중탱화 점안
- **4월 30일** - 1부 (오전 8시~10시 30분) : 대웅전 본존 석가모니불 및 원불(소불) 점안식
  2부 (오후 2시) : 영산재 및 선망부모 회향시식

- 본존 석가모니불 점안 증명법사 및 법문 : 고우 큰스님 (각화사 선원장)
- 복장의식 증명법사 : 도월수진스님(전통 점안 복장의식 계승)
- 전통 점안의식 병법사 : 동주원명스님(조계종 영산재 어장)

근본불교 수행도량에서 봉행하는 복장의식 및 점안의식은 천여년 동안 전해오는 전통의식으로 봉행하기 때문에 복장의식의 맥을 이은 도월수진스님과 조계종 영산재 어장이신 동주원명스님을 모시고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법대로 여법히 봉행합니다.
4월 28일 원불(소불) 부처님 복장의식은 공개치않는 행사이나 일반신도님들께 불연을 맺으실 기회를 드리고자 복장의식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점안식 또한 조계종 영산범음회 어장이신 동주스님의 집전으로 수재자와 함께 전통의식을 재현 합니다. 4월 30일 대웅전 본존 점안식에 증명법사로 모신 고우큰스님의 법문에 많은 선남선녀 신도님들의 청법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오후 2부에는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버스노선 안내** (버스 내리는 곳은 모두 향교앞 정거장 입니다)
- 5622 : 가리봉시장-가양사거리-향교
- 6631 : 영등포역-염창동-향교
- 6630 : 영등포역-발산역-향교
- 6632 : 당산역-강서보건소-향교
- 6712 : 영등포수도사업소-양화대교-향교
- 6644. 6642(마을버스) : 발산전철역 3번출구로 나와서 타세요.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 원 사** (가양 사거리 양천향교 앞) 전화 02)2658-3100 / 팩스 02)2063-3344

참선 전문 템플스테이 상설화

범어사, 매주 토~일요일 '간화선의 모든것' 지도

5월부터, 30명 신청받아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화두 드는 법을 알고 싶어요."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본사가 함께 열고 있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질문들이다.

참선을 막 시작하려는 초심자, 혹은 오랫동안 참선을 해왔더라도 공부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러한 의문점 해결에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적극 나서 선(禪)을 중심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참선 템플스테이는 기존 불교문화 체험 템플스테이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참선 실수를 위주로 매주 토 · 일요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참선 템플스테이는 설선대법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간화선의 대중화와 간화선 생활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범어사는 참선 실수를 위주로 하는 템플스테이 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존 불교문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선 실수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 이를 통해 참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과 참선 후 소감문 등을 통해 참선 경험자들의 느낌과 생각들을 참조해 프로그램 구

자기 점검의 장 마련
'선 문화센터' 조성도

성을 마쳤다.

범어사 참선 템플스테이의 주안점은 실질적인 참선 실수와 점검에 있다. 참선을 직접 해보고 참선 이후 자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묻고 답하는 장을 활짝 열어 놓을 예정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참선 후 일어난 경험에 대한 의문' 등 직접 참선을 해본 이들이 묻고 싶은 것을 물을 수 있는 장을 연다는 것이다. 좌선에 국한되지 않고 좌선, 행선, 생활선 등 참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의 참선이 이어지고, 점검을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템플스테이를 만들겠다는 것이 범어사의 각오다.

연령에 제한 없이 3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주말 참선 템플스테이는 사찰예절 배우기, 사찰 안내, 발우공양, 저녁예불 및 108배 참회, 불무도, 참선 강의 및 질문, 참선 실수, 새벽 숲길걷기(행선), 울력, 고당봉 산행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범어사의 참선 템플스테이는 범어사 추진하고 있는 '선(禪) 문화센터' 조성과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선찰대본산의 위상에 걸맞는 '선 문화센터' 조성으로 한국 선 불교를 국내는 물론 세계 속으로 알리는 학술대회, 참선 공간 재배치, 행선을 위한 보행로 확보 등이 마무리되면 참선 템플스테이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어사는 참선 템플스테이 외에도 불교문화 체험 템플스테이,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가족 참여 템플스테이, 부부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묵언 템플스테이 등을 다양하게 기획 실시하면서 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갈 예정이다.

참선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연수국장 혜수 스님은 "참선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선이 어렵다는 오해를 말끔히 없애고 한국 선불교의 진수를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널리 알리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51)508-3125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범어사는 5월부터 참선전문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존에 열린 불교문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미리 적용한 참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

국적 달라도 '감동'은 하나

국제한국학 수강 외국인 청계사서 사찰 체험

"훌륭~합~니~다!"

4월 8일 오후 경기 의왕 청계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제한국학 강좌를 수강하는 내외국인 학생 8명은 사찰체험을 한 뒤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들 중 5명은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불가리아, 한국계 미국교포이고 나머지 3명은 한국인. 한국인 가운데에는 모 대학의 영문과 교수도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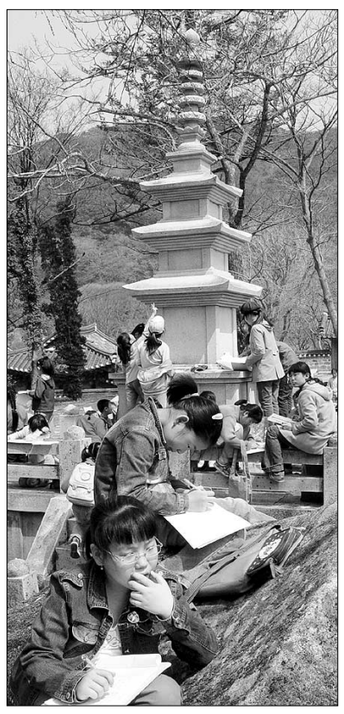
비록 4~5시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들이 사찰체험을 하게 된 것은 국제한국학 강의를 맡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 덕분. 국제한국학 강좌에서 한국사상을 강의하고 있는 한 교수는 한국사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들은 청계사에서 참선 지도를 받고 불교사상 및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을 마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며칠 동안 사찰에서 지내며 불교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형조 교수는"불교를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산사체험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후원자가 나선다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사찰체험 참가자들이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으로부터 불교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간愛 · 역사 의식 되새기자"

대흥사 서산대사 탄신대재…글쓰기 대회 등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는 서산대사 탄신 485주년을 맞아 지난 4월 8일 보살수계식,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서산대사 탄신대재는 천운(조계종 원로의원), 보선(대흥사 회주), 암도(조계종 前 포교원장), 명공(백양사 주지), 여연(일지암 주지)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박희현 해남군수, 정진석 해남군의회 의장, 지역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흥사 경내에 자리한 표충사(表忠祠)에서 봉행됐다.

참석자들은 표충사에 봉안된 서산, 유정, 처영 스님의 영정에 향과 차, 꽃을 올리고 나라를 지킨 의승장과 승군들의 뜻을 기렸다.

이어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생명이 부처이며, 가족과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상사가 수행이며 그 자리가 극락정토"라며 "이러한 마음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서산대사의 인간사랑이자 역사정신의 구현이다"고 강조했다.

탄신대재에 앞서 성보박물관앞에서 개최한 제11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향토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는 문화행사로 해남관내소속 30여개 초 · 중 ·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해남=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광주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0일 오후 6시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기념법회를 연다.

이날 기념식은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전 포교원장) 초청법회와 가수 김종환씨를 비롯한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펼쳐진다.

이준엽 기자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광주 불일청년회, 경로잔치

광주 원각사 불일 청년회(회장 이미향)는 4월 10일 원각사 경내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는 한방 무료진료와 문화공연, 다과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어르신을 위한 정책과 정신은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년불자들이 해마다 어르신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무료 건강검진을 펼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원각루와 법당에서 진행된 무료진료에는 대동한방병원과 천원당한의원에서 의료진 10여명이 나와 노인성질환을 검진하고 침술, 물리치료 등을 펼쳤다.

또한 원각사 마당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원각사 합창단, 하늘땅 풍물패 등의 공연과 어르신 장기자랑이 열렸다.(062)223-3168

이준엽 기자

호산마을 중창위한 바자회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는 4월 10일 영조(송광사 주지), 지각 스님(동구불교사암연회장) 등 사암스님과 지역기관장, 주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및 호산마을 중창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은 "어려운 이웃이 없는 사바세계를 위해 다함께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며 "인간불사를 위해 작은 힘들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각사 경내에서 열린 이날 바자회는 전통차, 불교음식, 불교용품 판매와 도산스님 휘호전시회가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신라문화원 충담재 개최

신라 경덕왕 당시의 고승이며 향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로 유명한 충담스님을 기리는 충담재가 4월 10일 경주 안압지에서 열렸다.

(사)신라문화원과 경주문화축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육법공양, 추모사, 축사, 헌다, 충담스님과 향가이야기, 헌악, 헌무, 헌화, 헌향, 다례 시연 등의 추모제와 풍물패 니르바나, 서라벌 국악실내악단, 쌍계제다의 시연 및 공연으로 진행됐다. 앞서 남산 삼화령에서 충담 스님에게 차 공양을 올리는 다례도 열렸다.

배지선 기자

외국 노동자들 대원사 참배

(사)자비신행회 부설 한꽃 외국인 노동자 센터(이사장 현장)는 4월 11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호남국제마라톤대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가시켜 한국문화를 체험토록 했다.

이날 마라톤대회에는 네팔, 태국, 중국, 인도 등 4개국 노동자 30여명과 자원봉사자가 5km 코스에 참가해 전원 완주했다.

이날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라톤 대회 참가후 보성 대원사를 방문해 참선, 전통무예 수벽치기, 인도음악가 박양희씨의 공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 전통사찰과 문화체험을 했다. 이준엽 기자

경주 남산 마라톤 코스 변경

5월 29일 열릴 예정인 제2회 경주남산 산길 마라톤대회의 코스가 남산과 경주 왕경문화재를 함께 체험하는 코스로 변경됐다.

주최측인 대구 · 경북 조계종 5개 교구본사는 4월 11일 경주 남산 산길마라톤대회로 인해 경주남산의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경주 시민 · 문화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산산길을 걷는 코스로, 경주왕경을 돌아오는 달리기코스로 결정했다. www.buddhamarathon.com

배지선 기자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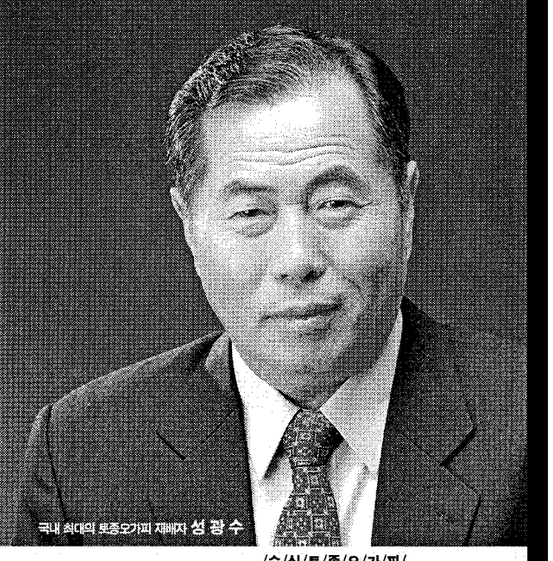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지회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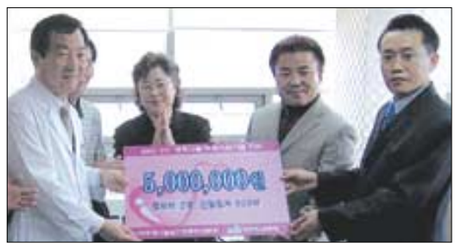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 산삼베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소아암돕기 성금 · 헌혈증 전달
생명나눔 광주본부

소아암 환우들의 투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광주전남 본부(본부장 현장)는 4월 12일 2차 투병지원 기금 500만원과 헌혈증서 500매를 전남대 화순병원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과 헌혈증서는 무등산 문빈정사 문화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아암 환우 돕기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펼치고 모은 성금으로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정찬호, 이명현 어린이와 환우 김봉례씨에게 휠체어 및 성금으로 전달된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234-6602
(농협 617-01-146875 예금주 : 생명나눔)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이정순 정구순 남훈어머니 232,950원
김준만 150,000원, 수지 반야사 125,300원
총 누적금액 40,083,72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잊을수 없는 역사 널리 알릴터"

발기인 40여명, '나눔의 집' 후원회 창립

"아이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 기거하고 있는 할머니들은 요즘 애가 타고 한숨이 나온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본군에 의해 짓밟힌 기억 속에서 몸서리를 치며 아직도 그 환영과 싸우고 있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 그러나 할머니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학생들 앞에서 증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까닭은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일'을 후세대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다.

4월 8일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후원회(회장 이희규)가 발기인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됐다.

후원회는 금전적 후원뿐만 아니라 위안부로 차출돼 해외로 끌려 나가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을 국내로 귀환하도록 돕고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과 과거사 청산 의지 결여 등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원 설립을 위해 후원단을 폭넓게 조직해야 하는 것도 후원회가 해 나가야 할 일 중 하나다.

이번에 후원회가 창립된 것은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 중 생존자가 120여명에 불과한 현실 때문. 게다가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발뺌하고 있는 것이 할머니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서 개별 후원자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다 죽으면 역사도 잊혀 집니다. 그 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해주었으면 해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후원회에 바라는 것은 한결같다. 후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기르고, 우리의 참혹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나눔의 집 안신권 국장은 "할머니들의 짓눌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그들이 겪은 일을 알려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031)768-0064

김강진 기자



"할머니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수련관 강당에서는 4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후원회가 발족됐다. 사진제공=나눔의 집

안국선원, 산불 피해주민돕기 의류 기탁

(재)안국선원 신도회(회장 무량심)가 4월 13일 본사에 양양 산불 재해지역 주민돕기 물품으로 의류 9박스를 기탁했다(사진).

안국선원이 기탁한 의류는 원피스 투피스 자켓 바지 치마 스웨터 등 총 477벌로 2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안국선원 신도회는 "양양 산불로 집이 불타버려 생필품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옷을 준비하게 됐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사는 기탁받은 의류를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굽고, 튀기고, 무치고.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시락을 책임지는 '월요일 오후 봉사팀'. 4월 12일에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이다.

도봉서원종합복지관 도시락 봉사팀

밥맛 반찬맛 사랑의 맛이예요

4월 12일 화요일 오후.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 4층 식당에는 쑥갓 나물과 돈까스, 계란말이 등의 반찬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1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봉구 관내의 거동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120여 가구의 끼니를 책임질 '귀한 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봉사팀은 이름이 없다. 애당초 봉사팀을 조직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모인 이들을 복지관과 이용자들이 '월요일 오후봉사팀'이라고만 부른다.

'월요일 오후 봉사팀'에는 복지관이 개관한 2000년부터 도시락 봉사를 해 온 이순례(70) 보살과 박미자(57) 보살을 비롯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 무엇보다 행(行)이 중요한 것을 느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김광숙(58) · 박경자(55) 보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다 자신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2년 전부터 직접 반찬 준비에 나선 권정숙(71) 보살 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이 모여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한 윤영주(43) 보살까지 합세했다.

"규율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 보다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더 신명나는 법이잖아요."

윤 보살의 말처럼 봉사 경력도, 소속도 다른 이들이 하나 둘 모여 봉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불자라는 점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 매주 맛난 반찬을 만들어 낸다. 반찬 준비를 하는 손길이 바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봉사의 의미를 곱씹는 것도 이들에게는 소중한 일이다.

"우리는 집에서 하던 일이 밖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란 그저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김강진 기자

수건 · 티셔츠 후원해 주세요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5월 6일 '지역 어르신 축제한마당'을 개최한다.

'월요일 오후 봉사팀'은 "복지관 측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지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건이나 티셔츠 같은 것을 후원받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02)3494-4755~6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저개발국 교육·복지 지원 '붐'

복지마을·학교·유치원 잇따라 건립
간다라 문화보존운동·빈곤층 돕기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원융종이 저개발 국가의 학교건립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복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스리랑카에 복지마을과 학교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태종은 파키스탄에 간다라 문화 보존 위한 단체설립과 학교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각국에 설립된 JGO 센터 산하에 유치원을 건립했으며, 원융종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인도 불교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20억원을 돌파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으로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 건립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하고, 5~6월 경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건립되는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은 현지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 고아원, 양로원, 보건소, 종합 관리사무실, 사찰, 교육편의시설, 방문객 숙소, 공공 화장실, 놀이터, 운동장, 내부공원, 작물 재배터 등이 들어서는 복지마을은 2006년 11~12월 경 완공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지진해일로 파괴된 스리랑카 탕갈라 와지라시리 사찰의 학교 건립비 1만5000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태고종은 4월 4일 부원장 혜공, 종단사간행위원장 수열, 사회부장 백운 스님등 한국인 불자 26명과 스리랑카 와지라시리 사찰 주지 미리세담마와사 스님 및 지진해일 희생자 유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도재 및 희생자 유가족 초청 위문법회를 갖고 1차로 학교 건립 착공비 5000달러를 전달했다. 나머지 1만달러는 학교완공 무렵에 전달할 방침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3월 24~28일 파키스탄을 방문, 정부관계자와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논의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인류문화의 위대한 유산인 간다라 유적 보존을 위해 유적 조사와 학술연구에 전념할 '한국 간다라 문화교류협회'를 창립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산하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통해 해외 입양아 친부모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월 10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운영중인 컴퓨터 직업훈련원인 JGO센터내에 유치원을 개원하고 지역의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 50여명을 입학시켰다. 진각종은 현재 입학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1986년부터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와 절대빈곤층 가정의 청소년 300여명을 모아 키우는 '시슈 코루나 상가회(청소년 구호 승가회, 회장 비말 스님)'에 매년 의류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도 스님들의 한국 체류시 숙식도 제공하고 있다.

김원우 · 강유신 기자



태고종 인천종무원은 4월12일 월미도 특설도량에서 수륙팔관대재를 개최했다.

국운융성·인천발전 수륙팔관재

태고종 12일 월미도서

태고종 인천종무원(종무원장 대은)은 4월 12일 월미도 특설도량에서 국운융성과 인천발전을 위한 수륙팔관대재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동방대학장 법장, 중앙포교원장 무공 스님과 김창섭 인천시 정무부시장 , 신영은 인천시 시의회부의장, 길인천 인천대 교수 등 정관계자,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괘불이운으로 시작된 수륙팔관재는 발원문, 대회사, 법어, 설계, 축사, 우리의 다짐, 무애춤, 방생업장참회문 등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인만큼 팔관재의 의미를 돼새겨 유주무주고혼의 넋 천도와 산 생명을 방생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자"며 "동참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팔관재의 의미와 공덕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팔관재 봉행위원장 대은 스님은 대회사에서 "수륙팔관재는 중생을 고통을 해탈케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불교의 자비사상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명의 존엄을 깨달아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팔관재에 동참자들은 우리의 다짐에서 국운융성과 인천발전을 위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근검절약, 화합정신으로 경제안경 기여, 국민정서를 순화해 사회경제안정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65회 춘계 강공회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4월 18~22일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 및 종무원들이 참석하는 제65회 춘계 강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공회는 불사의식 개편과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또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제시됐던 안건에 대한 중간평가도 이뤄진다.

총지종은 강공회를 통해 원의회 및 유지재단 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각각 개최해 종단의 현황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종무행정 활성화와 교세확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우승 통리원장은 "종단운영에는 전 승단과 교도들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충주호 중앙탑 광장에서 열린 본원종 수륙대재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본원종 통일기원 수륙대재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4월 11일 충주댐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통일 국태민안 기원 방생 및 수륙 고혼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경제적 번영은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대화, 중앙종회 부의장 혜원, 감찰원장 대성 스님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포교사 '업그레이드' 한다

포교사대학원 개원…재교육 역할 기대

포교사들을 위한 조계종 재교육 기관이 개원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포교사대학원(원장 도영 스님)은 4월 9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교사대학원은 포교사 품수를 받아 활동중인 포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 전문 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을 비롯한 포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성홍 단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에서는 최초로 포교사 재교육 기관이 개설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개원을 하지만 포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자"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이어 "포교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포교사대학원 개원을 치하하고 있다.

포교사대학은 불교신행문화학과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구성되며 2년 4학기제이다. 교수진은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 박경준 교수, 권경임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강유신 기자

천태종, 낙산사에 1천만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4월 11일 화재로 전소된 조계종 양양 낙산사에 1천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많은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인 낙산사가 전소돼 마음이 아프다"면서 "불자들의 정성이 모아져 하루빨리 사찰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위로금은 이날 천태종 총무국장 월도 스님에 의해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직접 전달됐다.

김원우 기자

조동종 부종정에 제공 스님

조동종은 4월 16일 부종정에 제공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제공 스님은 1960년 팔공산 대둔사에서 연곡 화상을 은사로 득도, 70년 파계사에서 고송율사를 계사로 구족계, 73년 서울 안양암에서 법흥율사를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4년 대구 호심사 주지, 97년 원효종 중앙종회 의장, 99년 조동종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대승종 종정 사리친견 법회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대종사 49재 및 사리 친견법회가 4월 14일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법천, 종회의장 법호, 문도회장 법상 스님 등을 비롯 200여 신도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1부 49재와 2부 사리친견법회 순서로 진행됐다. 임제종 종정 용화 스님은 영가법문에서 "성도 대종사의 원융무애사상은 대승종의 법통을 잇는 진리이며 환란의 시대를 헤쳐 갈 지혜"라고 말했다.

도암당 성도대종사는 1920년 용인에서 태어나 35년 대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88년 대승종을 창종한 후 초대종정에 취임했다.

스님은 지난 2월 25일 열반했으며 3월 1일 봉행된 다비식 후 40여과의 사리가 나왔다.

강유신 기자



4월14일 대승종 종정 성도대종사 49재에서 임제종 종정 용화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불교계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및 특강반을 개설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교육 과정 / 내 용		강 의 내 용	강의일자	지도교수
출가자(행자) 교육 과정		출가득도를 희망하는분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의식 습의 불공등을 집중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목.금	본교 교수진
경전연구과정		금강경,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선어록 등 대승경전등을 권위있는 교수님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함	금	신규탁 연세대교수
의식 교육 과정	기본반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불공 시식 축원등 초심자도 여법히 의식을 집전할수 있도록 함	목.금	능해스님
	전문반	각단불공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사십구재 천도재의식과 바라무 나비무등의 작법의식 을 집중강의함	목	능해스님
	연구반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천도재 방생 점안등 전문적인 의식을 위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함	수	경허스님
특강 과정	작법반	불교의식중 바라춤 나비춤등 의식무를 배우고자 하는분을 대상으로 집중강의		도명정안스님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분을 지도함	화	대혜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목	지홍스님
	생 활 역학반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전문적인 인생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금	대각스님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5년 5월 3일(음 3.25) 오후 2시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반명함판사진2장. 각반 30명이내,선착순접수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사무처 - 전화 02)763-5213. 팩스02)747-9290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奉 行

세계불교 해동원효종 창종 및
벽운 해광 대종사 종정추대
법공 정산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宗 旨
見 性 成 佛
轉 法 敎 化
和 諍 平 和

宗正敎示
定 慧 行 願
和 合 和 諍
衆 善 奉 行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4월 21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 총무원 동부 보광사
● 전 화 : 042)283-5896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 봉행위원회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대불련 미래 봄날 새싹처럼 활기 넘쳐요



4월 9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렸지만 대불련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다보수련원 현장의 날씨는 청명했다. 밝은 표정으로 율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대불련 첫 전국 신입생 환영회

4월 9~10일 다보수련원서 환영회…전국 150여 학생 동참
연등 만들기 · 목탁 집전 등 '기초' 배우며 내실 있는 활동 다짐



'선택강좌' 시간에 학생들이 연등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환영문화제'에서 충남대 불교학생회 풍물패 '벼랑'이 공연을 하고 있다.



'알 법우'를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학생들.



목탁집전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홍현, 이하 대불련)가 재도약을 위한 날개짓에 여념이 없다. 재정 등 물적 토대가 약하고 갈수록 회원들이 줄어가고 있지만,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포(弘布)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김홍현 회장은 제주지역 대불련을 재건하기 위해 10여일간 제주의 전 대학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불련 역사상 최초로 전국 대학 신입생 불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4월 9~10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65명 신입생들과 86명 재학생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05 대불련 마니아-전국 신입생 환영회'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MT시즌'인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신입생으로서 불교를 배우고 나아가 불교학생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고민들을 나눴던 이번 환영회 현장은 대학생다운 '발랄함'과 불자다운 '진지함'이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였다.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봄비가 내린 4월 9일. 전국 불교학생회 신입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부처님이 아셨는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는 밤늦은 시각이 돼서야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환영회는 학생들의 설레임과 활기로 넘쳐났다.

"대불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생 불자들의 모임으로 전국 180여개 대학에 지회가 있습니다."

'대불련 역사와 현황'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자 신입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서강대 새내기 상미는 "선배들에게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상미는 "규모에 맞게 더 내실 있고 활기찬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한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진행된 법등(조) 모임. 전국에서 온 재학생과 새내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10개의 법등을 만들었다. '불교학생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불교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와 같은 주제에 대한 얘기가 오간다.

1법등 좌장을 맡은 장지혜 서울지부장(동덕여대 불교학생회장)은 "선배로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 못해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면서도 "각 대학 불교학생회 현황을 얘기할 때는 선후배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줬다"고 전했다.



환영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갖가지 율동으로 서로의 친목을 도모했다.

저녁 공양 후 진행된 환영문화제에서 학생들은 노래와 율동, 퓨전국악 공연이 계속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또 종이와 빨대, 종이컵 등을 이용해 2m 높이에서 계란을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는 게임 '알 법우를 지켜라'에서는 전 법등원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어색함을 떨쳐버린 둘째날 신입생들의 의지와 패기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됐음에도 신입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다.

수련원 큰법당에서 진행된 '불교기본예절' 강좌에 참여한 운용(충북대)이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향을 사른다. 너무 씩씩한 걸음 때문에 경내가 울려 지적을 받았지만, '초보' 수준은 넘었다며 칭찬을 받았다. 다음에 절에 가면 학생회 동기들에게 법당 예절부터 가르치겠다며 큰소리다.

상명(제주산업대)이와 용석이, 주성이(이상 제주대)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행사에 참여했다. 셋은 제주 우리절 주지 인성 스님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환영회에 참석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했다. 녹록치 않은 조건의 불교학생회 생활이지만 세 명의 신입생들은 연등을 만들면서 사귄 다른 학교 친구들을 새 '도반'으로 맞은 것이 큰 소득이다.

국립간호대의 유일한 신입생 정래는 환영회에 와서 목탁을 처음 잡았다. 지도간사의 말을 들으며 목탁을 두드려 보지만 소리가 영 시원찮다. 그래도 학교에 돌아가면 정기법회에서 여자선배 4명을 제치고 자기가 꼭 집전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신입생들은 이렇게 대불련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지만, 행사를 마친 신입생들은 "우리는 대불련 마니아"라며 부처님 마음처럼 이미 하나가 돼 있었다.

충남대 김태연 불교학생회장은 "2001년에 이런 전국 행사가 있었으면 더 발전하는 대불련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불련에 대해 알게 됐고 각자에게 활동의 방향을 가르쳐준 환영회는 신입생들에게 봄날 새싹에게 내리는 한줄기 비와 같았다.

'대불련의 미래' 신입생들은 어느새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다섯 비구가 전법(傳法)의 길에 나설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학교로 돌아갔다.

괴산=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최재 뒷얘기

지원 너무 없어 하루하루가 '고달파'

43년 대불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신입생 환영회를 마련한 김홍현 회장은 행사전 "행사가 잘 되도 고민이고 안 되도 고민"이라는 말을 했다. 학생들이 많이 오면 적자 예산을 감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활동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합심해 3개월간 환영회를 준비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어찌됐든 잘된 행사를 만들어야 대불련이 지평을 넓혀 갈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며 분주히 행사장을 누빈다.

대불련의 이러한 고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학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불교계의 지원이 너무나 미미해 대불련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다행히 대한불교진흥원이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해줘 시름을 놓았지만, 이러한 고민은 1년 내내 집행부임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숙제'가 될 것 같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처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계획에 따라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알찬 성지순례가 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미리 챙기면 즐겁고 유익

출발전 전화 · 공문 통해 법당사용 등 사찰과 협의해야

성지순례 알차게 가려면

화사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 · 직능 단체를 비롯한 신행단체들이 많다. 4월 중반부터 5월말까지는 성지순례철이라 할 만큼 피크를 이룬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직장과 집안을 벗어나는 봄나들이쯤으로 여기는 불자들이 많다. 신행활동의 활력이 될 성지순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협조요청'

얼마나 알찬 성지순례를 보내는가는 사전준비에 달려있다. 신행단체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점은 순례할 성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사찰협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사전에 전화나 공문으로 법당 참배나 안내, 공양 등 구체적인 협조사항을 요청하면 대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사찰의 협조 없이 무작정 성지를 찾아가는 것은 해서는 안될 금기사항. 사찰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성지순례라는 이름을 내건 봄나들이로 전락할 수 있다.

#차안에서 '발원'

성지순례를 가거나 다녀오는 차량에서의 시간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시간.

순례를 갈 때는 발원문을 낭독해 순례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순례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순례에 대한 소감과 다짐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생활 속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도' 본 뜻 새겨라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구도의 각오를 다지는 신행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반성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걸러내는 또다른 '만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순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낼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순례자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참회와 발심을 일으키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서울 봉은사 포교국장 선업 스님은 "알찬 성지순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준비, 진행, 회향에 이르기까지 본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한다"고 강조한다.

#프로그램 준비 철저히

성지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성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꼽힌다. 참가자들의 성지순례에 대한 만족도가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성지에 도착하면 법당에서 약식으로라도 법회를 열어 순례의미를 환기시키는 것은 필수다. 성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맨발로 숲길걷기, 명상, 좌선, 기도, 108참회 등 다양하다. 1박을 하는 성지순례라면 철야정진과 새벽예불을 체험하면 특별한 감흥을 얻을 수 있다.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주위에 공덕 '회향'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효력이 그 때 뿐인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이유는 '회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지순례의 공덕이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알찬 성지순례로 남는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회향을 특별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 자연스럽게 회향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감흥과 체험을 여러 사람과 대화로써 교감하는 것으로도 회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열린 청불회 구현할 것"

김병준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 13일 취임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청와대불자회는 조윤제 前 회장이 주영국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 생긴 2개월여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청와대불자회는 4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정사 등 각 종단 대표와 윤원호 열린우리당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준 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김병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와대불자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만큼 우리 사회에 불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일각에서는 청불회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모든 회원들이 화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열린 청불회를 구현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회장은 또 "이론과 실천을 섭수하는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이라며 "분기마다 큰스님을 초청해 수행법 강좌를 마련하는 등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청불회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포용과 이해, 넓은 안목을 가진 국정을 펼쳐나간다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정운영을 펴는 불자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김병준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이 4월 13일 취임했다. 청와대불자회는 '열린 청불회'를 구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27일 10돌 맞는 국회 정각선원

26일 혜국 스님 초청 기념법회

입법기관인 국회. 입법, 행정, 사법 3부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에는 법당이 있다. 국회 본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정각선원이 그 곳이다. 정각선원은 4월 27일로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정각선원은 22평 규모의 사무실을 개조,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도량이다. 타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5년 문을 연 이래 사무처직원과 비서관, 보좌관, 용역업체 직원 등 국회에서 일하는 불자들의 기도, 법회, 수행 등 신행근본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개원 직후에는 회원이 급격히 증가해 150여명에 달할 만큼 직원들의 불심을 하나로 규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정각선원은 스님이 상근하지 않는 직장 도량이면서도 직원불자들이 어느 때나 찾아와 참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정각선원의 한 주축이 돼야할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거의 찾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각회와 직원신도회를 통합해 의원모임과 직원모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정각선원을 찾아 법문한 스님 중에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 등 명성 있는 선사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국회정각회와 직원신도회는 4월 26일 오후 6시 20분 개원 10주년 기념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초청 참선법회를 열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윤애경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부회장

국립경찰병원 불자회의 터줏대감 부회장 윤애경 간호사(45 · 사진)는 돈독한 불심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사는 불자로 정평이 나있다. 교통사고로 19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남편을 볼 때마다 힘들어서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고맙게 느껴지더라구요. 지금은 살아있는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여깁니다."

남편 19년째 간병하며
포교 · 봉사활동에 동분서주

윤애경 부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 때문에 사춘기때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두 아이가 대견스럽다.

불자였던 윤부회장은 결혼후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1987년 남편이 자리에 누운 후 다시 불교로 돌아왔다. 불교가 오랜 고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윤부회장은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불교에서 찾았다.

"부처님전에 엎드려 '이게 내 업이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순간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솟았어요. 부처님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밝게 웃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윤애경 간호사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경찰병원 불자회 장직을 대행하는데다가 평소 인연을 맺었던 사찰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준비를 도우러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근무가 없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사찰을 찾아 기도하고 연잎을 만다.

누구보다 불은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윤애경 부회장. 서울 불광불교대학 2학년인 그는 요즘 병원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불교를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절실히 느끼지 못해 끌려오듯 억지로 신행활동을 하는 이들을 '망아지불자'라고 표현하는 윤부회장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법당으로 인도한다.

"많은 가피를 받아놓고 혼자 절에 가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좋은 법을 혼자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넉넉한 부처님품을 느끼게 해 주는게 제가 받은 불은과 도움을 회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봉영 기자

영호남 합동산행 … 신행정보 교류

쏟아지는 장대비도 산악인불자들의 신심을 막지는 못했다.

4월 10일 우천에도 불구하고 부산불교산악회(회장 박웅락) 주관으로 대경불교산악회와 광주자비산악회의 영 · 호남 합동산행이 통영 사량도에서 진행돼 산악인불자들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산행에는 불교산악인련 김진관 총재, 강갑균 부총재를 비롯 서울 금강메아리, 마창불교산악회, 양산불교산악회, 고성불교산악회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1997년 11월 범어사에서 광주불교산악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1,2회 합동산행을 열어온 부산불교산악회는 이날 산행을 마치고 대경불교산악회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간 교류와 화합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합동산행을 계기로 부산불교산악회가 정기 산행시에 실시하고 있는 차내 법회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전망이어서, 합동산행이 지역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별 신행정보 교류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졸업 · 입학 기념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아이벗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매일 매일 쏟아지는 불교세상 - 언제나 부처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뉴스 —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사가 즉시 업데이트 되며 불교뉴스에 대한 해설, 분석 등도 함께 기사로 서비스 됩니다. 또한 문자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불교계의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불교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기사 제보 코너가 있어 쌍방향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 전불가코너에서는 다양한 행사 및 의식곡을 비롯해 창작 찬불가까지 서비스되며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벗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꾸밀수 있는 스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법문 — 이시대의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지상백고좌,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은 주로 문자형태로 큰스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장, 선원장, 주지 스님 등 다양한 계층의 스님과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법문의 경우는 영상으로 직접 큰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e-BOOK — 불교계 최대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E-BOOK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교양대학 — 크게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강의로 나누어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과 문자로 강의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강의는 불교미술, 다도, 꽃꽂이 등 다양한 강좌들을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벗 단말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기자와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법당 — 매일매일 하루를 경책하는 경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향후 자신이 속한 사찰의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직접 사찰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등접수, 기도 접수 등 사찰의 다양한 종무행정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불교문화샵 —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불교문화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전송 : 02) 737-0697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6천

● 위치 : 경주
● 법당 : 18평
● 요사 : 30평
● 부지 : 890평
● 가액 : 3억8천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1350평
● 가액 : 2500만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북한산: 400평절-3억2천/800평절-7억/60평절-3억3천
90평토굴-3억/200평절-2억5천/200평토굴-1억5천
● 관악산:2000평터-20억/250평절8억/120평절-5억5천
● 양평:700평절-3억/263평토굴-2억5천/2100절-14억
● 퇴촌:10000평터-1억5천/20000평터-10억/2000평-5천
● 여주:45000평터-15000/9000평터-1억6천/
6000평터-2억5천
● 원주:250평절-8천/700평토굴-5천5백/1000평절-2억
● 충북:800평절-3억/200평절-5천/180평절-2억/
전평절-1억5천
● 고양:350평절-7억 안양,광명,성남포교당, 전국사찰터많음
※ 공양주 부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제주도 땅 안내

● 위치 : 제 주 도
● 토지, 임야, 별장지
● 농가주택. 전원주택지
● 사실 분, 파실 분

064)711-1447
011-9773-4414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법당, 식당, 종무실,
주지실구비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자모집
031)682-3169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절터안내

● 경남 지리산 유구한
두메산골에 도로 계곡 접
● 토목공사 완료
건축허가필함
다용도 가능한 1,680평
● 평당 9만원

011-570-1317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석불암
● 부지 : 약 1,0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창고, 다용도실, 삼존불, 탱화,
단청 집기일체, 부속 화장실, 주차장 완비
● 새 건물, 앞에 골프장 신축중, 10분거리에
스포츠 파크 있음, 전망수려 ● 가액 : 3억

055)862-2022
011-627-0290

사 찰 안 내

남동향의 웅장한 전경 뒤로는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건강에 좋은 해발 700미터 지리산 자락에 폐문 수행이
가능한 여러 독립된 방사외에 황토이온 선방등 여러채의
요사체가 준비되어 기도, 참선, 요양에 적합한 도량임.
장엄한 전망을 살린 통유리 설계와 도로가 경내로 연결.
맑은 계곡, 현현한 소나무와 바위들의 선풍 드날리는 명당
직접 오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010-6398-5730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근교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목조 5포, 7포)
요사 : 50평
● 가액 : 13억
● 산세 좋음

포교당
● 위치 : 구미시내
● 대지 : 40평
● 법당 90평
● 양도가 : 2억
(융자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절충) 답사후결정
● 주변 환경 좋음,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02)352-981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011-650-8481
032-667-8485

사찰 안내

● 위치: 광진구 구의역5분거리
구의시장옆 대로변 3분거리
● 평수 : 대지 50평,평당 750만원
● 특징: 최신 리모델링 시설,
기와지붕

02)3437-9773
010-4726-977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 실버타운 최적

● 위치 : 충남 예산 (아산도고온천 12분거리)
● 무공해 청정 계곡수와 주변산 숲
● 대지 : 200평(주택 30평 짜리 2동)
준농림지 572평 합 772평
● 가액: 2억3천(현장 답사후 절충)

주인 019-9141-8751
041)332-1069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80만원(조정가능)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인접(양산, 서창)
● 대지: 60평
● 평당 200만원 호가
● 건물신축: 64평 3층(단청필)
● 가액: 3억4천(융자 9천 포함)
현금 약 2억
● 실수요 스님만 답사후 절충

055)386-3973
011-868-59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대지 103평, 건평 23평
● 법당 1, 방 3개,
집기일체 포함
● 가액 : 3천만원

055)972-4841
010-3039-4841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7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마산시
● 대지 : 600평
건물 : 고건축 신축(22평)
요사채(37평)
● 산세수려한 시골 마지막산자락
● 가액 : 4억(융자1억7천만원 포함)
답사후 절충가능

053)638-8040
011-530-8490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춘천
소양댐 근교
● 450평 평당 25만원
330평 평당 35만원

011-9796-7599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하옥
● 대지 200평, 전 500평,
요사 30평, 법당
● 산세수려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62-0343
054)262-6673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 3천만원 (대출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 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쓰고 관리해 옴

016-367-2112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국립공원 인접) 망월사 1호선
지하철역에서 15분거리
● 평수 : 200평(시유지) 임법당 : 45평
● 마당에 관세음 보살님
석불 칠층석탑
심야보일러, 지하상수도
● 가액: 4억(절충가능)

016-337-9518

포교원안내

최고의 시설,최고의 위치(시장중심)
● 사정상 급 양도
● 위치: 대구 동구시장내
3층건물 3층
● 평수: 건물 법당 70평
● 요사 및 부엌 40평
옥상 전용공간 120평
● 가액: 1억2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월세없음)

011-436-0097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중계동
10번 종점, 불암산 밑
● 건평 : 35평 (법당 16평)
방2개, 화장실 3개
● 총평수 : 85평(텃밭, 단독 산끝집)
● 가액 : 전세 3천5백만원.
시설비 1,200만원

02)932-7659
011-709-7659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읍
신흥리
● 대지 405평 건물 30평
● 가액: 9천만원
대출 2천만원

011-9419-426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옆
● 약 53평 3층 건물중 3층
● 법당1, 방2 ,부엌1, 목욕탕1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621-9216

토굴안내

● 위치: 부산 수영
● 요사채 28평,
법당 6평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4천3백만원

011-869-1915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최저가 2300만원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례IC 4분, 부산 서면에서 30분
● 부지: 답 404평 국유지 1600평
합 2000평
● 건물 : 스래트 ● 임법당 : 12평
요사채 15평, 산신각 2평
● 특징: 계곡끼고 물철철 그림같은 곳
● 가액: 1억6천만원

011-845-2886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강릉시 성산
● 총평수 : 2148평
● 종교부지 : 1000평
● 대지 : 240평 ● 나머지 : 전답 760평
● 건물평수 : 대웅전 40평
산신각 10평, 지장전 10평
요사채 60평, 조립식 30평
● 가액 : 11억
※ 납골당 및 요양원 시설 가능
※ 컨설팅 중계업 사양

010-3191-9095

암자안내

● 위치: 정읍시 산외면
화중리 당골마을
4차선도로에서 5분거리
도로포장됨
● 평수: 15000평
● 조립식건물 50평 방7개
● 평당 2만원(절충가능)

016-633-4708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600평, 대지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약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하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6억 9천

011-9411-5302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채 슬라브 15평.
● 즉시 포교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 주인보살 직접, 답사후 절충 가능

011-792-8969
011-9423-6788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 구조: 대웅전 및 부속건물 58평
● 가액: 1억1000만원
(비구니스님 적합)

011-9405-8186
043)733-818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길동
5층건물 중 3층
● 방2개, 공양간, 화장실2개,
도시가스 시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75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아파트 밀집지역, 즉시법회 가능

02)472-0006
011-387-3283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 3층 중 2층 40평
방2 공양간 창고1
● 특징: 삼존불 각단탱화
엠프 집기일체 포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236-2848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스키장 근접
● 부지: 1300평 건물3동 건평95평
● 가액: 3억8천만원

● 부지: 1만평
● 가액: 6억 5천

031)533-2420
017-202-2741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도로변
위치 좋음
● 대지 30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산신각 1동 종각 1
● 가액: 1억

011-355-9117
055)674-4024

토굴 안내

● 위치: 경북 봉화 현동
비룡산자락
마을에서 3km
● 방3개, 부엌(건물만 등기)
● 가액: 1천만원
● 사실분만 전화요망
● 전화받는시간: 12~5시 사이

063)432-0120

휴양처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구옥 수리한 집
● 작은방2, 입식주방, 기름보일러
물상태 좋음
● 건강상 휴양하실분만 연락주세요
조용하고 깨끗함
● 즉시입주가 . 전세 400만

031)885-1936
011-9981-1774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대방동
● 대지: 184평, 건평 184평
● 1층 법당: 30평, 방3개, 사무실, 부엌
2층 요사채: 방 5개. 지하: 창고, 주차장, 화장실
● 가액: 답사후 가액 협의
● 교통편: 전철1호선, 7호선, 버스, 대중교통 편리
● 입지: 반경 2km 內 중산층 아파트 5만여 세대

02)882-1995
011-9646-1990

사찰 안내

● 위치: 원주 봉화산
● 총평수 1300평(800평 종교부지)
대웅전 35평, 보궁 25평, 삼성각 5평
미륵대불, 석가탑, 요사채 50평
신축, 심야전기. 정법포교
청정도량. 산세수려한 등산로임
● 가액: 상담 후 절충
※꼭 하실분 절충가능
● 큰가람을 이루고자 뜻이 있는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함

010-6213-594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수정동 초량전철역
● 대지 : 70평
● 건평 : 약40평
● 구조: 법당, 방 3개, 화장실 2 및
창고, 삼존불, 신중, 미륵불,
7층석탑, 우물 용왕
● 정원이 잘 갖춰진 아담한
시내중심가 임법당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1억2천포함)

011-865-722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층건물중 2층
● 총 60평에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영가단 엠프시설
범종 에어컨2대
옥탑에 삼성각 요사채 30평
● 방4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즉시 법회 준비완료)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모든 집기와 시설비는 답사 후(절충)

010-7121-5885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사찰안내

● 위치: 대전시
● 2층 50평 방 5개 주방 및 삼존불
● 각단탱화 법당시설 살림살이
일체를 800만원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 역술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조건이 좋은곳임.
스님건강상 급하게

011-806-8467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산밑으로 마을과는 1km 떨어져 있으며 차가
마당까지 들어오며 수련원으로 이용하였으며
기도원이나 고시입시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1동 60평 (인법당, 방7개, 넓은 입식주방,
욕실, 화장실3개) 창고1동, 하우스1동,
심야전기 보일러, 지하 암반약수
● 답사 후 가격절충(전세나 매매)

010-6611-7749
(꼭 하실 스님 만 연락주세요.)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오행쑥뜸기/오행좌훈기/음양쑥뜸기(무릎관절용)

신개발품 출시기념 제품 구입시 쑥봉 1개월분 무료증정!

각종 통증 및 근육통 완화!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 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좌훈기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이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3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몸에 좋은것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쉽게할 수 없었던 전통한방쑥뜸 –

이제 누구나 쉽고 편하게 각종 통증 및 근육통 완화를 위해 쑥뜸을 하십시오. 연기는 100% 밖으로 배출하고 화상 걱정은 타이머의 장착으로 완전해결한 획기적인 특허품 –

오행쑥뜸기, 오행좌훈기, 음양쑥뜸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BM TRADA CERTIFICATION ISO 9001:2000 / UKAS QUALITY MANAGEMENT 012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521-4405

■ 제품구입 문의 : 02)525-6353

www.moxa4u.com 오행쑥뜸 · 좌훈기 · 음양쑥뜸기 02)521-6353~4

D.M.I 산업 의료용구제조허가제1682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초당 철학연구원

인생상담, 사주 신수, 궁합
전화상담
060-808-8463

해외포교사 지망생모집

자혜불교회 삼우스님은 미국/캐나다 주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함

- 자격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어기초실력이 있는자로 18세~40세 미만 남녀
- 문의 : 010-4619-8922, (시카고) 773-528-8685

숫자와 운명 개인지도

못사는 방법이 한가지라면 잘사는 방법은 10가지이다.
의 저서 직-강의
아울러 각 길 흉 事
(사: 개운 반운법 및 다수 등...)
대처 방편술(예방비법)도 함께 전이 합니다.
031)633-1517

신묘한 구성학

사주팔자 없이도 간단한 구궁 숫자만으로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구성학 및 신사주법을 지도함(출장지도 가능)
02)6232-4755
019-446-4755

승복전문 - 원동승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0-1
전화 : 일터 042)253-0525
자택 042)487-5556 정옥화 두손모음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단청 탱화

문하생 수시모집
(수산 전통 불교 미술원)
02)381-4433
010-3000-445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리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염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 성명학, 불교신행, 명리상담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접수
02)387-2302
016-9511-0840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관 성왕사 선원 (법인출원중)

불상탱화(급)모십니다 (인연주실분)

- 오존불중 : 석가, 약사, 지장, 산신탱화, 불단, 불기
- 우리 일만년 상고사와 현대불교
- 기+요가 = 선체조, 단전호흡, 참선, 행공, 원리 교육
- 기공,활법 : 턱,목, 어깨, 척추(허리통증), 짝다리, S등, 곡등, 탈골, 체형교정, 활법지도(자연치유)
- 사주, 이름, 풍수지리 광음파 인간작용관계 각 수시 법강

5월 5일 점안 개원

011-817-3387 / 02)835-2399
전철 2호선 신대방역 3번출구(한독병원옆) 7호선 신풍역 각 7,8분 소요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혀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기관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도를 실현코저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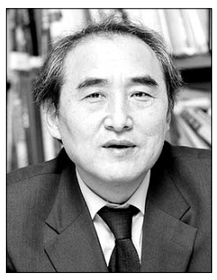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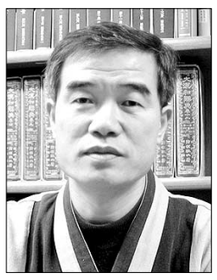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오늘의 혼돈은 문명전환의 기회”

본사 – 불교지식인연대 주최, ‘불교와 사회 토론광장’ 19일 열려


유헌식


김규칠


이찬훈

순탄치 않았던 역사적 경험 큰 자산
화쟁 · 불이사상 통해 혼돈을 질서로

한반도만큼 민족적 · 이념적 갈등과 현대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곳이 또 있을까. 냉전의 유물인 분단 상황을 반세기가 넘도록 극복하지 못한 채, 남과 북에서 각각 천민 자본주의와 봉건적 사회주의의 폐단이 만연해 있다. 실업문제 · 빈부차확대 · 생태계파괴 또한 심각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혼돈과 모호성이야말로 한반도가 문명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근거라는 희망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불교지식인연대(대표 김규칠)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의 공동 주최로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회 불교와 사회 토론광장’에서 문명비평가 유헌식 박사, 김규칠 국민대 객원교수(前 불교방송 사장), 이찬훈 인제대 교수 등은 오늘날을 문명전환기로 규정하며, “한국의 순탄치 않았던 역사적 경험들이 새로운 문명 출발의 자산이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논지를 전개한 이는 첫 번째 발표자였던 유헌식 박사다. 유 박사는 논문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과 문명 혁신의 전략’에서 존재론과 역사철학에 대한 탄탄한 식견을 토대로 문명 혁신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유 박사는 “문명 전환의 실마리는 중심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며, 또한 중심이며 주변인 구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같은 불확정적인 경계구역에서만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며 “경계구역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고 설명했다. 경계구역은 중심에서 볼 때 혼란스럽고 불안정해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것과 상호 소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하나, 혹 열등의식이나 국수주의의 발로는 아닐까. 유 박사는 “중심과 주변은 혁신의 주체로 활동할 여지가 적다는 것은 사실(史實)이다”고 반박하며 “불확정적인 경계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새로운 문명의 진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명 진원지가 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혼돈을 조화로 바꾸는 일. 유 박사는 혼돈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혼돈 속에 숨어 있는 질서와 조화를 읽어 ‘밖으로’ 드러내야 함을 강조했다. 즉, 평면적으로 볼 때는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변수를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조화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유 박사는 “입체적인 문제해결은 경계구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은 갈등과 대립, 무관심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며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화쟁사상을 ‘신호등 방식에서 지하도 방식으로의 전환’에 비유하며 “지상에서는 사람과 차량이 서로 욕구를 억제해야 자기 길을 갈 수 있지만 지하도를 이용하면 서로의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길을 갈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혼돈을 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상과 이에 기초한 제도를 확립한다면 혼돈의 땅 한반도는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고 유 박사는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찬훈 교수는 논문 ‘불이사상과 21세기 한반도’를 통해, 현대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한국에서 새 문명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민중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민족만큼 현대사회와 문명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세계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것.

이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력한 논리를 불이(不二)사상에서 찾았다. 불이사상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화해하고 공생하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불이사상이 공생의 원천적 사상이 됨은 주지의 사실. 불이사상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완벽한 사랑의 체험’을 제시했다. 사랑만이 나와 우주가 둘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 체험을 통해 삶의 방식을 불이적인 것으로 바꾸고 사회제도까지도 바꾼다면 현대문명의 모순은 타개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복합시대, 인간존엄의 사회철학적 기초’를 발표한 김규칠 국민대 객원교수는 “현대문명의 인간성 상실 위기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세계의 실상이 법과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됐다”고 진단하며, “복합성이 고려된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법 ·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객원교수는 “자본주의가 생명과 사회의 복합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직 경제적 인간의 입장에서 이익 일변도로만 치달았고, ‘나’는 타자에 대한 의존성에서 오는 복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자를 지배 대상으로만 간주해왔다”며 복합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통도사박물관대학

통도사성보박물관은 통도사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교문화교양분야와 전문가 양성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불교문화교양분야에서는 ‘통도사의 이해’를 주제로 춘계특설강좌가 마련되며,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매주 금요일 강의가 열린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전문가 양성분야에서는 불교회화과 · 조형서예과 · 불교다도과에서 강좌가 개설된다. 특히 불교회화과 단청반은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증 대비과정 성격을 띤다. 등록 마감은 4월 30일까지. (055)384-0010

中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중국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4월 13일자 보도에서 중국민속문화개발재단(China Foundation for Develop Culture)이 후원하는 중국문화유산회수프로그램(China Cultural Relics Recovery Program)이 전 세계 산재해 있는 중국유물을 광범위하게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프로그램은 1840년부터 1949년 사이에 유출된 유물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문화재는 47개국 200여개 박물관에 167만여 점이 소장돼 있다. 문화재보존 전문가 시췐쉥 씨는 “정신적 자산은 공유될 수 있지만 소유권은 공유될 수 없다”며 “문화재의 소유권은 중국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왕웨이밍 씨는 “이번 환수계획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우선 환수대상 유물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1>

죽음의 과학

교황이 선종을 맞이했다.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높여서 그렇게 이름 부르는 모양이다. 종교에 관계없이 세계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의 명복을 빌어야 할 것이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인상 깊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하라’고. 몇 달 전 열반하신 숭산 스님은 ‘만고 풍월’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원히 이어지는 깨달은 자의 행복한 경지를 시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리라.

죽음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은 수 만년 역사에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고독하고, 두렵고 외로우며, 생명에 대한 절실한 애착을 보인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잘 모른다. 단순한 이유, 즉 죽은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험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음이 신비하고 두려운 이유이다. 종교적 상상력은 죽음 후의 모습을 그려낸다.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윤회의 세계, 그리고 죽은 후의 완전 소멸의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왔다.

끊임없는 삶과 죽음 통해 존재하는 우주
나도 수많은 생명의 죽음으로 사는 존재

현대의 과학은 죽음을 세포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포분열을 유한하게 결정짓는 정보가 세포핵에 들어있는 DNA의 마지막 분자 고리인 텔로미어에 있다고 믿고 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포분열이 정지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개체가 죽어야만 생물계(아니 무생물계를 포함해서)가 지속하기에 알맞다는 진화가 만들어낸 오묘한 모습일 것이다.

대승경전의 사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반야심경>에서는 늙고 죽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늙고 죽음이 없으므로 해결해야 할 고민도 없어진다는 편리하기 짝이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획기적인 만큼 받아들이기도 힘든다. 과연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 생물의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직관이 주는 판단을 미루고 한발자국 더 나아가보자. 죽음이 없다기보다, ‘내’가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내’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전해 주는 가르침은 실로 눈으로 보여주는 실증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나(유한한 나)’라는 경향성을 극복한 부처님과 조사들이 보여주는 절대 자비의 모습은 눈부시다.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불교의 생사관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는, 아니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생명은 남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간단한 관찰이 자연의 아름다운 전체의 모습과 일치한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 때, 가만히 두려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둘 다 실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느낌이 부처님의 진리에 한발자국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를 믿어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TEL 02)732-1522
FAX 02)737-0697
●광고가격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기도하실 비구스님 및 스님이 되실분 모십니다
▷법비오는 곳 동해사 (강원 양양)
033)672-2900
011-402-1669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 비구니 상관 없습니다
▷분당 하얀마음선원
011-1706-6644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파 무관)
▷경주 보광사
054)744-4224
011-744-165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시
032)684-5516
011-9707-34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남서산 (조계종사찰)
041)662-3824
041)669-9896

물좋고 산세 우량한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처사님과 비구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031)582-9816

불상을 급히 구합니다
삼존불 후불탱화
저렴하게 보시할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0-7324-511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행자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조계종 사찰
031)682-3169

행자모심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 (정릉)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212-9810

공양주 행자 총무스님 모십니다
033)263-5904
011-370-5904

도량 재건의 밑거름이 되어주실 자원 봉사자와 화주보실님을 모십니다
033)672-2447~8
낙산사 종무소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성불사
011-591-8228

부전스님 모십니다
▷50~60세 사이
031)764-3399
011-779-449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천지역
011-781-3513

달마도(선묵화)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구합니다
▷속리산 달마선원
054)535-03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천시
054)336-1575
010-8560-157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50~60代) 내절처럼 운영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155-8127

창원 중심지역 불교용품점
●전세 500 월세 30만
●평수 12평 1층
●물품대 일체 3천만원 (절충가능)
055)265-7998
010-9662-7074

사찰안내
●위치 :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대지 : 150평, 전 : 430평
●전세 3000만원 양도가 8500만원
●위치 : 양산시, 포교당 35평
●보증금 1000만원 월 35만원
055)362-0199
010-7167-3499

포교당(급)안내
●위치: 대구 동대구역 옆
●건물: 방2, 사무실1, 지하(20평) 보일러난방 법당: 30평 (1층)
●특징: 동대구역에서 2분거리 (교통편리)
●가액: 보증금 7000만원 월15만원,시설비1300만원
011-829-9120

포교당(급)안내
●위치: 경북 청도군 각북면
●대지: 600평, 요사채(10평)
●건물: 30평(방3, 욕실, 주방) 2층 증축가능,심야전기
●특징: 대구에서 30분거리, 수양, 기도처로 최적지임 (식당영업권 허가지)
●가액: 2억1천만원(대출 7400만원)
010-4873-2071

일주문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4월 21~23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흥교 스님을 전계사로 10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입재는 10시 30분.



11번째 49재일 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029일 천도법회 11번째 49재일을 맞아 4월 25일 오전 9시 대적광전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법장스님 초청법회

서울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은 4월 17일 대적광전에서 열린 일요법회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백만불전 상량 및 주지 진산식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은 4월 24일 오후 1시 백만불전 상량식 및 주지 성원 스님 진산식을 거행한다. (043)421-4700



고성사 천불전 약사불 점안법회

칠곡 고성사 주지 고성 스님은 4월 10일 원효종 대구교구 종무원장 서응 스님을 증명법사로 천불전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개관 7주년 기념행사

강북장애인복지관장 명궁 스님은 관내 장애인과 그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5일 복지관 강당에서 개관 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청각장애인 돕기 일일찻집

부산농아인불자회 지도법사 도원 스님은 4월 24일 전통찻집 산머루(범어사 입구)에서 청각장애인 돕기 일일찻집을 연다.(011)9940-6455



연예인 초청 경로잔치

진주 여래사 주지 동봉 스님은 4월 22일 오후 3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제 11회 연예인 초청 시민 위안 경로잔치를 개최한다.(055)742-6070



박완일 법사 초청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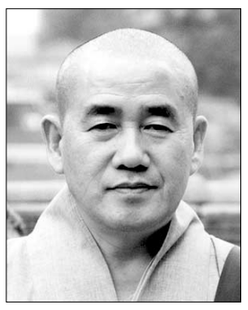
서울 오류동 용운사 주지 풍원 스님은 5월 1일 오후 2시 한국사회교육원장 박완일 법사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11)381-1102

화촉

불교신문 박인탁 기자는 4월 30일 낮 12시 대구 두산동 웨딩파라다이스 1층 로즈홀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신순회 총무주임과 화촉을 올린다.(02)733-1604

"인재양성 불사에 동참하세요"

千佛봉안 추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천불조성 불사에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준 사부대중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을 비롯한 승가대 구성원들은 대학발전과 후진양성에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앙승가대 총장에 재임된 종범 스님(사진)이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천불조성불사'에 돌입했다. 중앙승가대 천불조성불사는 총동문회 장이었던 원행 스님(안국사 주지)이 2001년 비구 수행관인 육화당과 비구니 수행관인 화경당 법당에 각각 500분의 원불을 봉안한 것이 시초. 그러나 이후 원불조성이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던 것을 종범 스님이 새롭게 원력을 세워 추진 중이다. 3월 28일 개운사에서 열린 서울경기제주권 동문모임을 시작으로 4월 25일(월정사)까지 권역별 총동문회(회장 정념)와 공동으로 '천불조성교육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의 열기가 예상 밖으로 뜨겁습니다. 동문들의 모교발전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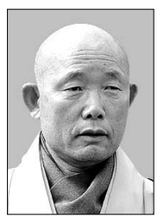
종범 스님이 추진 중인 이번 '천불조성불사'는 최근 동문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의 동참이 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불사의 중요성에 대한 불자들의 공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에서 다섯 비구를 교육하지 않았다면 삼보는 성립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불교도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조계종 유일의 종립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한국불교의 중흥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자장율사 정신계승 계율근본 도량 가꿀 터"

영축총림 통도사 율원장 혜남 스님



"율은 불교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를 최초로 정립하시고 계단을 처음 세운 자장율사의 지계 정신을 받드는 율원이 될 것입니다."

4월 11일 종단의 공식 인가를 받아 개원한 영축총림율원장 혜남 스님(사진)은 율을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율원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혜남 스님은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금강계단(金剛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통도사는 계율 근본도량이다"며 "율의 정신을 올곧게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속에서도 윤리적 타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때,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한 윤리의식을 일깨워나가는데 율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행동인 율을 근본삼고 실천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율사 배출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축총림율원은 2년 과정으로 습의 교육에 필요한 <사미율의> <사분율> <보살계> 우리나라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청규 등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해인사 송광사 율원 등과의 교류, 행자교육원, 비구계, 구족계산림 참석 등으로 율사로서의 위의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혜남 스님은 1963년 관룡사에 입산 후 67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다. 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전강을 시작으로 현재는 통도사 전계사를 맡아 청정계율 세우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천미희 기자

호남불교 화합 견인 '다짐'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이상진 회장



"호남불교는 잠에서 깨어나는 용에 비유됩니다. 곳곳에서 불법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제11대 광주전남 불교신도회장에 취임한 이상진 회장(광주불교방송 사장 · 사진)은 "광주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불교신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도교육과 화합을 기반으로 호남불교 중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취임 첫 사업으로 "신도회 사무국을 재정비해 전남지역 400여개의 신행단체를 결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샘물 같은 신심으로 화합하는 호남불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회장은 "2년 임기 동안 봉사하는 신도회, 포교에 진력하는 신도회,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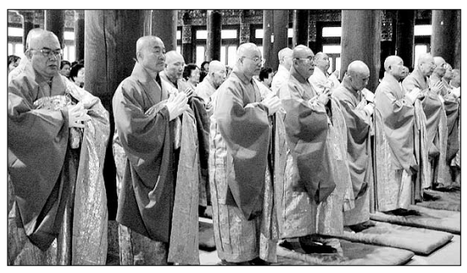
티베트불교 전파 대부 글렌 멀린씨 방한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티베트불교 전파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렌 멀린씨(사진)가 최근 내한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 부처님들(The Female Buddhas:2000)> 등 25권의 티베트 불교 관련 서적을 펴냈으며 '신비한 티베트의 예술(The Mystical art of Tibet)'이란 단체를 결성해, 티베트 불교 음악과 춤을 서양사회에 알리는데도 앞장서 왔다.

특히 달라이 라마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노력했다. 강유신 기자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13~15일 설법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13일 열린 입재식은 3천 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향찬, 예경삼보, 삼사칠증사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15일 회향식에서는 정도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등 58명에게 장학금 3170만원이 전달됐다.

대불어 신임 회장 지현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4월 9일 부산 여여선원 법당에서 새 회장 지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불어 총재 정관, 부총재 혜총, 前 회장 정여 스님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어린이 포교기금 마련 도예전을 연 설봉 스님은 2천만 원을 지현 스님에게 전달했다.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 신입생 환영법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는 4월 1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2005학년도 신입생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 포교국장 무관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 중 · 고등학생 파라미타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석조 회장은 "불법 안에서 함께 하자"고 말했다.

봉원사 원각회 장학금 수여식



22년여 간 교육불사를 해온 봉원사 원각회(회장 노대행심) 장학금 수여식이 4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염불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대현동 일대 중고등학생 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법사 일운 스님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만큼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운불련 불교기 달기 운동



경주 개인택시운전불자연합회(이하 경주 운불련)는 4월 10일 경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불교기 달기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경주 운불련은 불국사의 지원을 받아 불교기 1천장을 제작,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순권 운불련 회장은 "연중 불교기 달기 운동을 실시해 불교기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완결편-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공주대학교 식물의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외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묘목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불자 세상보기

윤 범 모
미술평론가 · 경원대 미술대 교수

'감투'들이여 연꽃을 보라

산불 날 때 골프를 치면 더 재미있다? 짜릿한 맛, 그대들이 이런 묘미를 알 수 있겠는가. 산불 속에서 공치는 맛, 그것참 흥미진진하겠다? 잠깐,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다. 산불 날 때 아무나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뭐 감투가 국무총리정도는 되어야 한다. 산불 같은 재난 발생시 총괄 지휘할 책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그래야 산불 날 때 골프 치는 맛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식목일에 산불이 났다. 심은 나무보다 불에 타 죽은 나무가 더 많다. 식목일은 무엇 하러 만들었는가. 그것도 공휴일로 삼아, 괜한 등산객들 산으로 보내 화재 위험을 가중시켜 가면서 말이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산불이나 내지 말라. 담배 들고 산에 가지를 말고 차라리 골프장에 가라. 이해찬 총리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았는가. 재난상황을 점검하거나 복구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기보다 당장의 골프 채 휘두르는 맛에 탐닉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총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이에 강원도 산불은 다시 살아났다. 그 결과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골프만 없어도, 사전 점검만 충실히 했어도, 낙산사는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문제이다. 책임의식이 문제이다.

낙산사 화재현장을 보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말했다. 전소한 건물들은 6 · 25전쟁 이후의 것이라고. 소실된 범종은 6개월 이내에 복원 가능하다고. 아니 한번 불에 타 녹아내린 종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겉모양도 그렇지만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의 출세작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낙산사의 문화재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기술한 전력과 맞게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문화재청장이 무엇보다 추진해야할 일은 문화유산보호 대책의 수립이다. 전국의 사찰, 과연 화재로부터 자유스러운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범종 복원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나는 주장하고 싶다. 낙산사 화재의 현장을 보존하라고. 교토의 불에 탄 법륭사 목탑이 보존되고 있듯이 우리도 타다 남은 잔해를 보존하여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건 또 무엇인가. 한국마사회는 뇌물사건으로 시끄럽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많더니 끝내 뇌물잔치로 얼룩이 졌다. 하기야 한 해에 매출 5조원이 넘는 마사회라니 뇌물 '몇 푼' 챙기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우리 서민은 언제 간고등어 상자나 곶감 상자를 받아 볼 것인가. 그 상자 속에 토산물 대신 거금이 들어 있단다. 공기업 비리의 경연장 같다. 하기야 마사회뿐이겠는가. 오늘도 어떤 공직의 나리께서 은밀히 '상자'를 건네받고 있을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 밑천 챙기지 않으면 바보라도 되는가. 공직자의 윤리가 문제이다.

한국은 예전부터 '뇌물천국'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근래 비리에 연루되어 4명의 장관이 낙마를 했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청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물단지가 되어 더 난리들이다. 전직 대통령들 역시 검은 돈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 땅은 검은 돈의 천국인가. 하기야 아직도 '차떼기 정당'이 큰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되지만. 뇌물을 받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만 괜히 바보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철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정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당부한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오늘도 '감투'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감투'들이여, 진흙탕에서도 청초하게 사는 연꽃 한 송이씩을 가슴 속 깊이 품고 다닐지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자정' 일회성이어선 안된다

무소유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출가인들의 공동체인 승단이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오욕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덕이는 일들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수없이 불교를 멍들게 한 부끄러운 사건들을 겪고서도, 한국불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아온 것은 아닌가? 이번에 불국사와 화엄사 등으로부터 들려온 부끄러운 이야기에 또 한번 갈가리 찢겨져버린 불자들의 가슴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주요 불교계 단체들의 엄한 요구가 담긴 성명이 발표됐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이번 기회에 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니 일단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참회와 시정 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간의 조치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하기에 이번의 자정을 위한 조치들도 표면만 봉합하는 고식책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노력과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숙해진 불자들의 의식이 등을 돌릴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의 재정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면 지금의 승단 구조상 말 그대로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 제도가 현재 승단이 지니고 있는 문중과 인맥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정성과 엄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두가지 과제에 조계종단은 당면한 것이다.

우선 이번에 드러난 사안의 처리부터, 모든 불자들이 엄정성과 공정성을 인정하도록 투명히 처리함으로써 확고한 자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부대중이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출가승단은 재정운용의 지향점을 제시 · 감독하고 실제 운용은 재가불자들이 맡는 방식도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언제나 뚫릴 수 있는 외양간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부서진 곳만 손질하곤, 외양간 잘 고쳤는데 또 소를 잃었다고 변명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은둔형 외톨이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한 집에 살면서도 즐거울 때 같이 즐겁지 못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그들이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 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10만이 넘는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은 채 살고 있다. 친구나 가족간의 대화 없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 몰두하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부산에서 방안에서만 지내던 10대 소녀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이나, 4월 13일 방영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 소개된 7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한 20대 남자의 이야기는 '은둔형 외톨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는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확산 등 사회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위의 무관심과 가정 붕괴, 부모의 폭행, 학교에서의 왕따, 컴퓨터 중독 등의 이유로 스스로를 자신이 만든 성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은둔형 외톨이'는 특정인이 겪는 '질병'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 여수령(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대불련 미래 안보나?

작금의 대불련 사정이 안타깝다. 지방도시의 현실은 서울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도간사? 없다. 지역 스님들? 전혀 관심 없다. 대불련이 지역 스님들께 인사간다고 연락하면 모두 숨는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본다.

예전에 지역 4개 대학에 대불련 지회가, 연합으로 고등부가 있었는데, 5년 전쯤 고등부가 사라지더니, 3년 전엔 대불련 지회가 2개로 줄었다. 아마 내년쯤엔 한 개나 남아 있으려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졸업한 선배들의 대불련에 대한 조그만 열정뿐이다. 대불련 생활 수년간 하면서 조그만 포교용 책자 하나, 제대로 된 포스터(대학생 눈높이에 맞춘)하나 받아보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다.

이곳 도시의 작은 절 주지스님도 고급 승용차를 탄다. 포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에도 자주들 나가는 것 같다. 이게 현실이다.

아마 5년 쯤 뒤엔 대불련은 없을 것이다. 7년쯤 뒤엔 청년회가 그럴지 모른다. 그 다음엔 사찰이 한두 개씩 문 닫을 지도 모른다. 신도가 없으니 환속하는 스님도 많아질 것이다. 곧 닥칠 현실이다. 대부분 스님들은 몇 년 뒤 닥쳐올 현실을 아무도 관심갖지 않는다. 아니 외면하는가?

지방도시불자(붓다뉴스)

인사동에 한국 불상 없다니

인사동에는 불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불교용품과 전통용품들이 있다. 현대불교 521호에 실린 인사동에는 한국불상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며 놀랍기 그지없었다. 당연히 한국불상이고 한국불교용품이라고 생각한 그 많은 불상들이 싼 가격에 수입된 중국과 동남아 불상이라는 것에 아찔할 정도였다.

인사동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을 알고자 그 문화를 접하고자 독특한 전통문화를 담은 불상을 소품으로 사가지고 갔는데 중국여행에서 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문화는 중국의 아류쯤으로 취급당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양질의 불상을 만들어도 가격이 비싸 상점에서 사가지 않는다는데 할 말이 없다. 언제나 우리 쌀 지키기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 한복판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집약했다 볼 수 있는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한국의 전통은 없다는 것이 분한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육성시키는 길은 저질상품을 몰아내는 길에 있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바로 잡을 길을 빨리 찾았으면 한다. 더 이상 외국의 전통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로 둔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정희(서울 강서구 화곡동)

올해는 자비의 손길 내밀었으면

4월 초파일이 다가오면 항상 다니고 있는 절에 가족 연등을 달아둔다. 마음을 모아 식구들의 이름이 모두 적힌 등에다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불교신문을 보니 내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등을 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를 진행한다고 했다. 올해 봉축 표어인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에 걸맞는 등 밝히기라고 보여진다.

나도 올해는 내 가족만을 위한 등 달기에서 내 이웃을 위한 연등 달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 불자라고는 해도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한 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등을 달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는 지금 더욱 부끄럽게 다가온다.

불교의 기본이 '자비'이다. 그러니만큼 자비의 실천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인 등 달기를 이젠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달아보려고 한다.

김인숙(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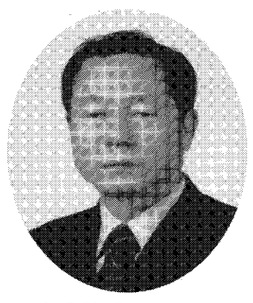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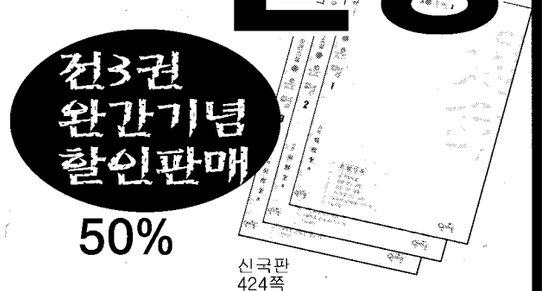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Btn 불교TV

부처님 오신날

불교TV와 함께...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 하여
불교TV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 법정스님 특별법문
- 다큐멘터리 틱낫한 스님의 귀향
  – 망명 38년, 고국과 화해한 아주 특별한 여정
- 틱낫한 스님의 베트남 현지 법문
- 다큐멘터리 숭산스님의 포교여정
- 시청앞 연등음악제
- 생방송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 특집생방송 연등축제

문 의 : 02 – 3270 – 3451

▶ 2005. 5. 15

2549

Buddha's Birthday

자비의 가위손 사랑 다듬어요



향기 도반의

무료 이발봉사 25년

조병헌



조병헌 씨가 은평재활원에 있는 뇌성마비환자 철규(12)의 머리를 깎아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머리가 빨리빨리 자라야 아빠한테 또 머리 깎아 달라고 할텐데, 이번 달엔 머리가 늦게 자라는 것 같아 속상해. 빨리 아빠가 와서 내 머리 예쁘게 깎아주면 좋겠는데…."

"조거사 보시오. 25년째 장수노인정을 찾아와 이렇게 무료로 이발해주니 그 고마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그래서 우리 노인정 식구들이 한두 푼 모은 돈으로 1박2일 조거사와 함께 설악산 단풍놀이를 가기로 했다오. 그동안 애쓴 조거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이니 부디 사양 말고 꼭 함께 갔으면 하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걸린 한명수씨(38)가 또박또박 정성껏 눌러쓴 일기장, 북가좌동 장수노인정의 최창식(87) 할아버지가 보내 온 감사 편지. 누구를 생각하고 쓴 것일까. 주인공은 바로 소외받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의 '가위손'으로 25년 간 무료 이발봉사를 하고 있는 이발사 조병헌씨(57)다.

조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은평천사원, 은평재활원, 벽제 희망맹아원, 장수노인정 등을 찾아가 무료 이발 봉사를 하고 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체장애인들과 뇌성마비 환자들의 머리를 깎아 줄때면 몸을 심하게 흔들어대 그의 왼손은 가위로 베인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이발 참 잘됐다"는 감사의 말 한마디에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조씨.

조씨가 무료 이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가난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느라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해보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것에 한이 맺혀서다.

"1981년도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난 그 해 제가 운영하는 홍제동이발소 근처에 노인정이 생겼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 돌아온 듯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부모님이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머리를 깎아드리며 못다 한 효도를 대신했습니다."

25년 간 무료 이발 봉사를 하다보니 웃지 못 할 얘깃거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년 간 친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게 보살펴주며 이발을 시켜줘 지금은 조씨를 진짜 친 아빠로 알고 조씨가 아니면 한사코 이발을 하지 않는 은평재활원의 뇌성마비환자 권영태씨(23).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조씨의 상냥한 목소리와 고운 마음씨를 통해 도화지에 그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하기도한 벽제 희망맹아원의 이필수씨(53). 은평재활원의 뇌성마비환자 시인 김소아씨(36)는 조씨를 알게 되면서부터 삶 자체가 바뀌었다.

"제가 11살 때부터 조병헌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깎아주셨죠.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고 비관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제게 조 선생님은 큰 선물을 줬어요. 바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詩)를 쓰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죠."라며 조씨를 그리며 쓴 시 '종이학'을 낭송한다. "종이학의 꿈이/ 살포시 파란빛으로 다가와/ 내 마음에 물들면/ 종이학의 꿈이 물들 듯/ 내 꿈도 하나 가득 물든다"

20년 넘게 조병헌씨를 지켜 본 은평재활원 고재권 국장은 "냄새나는 남의 머리 자르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요즘 무늬만 자원봉사 한답시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병헌 선생님은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기폭제 역할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뭔지를 일깨워준 이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입니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이발봉사가 늘 즐겁고 평탄치만은 않았다. 평소 조씨가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보살폈던 무의탁어르신인 故 조동섭 할아버지의 입원비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친 아버지도 아닌데 왜 자네가 병원비를 마련해야하나.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냉대했다. 이런 그들의 말이 '정말 옳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자 이제 그만 이발 봉사를 포기할까라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수록 "아빠 보고 싶었어. 다음에 또 꼭 와야해" "자네 얼만치 고생이 많은가. 밥 꼭 챙겨 묵고 다니그래이"라며 자신을 사랑해 주는 뇌성마비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중간에 가위를 놓을 수 없었다.

"예닐곱 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고향 홍성에 있는 재계산 암자와 오소산 증암사를 찾아 어머니를 따라 절도하고 스님이 하는 염불도 중얼중얼 흉내냈던 일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침저녁으로 <천수경>을 봉독하셨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참회의 마음 ,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의 <천수경>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 25년간 휴일 반납하며
> 아이 · 어른들께 이발봉사
> 남이 알아주는건 중요치 않아…
> 도움 줄 수 있어 기쁠뿐
> 사회복지사 과정 공부
> 무의탁노인들 돌볼 시설 설립 꿈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신이 가진 이발 기술로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한없이 기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감사하다는 조씨. 이제 그는 40년 간 피땀으로 일구어 낸 이발소를 닫고 노인전문사회복지사라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올 3월부터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사회복지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인복지분야는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최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무의탁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최고로 편안하게 느끼고 쉴 수 있는 노인전문복지관을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가위를 잡았던 그 손, 타인을 위해 가위를 잡아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 이런 조씨의 손에 얽힌 사연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손을 가리켜 '자비의 가위손'이라 부른다. 곱고 반듯한 손보다 조씨의 손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람과 삶을 사랑하는 그의 보살행 때문이 아닐까.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5월 8일 종로는 연꽃

시청앞 점등식과 연등 음악회

• 일시 : 2005년 4월 22일(금) 오후 7시
• 장소 : 시청앞 서울광장
• 주최 :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 후원 : 서울특별시
• 출연 : 캔, 장사익, 김덕수, 신효범, 김현성

www.연등축제.kr



나의 수행법

김오복 (上)



불혹을 훨씬 넘긴 50대의 여인이 된 나는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 부모와 친지들은 한두 분씩 내 곁을 잇따라 떠났고, 그럴 때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다가왔다. 여기에 외로움이 갑자기 물밀듯이 찾아왔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른 나만을 위한 텅 빈 마음을 무작정 채우려고만 했다. 우울증과 혈압 상승도 나를 옭아맸다. 그만큼 내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갔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나는 부처님을 마음의 도피처로 삼았다. 생활이 힘들어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날마다 조그만 사찰에 나가서 공양간 설거지를 돕고 법당 청소, 화장실 청소를 했다. 막연한 기대감에 부처님께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들려오는 <천수경> 소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서 독경했다.

'도량청청 무하예 삼보천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진언 원사자 비밀가호'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힘들고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내 모습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지나갔다.

이후 난 마음의 갈등과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좋다는 수행법은 다 찾아다니며 배웠다. 선지식들의 책도 수없이 읽어보았다. 하지만 '그때 뿐'이였다. 이해는 안 되고 낯 설은 글귀들만 많았다.

자성불(自性佛)은 찾지 못하고 3년 동안 밖으로만 찾아다닌 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안타깝다. 속담에 업은 아이 3년을 찾은 격이 되었다고 할까.

그러던 중, 한 스님에게 '산 부처부터 챙기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그 때부터 절에 가는 횟수를 점차 줄여 나갔다.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지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절에 계신 부처님은 그만 돌보고, 집에 '산 부처님'이 넷이나 되는데 남편, 아들이라는 '산 부처님'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난 그 이후로 내가 처한 상황에 당당히 맞서가면서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마음속에 담아 둔 부처님의 형상은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처님을 붓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젊었을 때, 수묵화를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아끼는 부처님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뵐 때마다 부처님께 당신을 그리게 해달라고 원력을 모았다.

우울증 시달리다 부처님께 의지
"당신을 제 손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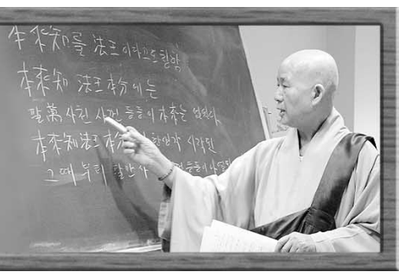
난 오직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 '부처님! 당신을 제 손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평온하고 포근한 모습을 내 손으로 그려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곧바로 서울 동산불교대학 미술반에 등록했다. 본격적인 사불수행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불수행은 만만치 않았다. 단순히 부처님을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만 사경을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관법과 호흡을 무시하고 그림이 좋아서 그려보고 싶은 충동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손만 놀리는 그림 그리기에만 전념하려 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 게다가 하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젊은 사람보다 손도 느리고 서툴러 번뇌만 일어났다. 부처님의 평온한 모습을 담고자 시작한 일인데 번뇌라니. 걱정이 밀려들었다. (계속)

■ 주부

■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선문촬요' 공부

궤도를 벗어난 기차는 아무리 타고 있어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면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참선수행자들에게도 기차의 철로(鐵路) 역할을 하는 안내서가 있다. 바로 한국 선종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 스님이 우리나라와 중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과 논에서 가려 뽑은 <선문촬요(禪門撮要)>가 그것이다.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이 3년째 <선문촬요>를 교재로 법문과 참선을 병행하는 공부 모임 '화요 선문촬요반' (회장 녹산화)을 이끌고 있다. 4월12일, 그 현장을 찾았다.



본래면목 찾는 길 열어줍니다

오후 1시 30분. 정관 스님 집전으로 <천수경> 독송이 끝나자 곧바로 '<선문촬요> 강(講)'이 시작됐다. 이날 공부한 내용은 사행론(四行論)의 '규역내외별상문(規域內外別相門)'.

"도를 닦는 마음을 장대(壯大)하게 하고자 할진대, 마음이 규역(規域:정해진 영역) 밖에 있음을 알지니라. 묻되 '무슨 일들이 규역 밖이 됩니까?' 답하시되 '대소승의 견해를 바로잡지 아니하며, 보리심을 발하지 아니하며, 내지 일체중생의 지혜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정(定)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사람이 욕심에 탐착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내지 부처님의 지혜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자연히 한가롭고 고요하리라."

"우리는 보통 보리심을 발하라, 참선을 하라, 계를 지켜라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발하지도 말고, 지혜를 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원치 아니하면 그 마음이 자연히 한가롭고 고요하리라 했는데 이 말은 너무 격외(格外)의 말씀이어서 한편으로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달리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본래지(本來知) 본분에는 팔만사천 사건 등이 본래 없었고 본래지에서 한 생각 시작된 그때부터 팔만사천 사건 등이 나열됐습니다. 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 그때부터 보살이다 부처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하는 생각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도, 중생이 되겠다는 생각도, 선(善)이다는 생각도, 악(惡)이다는 생각도, 지옥이다, 극락이다 하는 생각도 우리들이 스스로 지어낸 생각이지 본래지는 항상 텅빈 공(空)이라는 말입니다."

스님은 "왜 마음을 비워라 하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라고 물은 뒤 칠판에 필기를 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 없고, 마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은 모든 생각에서 텅 빈 자기 공(空)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공으로 돌아가 본래지를 알게 되면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옥의 주인도 본래지 자유임을 알고 나면 지옥도 마음의 거품이고 껍데기일 뿐이니 지옥이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도 마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형상이나 껍데기에 속지 마라, 관념에 속지 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재가불자들이 4월12일 부산 영주암에서 정관 스님의 <선문촬요> 강의를 듣고 있다.

한시간 법문 끝나면 참선 이어져
발심 간절해져 공부에 큰 도움

관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 자기가 말려들고, 자기가 겁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일이 열반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 수행의 요체입니다."

스님의 '<선문촬요> 강'이 이어지는 동안 40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기록해가며 집중하고 있었다. 스님이 질문하면 답하고 때론 스님의 비유에 웃음 지어가며 본래지에 대한 이해가 절로 깊어지고 있었다. 법문이 끝나고 참선이 시작됐다.

딱! 딱! 딱! 죽비 삼성(三聲). 죽비 소리가 끊어지자 정적이 감돌았다. 들이 쉬고 내쉬는 호흡지간에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일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지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본래지'를 증득하겠다는 발심으로 '화요 선문촬요반'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경전공부, 불교대학을 마치고 참선공부를 이어온 구참자들이 대부분이다. 영주암에서 30년 전부터 이어온 일요 참선반에서 공부를 계속해온 이들도 있다.

길게는 십수 년 짧게는 이제 막 참선 길에 들어선 이들도 있지만 <선문촬요> 공부가 '막연하게 앉아만 있던 공부에서 본래 마음을 찾겠다는 발심을 간절하게 해 준다'고 입을 모았다.

부부이면서 도반으로 선문촬요를 공부해 온 녹산 거사(63)와 녹산화(61) 보살은 "처음엔 막연했던 공부가 지금은 일상생활 중에도 '나의 본래 면목이 뭔가'하는 참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얻었다"며 "하루 9시간 이상을 정진하시는 정관 스님을 표상으로 부단한 정진을 다짐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 <선문촬요> 공부를 시작한 보현행(48) 보살은 "경전공부도 하고 교리도 배우다 보니 뭔가 부족함을 느꼈고 본래면목을 찾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돼 참선을 시작하게 됐다"며 <선문촬요>가 뚜렷한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글 · 사진=천미희 기자

■ 정관 스님이 말하는 '선문촬요'의 핵심

"변화 바로보는 삶의 지혜 얻을 수 있어"

"선(禪)의 요지를 밝혀 놓은 책입니다. 그럼 선이 뭐냐? 선은 마음입니다. 선은 마음 건강의 극치요, 마음 평화의 극치요, 마음 지혜로움의 극치입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살벌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선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가 제도하는 참선의 길만이 모든 중생이 나아갈 길입니다."

정관 스님이 30년 전부터 참선 모임을 지도하고 또 3년 전부터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선문촬요> 법문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선의 씨앗을 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정관 스님이 말하는 <선문촬요>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지존(至尊)이고, 마음을 섬겨야 한다'는 내용뿐이며 수천의 스님들이 하신 법문도 다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문촬요> 강의를 하면서 스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발심'의 중요성이다.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여서 그 에너지를 발심으로 모아야 지혜가 되고 그 마음이 인류 평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발심의 요지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변화'를 바로 보는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를 알고 싶다'는 의문과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 의문이 바로 발심"이라고 정리한 스님은 "의심이 없는 화두보다는 염불수행을 통한 의문 발로도 공부에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스님은 "그 의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불교이며 참선의 실체"라며 "천사람 만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제도가 더 큰 공양임을 자각해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선문촬요'는

경허(鏡虛) 스님이 엮은 책으로 참선(禪)을 하는 집안(門)의 핵심(要)을 모아(撮) 놓은 책. 상권에는 중국 고승이 지은 13편의 명제가 수록돼 있다. 하권에는 보조국사의 <수심결(修心訣)> <진심직설(眞心直說)>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등 수행자를 위한 저술을 비롯하여 천책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상 · 중 · 하 3권으로 돼 있다.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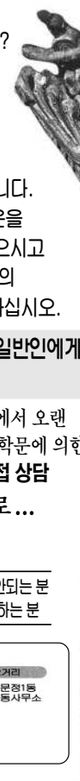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②

사경(寫經) 수행

'사경은 수행이 아니다.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는 서예다.' 재가불자들에게 자주 듣는 사경에 대한 오해들이다. 그럼 이 같은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다'다.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옮겨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시 장애가 빨리 오는 초심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부처님 말씀 한 자 한 획을 쓰면서 불심(佛心)을 수행자의 마음에 새기는 사경(寫經)수행. 그 수행법의 요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사경수행자 송명숙(49 · 서울 상월곡동), 이강희(52 · 서울 개포동) 씨가 4월 11일 사경수행 전문가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을 만나 물었다.



송명숙(왼쪽), 이강희(오른쪽) 씨가 4월 11일 서울 연희서예 사무실에서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에게 <반야심경> 사경을 지도받고 있다.

붓끝에 마음 모아 천천히

사경은 힘들다(?)

수첩까지 준비했다. 깨알 같이 적은 질문들에서 이강희씨의 사경수행에 대한 열정이 묻어난다. 간경 수행을 하다 2년 전부터 사경을 시작한 이씨. 수첩을 뒤적이다 첫 질문을 던진다.

"초보자들이 처음 사경을 해보면 어렵다고 말해요. 사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엄경> 같이 긴 분량의 경전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사실 '불(佛)'자 하나만 갖고 계속 써가는 '일자불(一字佛)' 사경도 있지요. 초보자는 짧은 다라니나 게송, <반야심경> 등을 사경하면 돼요. 사경은 얼마만큼 하는가보다 얼마나 깊이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인펜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붓 사경과 차이점이 있나요?"

"사경은 느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펜 사경은 속도가 빨라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반면 붓 사경은 붓을 올곧게 세우면서 마음을 붓끝에 모을 수 있어 마음공부에 도움이 더 돼요. 되도록 붓으로 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사경수행을 권하는데 열심인 이씨. 사실 이씨는 2년 전만 해도 붓 쥐는 법조차 몰랐다. 사경할 경전의 분량만 봐도 '다 쓸 수 있을까, 괜시리 사경을 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할까' 하고 후회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이 끝나자 이씨의 표정이 이내 밝아진다. 속이 후련하다는 눈치다.

부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올해 초부터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매일 다섯 장씩 사경하고 있는 송씨가 질문 순서를 받는다. 곧바로 4년간 사경을 하면서 겪은 장애와 극복방법을 묻는다.

"사경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태함을 경험해요. '내가 왜 써야하는지' 의문까지 들거든요."

"모든 수행은 '현재'에 충실해야 해요. 사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사경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편함만을 추구하려는 마장이 사그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재발심을 통해 초발심을 계속 상기시켜야 해요. 사경수행의 핵심은 경전 구절을 쓰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말씀이 확연히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번에는 이씨가 묻는다. "사경은 무념무아 상태에서 쓰는 글자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번뇌 망상 속에서 사경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도 공덕이나 수행이 돼나요?"

"사경 그 자체가 공덕이에요. 또 그 공덕은 수행의 밑받침이 돼요. 때문에 번민 속에 싸여 사경을 하더라도 공덕이 돼요. 중요한 건,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사경의 목적을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수행의 결과 시각물로 남아

질문은 사경수행의 장점과 다른 수행법으로까지 이어진다. 송씨가 먼저 '사경수행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꺼내놓는다.

"사경은 간경 염불참선 등의 수행법과 달리 수행의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남는다는 점이에요. 순간순간 가졌던 마음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사경 전후의 마음자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요."

"그럼 사경이 다른 수행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간경(看經)수행과 비교해보죠. 간경은 눈과 입으로 경전을 읽는 수행법이지요. 반면 사경은 육근(六根)으로 수행을 해요. 눈으로 보고 코로 호흡하며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는 수행법이기 때문이죠."

"어떤 자기변화를 가져오나요?"

"산란심이 없어지고 일심이 될 뿐만 아니라 경구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어 정신의 안정에 도움이 돼요."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사경수행 포인트

사경수행만이 가지는 특징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 점 한 획을 써가는 과정에서 수행자가 스스로 마음자리를 즉각적으로 확인 ·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들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말끔히 거둬내기 때문이다.

특히 한 자 쓰고 한번 절하는 '1자 1배(一字一拜)' 정신이 사경수행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서예적인 기교는 필요치 않지만 90°로 붓을 잡고 허리는 곧추 세우는 것이 좋다.

사경수행은 붓이나 볼펜, 종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 가령 가정에서는 삼귀의→사경 발원→입정→사경→사경봉독→사경 회향문→불전 3배→사홍서원 등으로 사경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사경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가 할 수있는 만큼의 일정한 '분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경수행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대구 보현사, 서울 능인선원 사경원, 직지사 · 통도사 사경반, 동국대 · 연세대 사회교육원 등 전국에 10여 곳 정도가 있다.

▮사경수행 지도하는 김경호 회장은



김경호 회장(사진 · 42)은 5년 전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고문으로 위촉, 불교계 처음으로 '한국사경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한국불교계에 사경수행 붐을 조성한 주인공. 지금까지 사경 관련 대중강연만 30여회를 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2002년 동국대에서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사경수행의 대중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신라 및 고려시대에 제작된 사경작품을 재현한다는 원력으로 26년간 한 길을 걸어온 김 회장은 현재대구 보현사, 동국대 · 연세대 사회교육원 등에서 재가불자들에게 사경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02)335-218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4> 조주 스님 "노승도 부처님이 아닙니다"

요즘도 가끔 그 다완이 생각난다. 어느 스님이 부랴부랴 떠나면서 방의 뒷정리를 부탁하길래 청소를 하다가 잡동사니 뭉치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나뒹굴고 있는 다완을 발견했다. 마침 약사발이 하나 여벌로 필요했던지라 '잘됐다' 하고 챙겨두었다. 그 다완을 야무지게 씻었다. 햇볕에 말린다고 내놓고 보니 두툼한 두께에서 오는 넉넉한 촉감과 수더분한 빛깔이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제대로 만들어진 찻사발이었다. 오랫동안 여러 용도로 번갈아 쓰며 내 손때도 탈만치 탄 어느 날이었다.

동창이 오랜만에 내 처소에 들렀다. 벽장문을 열면서 다구를 꺼내는데, 홀로 따로 놓여있는 그 다완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서 만지작거리더니 달라고 했다.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속가친구에게, 출가자가 되어 이까짓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색한 상황이 잠깐 연출되었다. 한순간에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지만 명분에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 가져 가거라. 나도 주운 것이니(空手來 空手去로다)."



얼마 후 그 동창은 그 다완 대신에 이름깨나 떨치고 있는 인간문화재 도공이 만든 막사발 한 개를 인편을 통해 보내왔다. 그런데 숱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리 손때를 묻혀도 그 떠나버린 다완의 정서까지 대신해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말 잘하는 조주 스님 같았으면 달라는 지팡이를 안 빼앗기고도 잘 얼버무려 위기를 넘기고서 기분 나쁘지 않게 친구를 돌려보낼 수 있었을 텐데….

조주 선사에게 어떤 선비가 찾아왔다. 그런데 스님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매우 좋아보였던 모양이다. 그 지팡이를 가만히 곁눈질하면서 물었다.

"부처님은 중생이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당연히 교과서대로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당연히 복선(伏線)을 깔고 있다. 선비는 '옳거니! 걸려 들었다' 쾌재를 부르며 다시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제가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를 어쩌나. 산길 다닐 때 지팡이는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나무의 질도 질이거니와 누가 봐도 탐을 낼만큼 잘 생겼다. 게다가 손때가 반질반질 묻어 정(情)도 들만큼 들었다.

선사의 가풍대로 '여기 있소! 가지시오" 해버리면 폼은 나겠지만 내심은 그게 아니다. 아끼는 까닭에 주기가 싫었던 것이다.

말을 가장 잘하는 선사로는 조주 스님을 으뜸으로 친다. 그래서 조주선(趙州禪)을 다른 말로 구피선(口皮禪)이라고도 부른다. 구피(口皮)란 입술을 말한다. 이는 말만 뻔지르하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한 어른이라는

자기는 군자가 아니라며 자존심까지 버리고 지팡이 달라는 선비에게 "나도 부처님 아니야"

뜻이다. 물론 임기응변에도 뛰어났다. 당신의 인색한 부분도 숨기면서 지팡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른 공을 선비에게 넘겼다.

"군자는 남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지 않는 법입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조주 선사를 '부처님'이라고 후려치는 선비에게 공맹(孔孟)의 도리로 응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선비의 말이 또 가관이다.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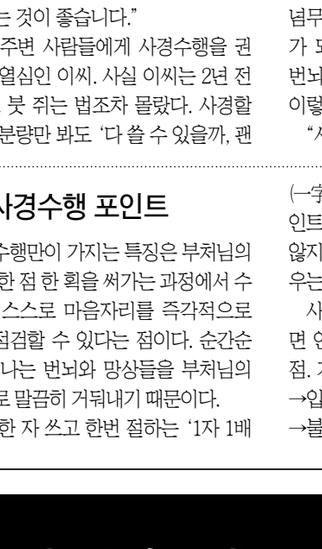
무슨 수를 쓰든지 지팡이를 얻어가려는 심사로 유생의 자존심까지 다 팽개쳐 버렸다. 그렇다고 이 말에 져 줄 조주 스님이 아니다.

"노승도 부처님이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를 두고 행세깨나 하는 선비와 이름깨나 날리는 스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한편으론 어린애들 같아 정겨웁기까지 하다.

그나저나 말 잘하는 주인을 만나지 못해 마을로 나가버린 그 다완은 잘 있는지 모르겠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까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감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996-6156 051)817-6156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세상사 풀기 어려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당신의 전생은 카르마를 알 수만
있으면 풀수없는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생을 읽는 여자 박진여씨가
그 해답을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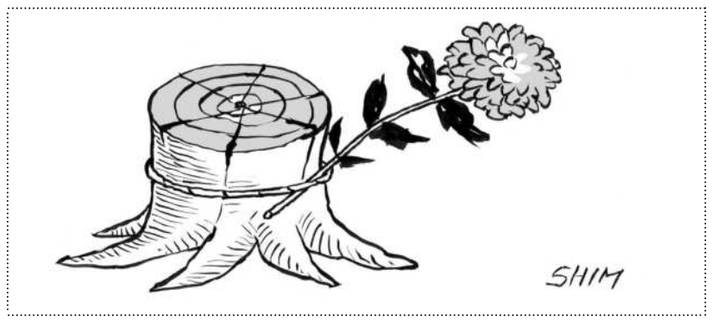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쉬어 가는 이야기

폐허 그대로 두고 새 가람 지으면 어떨까



기이한 일입니다. 원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전날 한 작업을 편집부에 보내고, 몇 군데 손을 보려고 오늘 아침 파일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초안 시작할 때의 것이 화면에 뜨는 것이 아닙니까. 이 황당한 사고를 어쩌노 하다가, 원고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낙산사가 불타다니

전날 밤의 취지를 기억을 더듬어 다시 '복원'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는 '새로' 쓰는 것이 쓰기도 흔쾌하고, 또 읽기도 부담없습니다.

기이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호 연재가 '원효가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만난 이야기'인데, 원고를 송부한 다음날, 동해를 덮은 큰 화재로 낙산사가, 저런,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관음굴(觀音窟), 즉 홍련암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나마 안도했습니다.

이 비극에 그러나,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문화재청이 중건 불사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대거 몰릴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전화위복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낙산사와 동종을 '복원'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창조'의 컨셉으로 접근하기를 권합니다. 폐허를 폐허대로 두고, 동종은 또 녹은 대로 두고, 거기 새로운 가람과 전혀 다른 종을 달아매는 것이 어떨른지요.

어제 저녁 논설위원 모임에 참가하신 윤범모 교수님도, 일본의 호오류우지(法隆寺)가 어느 조사원의 실수로 불탔는데, 그 불탄 흔적을 한 켠에 그대로 모셔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폐허가 인간을 가르칩니다. 특히 불교는 그렇습니다.

삶의 무상과 유위(有爲)의 허망함을 일깨우기 위해, 갠지스 강가에서 죽은 시체와 더불어 지내는 부정관(不淨觀)을 닦지 않습니까. 그 썩어가는 과정과 풍화해가는 모습이, 삶을 소유로부터 존재에로 전화시키는 회향의 계기가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폐허를 통해서 삶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불타버린 낙산사와 녹아내린 동종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저녁 2차 찻집에서 만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종림스님이 촌철살인의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주괴공(成住壞空), 생겼다 무너지는 것, 그것이 불교지요!" 그렇지요. 고구에 정녕,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도 이번 불타버린 폐허를 폐허대로 두기를 바랍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불교의 눈으로 보면, 복원이란 어불성설의 개념입니다. 지금 지은 가람도 천년전의 의상대사가 건립한 그 절이 아니라, 50년전 전쟁 통에 새로 지은 것이고, 동종 또한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형태와 구조에 대한 엄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소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이다.

불교, 지구적 복음

저는, 이 참에 낙산사의 가람을 초현대식으로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조화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징과 실용 두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현대인들의 시선도 사로잡고, 그러면서도 수행도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기념비적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턱없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원'이 아니라 '적응'이 관건입니다. 불교가 살아있는 전통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를 주시해야 하고, 중생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해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계획을 말했더니, 다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청계사에 들러 절을 안내하고, 성행 스님에게 참선 지도를 부탁했더니, 학생들은 굳은 다리로 가부좌를 하고, 무심을 체험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자신이 기독교도이지만, 참선이 기독교 교리에 반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말해주었고, 불가리아에서 온 여학생은 자신이 내면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불교와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은 인연을 '이미'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들 산사에서 하루쯤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어했습니다. 적절한 산사를 찾아보겠다고 하자, 그들은 이런 주문을 보탰습니다. "화장실만 괜찮다면요." 그들은 우리의 오랜 전통인 푸세식에 질겁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화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니 그것을 인고로 지키라는 것도 수행이겠지만, 그 억지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만 해도, 전혀 새로운 경험, 재가(在家)와 재사(在寺)의 새로운 연대이고, 실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문화의 얼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월정사의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보고 가슴 깊이 울리고 젖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과 더불어'는 앞으로의 불교를 이끄는 새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승의 근본정신입니다.

불도들이 날마다 읊는 삼귀의(三歸依) 또한 재가와 재사를 아우르는 '공동체'에 대한 회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참석했던 성태용 교수님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구절 자체를 법답게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내가 그리는 새 낙산사

저는 늘 불교가 너무 멀리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져왔습니다. 절은 예배의 장소로만 있고, 스님들은 좌선과 입정에만 계셔서 도무지 말을 붙이기 힘들었습니다. 법문을 듣자고 해도, 주말에 법회를 여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둘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불교가 살아있는 전통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년 전 우연한 계기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의 기획에 간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산사의 공간은 그 공간 자체만으로 엄청난 자원이다. 거기다 약간의 수행 프로그램만 보태면,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대중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도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드컵과 더불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이후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사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여기 동참하는 재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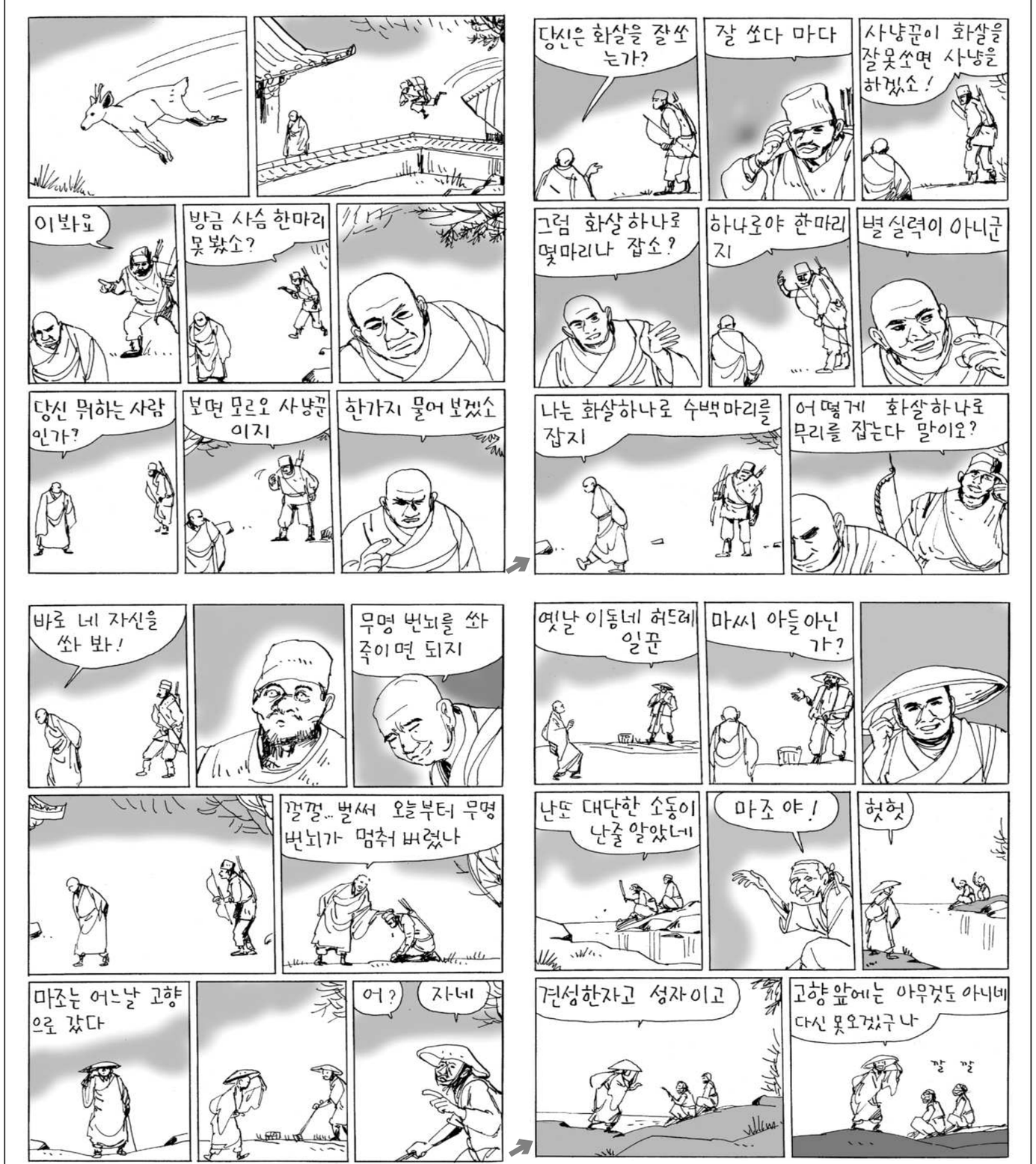
이 새로운 운동을 깊이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살피며, 아울러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요컨대 체(體)는 살리고, 용(用)은 고치는 것이 불교의 오랜 전통인 방편(方便) 정신 아닙니까. 낙산사는 복원(復元)되기보다 중창(重創)되어야 합니다.

낙산사를 새로 세웁시다. 저는 이즈음, 한편에 초현대식 건물이 관광명소이자 수행공간으로 있고, 그 한편에 폐허의 옛 절터가 공존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64 마조도일 선사의 화살

조태호



마조도일(709~788): 당대(唐代)스님. 사천성 한주 출신. 남악회향 문하에서 심인(心印)을 얻음. 석두희천과 더불어 선계의 쌍벽으로 불림. 저서로 <마조도일선사어록>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무명의 실성(實性)은 무엇입니까?

문 무명의 실성(實性)이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명이 불성이므로 무명을 보면, 즉 견성한 것입니까? 견성하신 분은 미혹한 사람을 위하여 알기 쉽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울)

답1 : 무명이란 말과 불성이란 말들은 인간의 특성에 맞추어 분별해놓은 관념입니다. 이렇게 관념으로 나눈 것은 인간들이었다는 뜻이고, 범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분별하기 이전이나 분별한 이후나 그냥 그대로 자연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상생하는 지혜와 자비만을 무궁하게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지혜와 자비입니다 (하늘)

답2 : '무명실성즉불성(無明實性卽佛性)'의 뜻은 바로 언어와 논리에 집착치 말라는 소리입니다. 무명의 실성이 불성이라 하였으니 무명과 불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무명과 불성이 둘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즉 둘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알고 있는 바를 내려놓고 이에 더 이상 분별 집착치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걸 또 새로운 언어와 논리를 세워 굳이 나누려 한다면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답을 요구한다 하였는데 스스로 깨침이 긴요할 뿐 불법에는 정해진 답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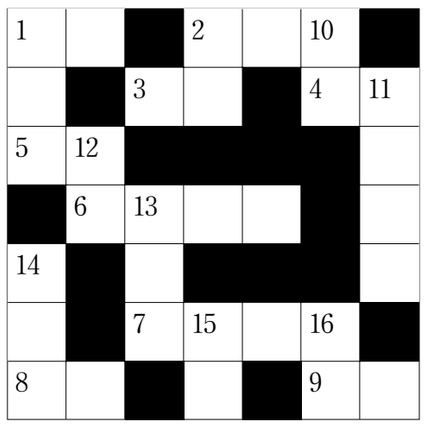
그래서 무엇을 통했던 간에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 그만 이요 모르면 스스로 더욱 참구할 할 뿐 누구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답3 : '무명실성즉불성'이란 무명과 불성이 둘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둘 아니라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무명실성즉 불성'이란 무명실성이라는 것이 따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연기된 것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니 이를 깨달아 따로 이에 집착하거나 매하여 스스로를 얽매는 짓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처의 지혜요 반야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실상이 불성임을 곧 보게 되면 견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도레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8개의 다리를 가짐 2. 불을 끄는데 쓰는 기구 3. 국악기의 하나로 황죽 또는 쌍골죽으로 만든 횡적 4. 공리가 열연한 영화로 대부호의 몰락 과정을 그림 5. 쓸데없는 군일을 뱀의 발에 빗댄 말 6. 아홉 번 죽을 고비를 넘김 7. 서방정토와 같은 뜻으로 부처님의 나라를 일컬음 8. 가장 가벼운 원소 9. 태양계의 3번째 행성

세로 1. 3대 관음도량의 하나며 홍련암이 있는 사찰 2. 염소와 나트륨의 결정체로 짠맛을 내는 천연 광물성 식품 10. 성질이나 언행이 기이한 사람 11.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12.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머리와 발을 사용해 상대 팀으로 넘겨 승부를 겨루는 구기 종목 13.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제일'로 꼽힘 14. 도리천에 있다는 감미로운 영액 15.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덕행이 높은 스님에게 주던 최고의 승직 16. 박경리의 대하소설로 '서희'가 주인공으로 나옴


삼장법사



삼장법사처럼 인재를 경영하라
청쥔이 지음 | 한민영 옮김
랜덤하우스중앙 | 1만2천원

‘서유기’ 현대 시각으로 분석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인재 경영술 제시

CEO 삼장법사에게 배우는 인간경영

중국 4대 기서중 하나인 <서유기>가 조직과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다룬 조직 경영학 책이라고 한다면 과연 독자들은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할까?

<서유기>는 원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종교 술어와 상징적이고 심오한 의미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요괴를 물리치는 과정만 기억할 뿐,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와 함축적 의미는 잊은지 오래다. 따라서 구속받지 않는 개성과 능력, 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항적 기질을 지닌 손오공이 오랫동안 아이들의 우상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삼장법사처럼 인재를 경영하라>에서의 손오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의욕과 열의가 넘치고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로 묘사된 손오공.

천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행산과 험한 서역여정의 고통을 견디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조직의 성공을 실현하는 손오공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오공과 다른 주인공들이 서역여정중에 만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불경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현대 조직사회의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고난, 성공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네 사람을 아주 절묘한 팀워크를 지닌 그룹이라고 소개한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이 네 가지 인간 군상을 모두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중 CEO격인 삼장법사는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절대적인 선과 품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신중한 사고와 걸출한 재기까지 겸비한 인재중의 인재다. 지은이는 삼장법사가 이렇게 엄격하고 신중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그를 가장 이상적인 대업의 전수자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삼장법사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손오공을 비롯해 다른 구성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에게 불교의 관리학인 ‘팔정도’를 전수받았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삼장법사의 단점은 마음은 착하지만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못하고 세상일에 어둡다고 지은이는 지적한다. 또한 손오공이 세 번에 걸친 백골 요괴를 처치할 때 삼장법사는 매번 자신의 철학만 늘어놓기에 바빴지 한번도 화를 억누르고 손오공과 의견을 교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화내며 손오공을 내치려 하는 바람에 결국 조직 전체의 역량만 크게 훼손했다. 여기서 지은이의 충고는 시작된다. 삼장법사처럼 한 조직의 구성원과 관리자도 때로는 백골요괴와 같은 마수에 빠져 시비를 가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장법사의 잘못은 요괴의 유혹에 넘어간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내에 효과적인 의사 전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는 손오공과 우마왕의 아들인 홍해아에 대한 대결이 나오는데 손오공이 진압에 실패한 걸 결국 관세음보살이 굴복시킨다는 내용이 나온다. 관세음보살의 승리 비법은 홍해아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 것에 있다. 여기서 지은이는 자아 관리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약자라고 치부한다.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조직, 그리고 대자연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파트너의 생각을 관리하라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라 △프로일수록 조직의 규율을 엄수하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외 관계를 수립하라 △마음속에 포용이라는 방을 지어라 등 <서유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분석해 사람을 경영하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인재경영술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교훈을 얘기하자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개인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소 딱딱할 것 같은 교훈적인 내용을 <서유기>라는 고전 속에서 발췌해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낸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그러면서도 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탄탄한 구성은 일반 독자들은 물론 전문 경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듯 싶다.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현대 직장인들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부담 없이 읽으며 조직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강석진 회장(현 CEO 컨설팅그룹)의 추천사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말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천년의 그림여행
스테파노 추피 지음
서현주 · 이화진 · 주은정 옮김
예경 펴냄 | 1만9천8백원

올해 들어 특히 미술안내서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편집과 인쇄, 화가나 작품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어를 통해 지난 1000년의 미술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다. 책은 중세 유럽 로마네스크 프레스코에서 현대 뉴욕의 낙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0년간 제작된 위대한 작품들을 순례하고 있다. 순례를 하다보면 300여 명의 화가가 그린 800여 점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서양화 역사에서 가장 흔히, 혹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모든 작품이 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작, 화가, 도시, 예술운동 등 하나하나를 주제어로 삼아 그에 대한 간략하고 명쾌한 설명을 큼지막한 도판과 함께 곁들여 배치했다. 예를들어 ‘미켈란젤로’ ‘고야’ ‘피카소’ 등 화가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장도 있지만, ‘위대한 프레스코의 시대’ ‘다다에서 초현실주의로’ 같은 미술사조,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풀밭 위의 점심’ 처럼 미술작품이 제목으로 나온 장도 있다.

서양미술사 1000년 한눈에

명화에 대한 상식의 허와 실을 드러내면서 미술 작품에 얽힌 일화와 미술사적 의미를 담은 것도 이 책을 읽는 또하나의 재미다. 르네상스 초기 회화의 대표작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결혼식 장면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의 낭만적 사랑을 담은 그림인 듯하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림 속의 신랑은 60대의 남자이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젊은 유부녀를 납치해 겁탈한 뒤 결혼식을 올려서 정식 정부로 삼았다고 한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면, 그림 속의 모델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살이 쪘고 사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모나리자는 그림 밖으로 빛을 내뿜으면서 신비감을 더하고, 그 배경화의 몽환적 분위기는 비오는 날에 빛이 가장 아름답다는 다빈치의 생각을 반영한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프랑스의 아비뇽과는 전혀 상관 없는 그림이다. 피카소가 청소년 시절에 자주 들락거렸던 바르셀로나의 아비뇽 거리의 매춘부들을 그린 작품이다. 원래 피카소는 아가씨 외에도 한복판에 선원 한 명과 해골을 든 의과대학생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 그림에서 해골은 악덕, 섹스, 죽음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카소는 아가씨들만 그린 채 작업을 끝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멀기만한 그림을 조금 더 우리곁으로 가깝게 당겨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책이라 확신한다.

또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100명 이상 화가들의 생몰연대를 색띠로 표시한 권말 부록도 애호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다.

■장윤성(문막고 미술교사)

4·8 봉축카드·생일카드

비단접등 실용신안특허 33289호 의장등록 제50831호
값 2,700원(100개 이상 주문시)

4·8 봉축카드



생일카드

카드내지



16절
• 카드 100매 이상 단가 500원
• 카드 500매 이상 단가 400원
• 카드 1,000매 이상 단가 300원
• 봉투, 내지 인쇄포함

프린트용 칼라인쇄지



A4
(80P모조)
값 10,000원(500매)

동진기획 홈페이지의 상담문의(홈페이지 상단우측)에 가시면 카드를 크게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Since 1975
동 진 기 획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8888(代), 515-2988
(051)555-1087, 508-9377~9
FAX:(051)508-0101 H·P:011-554-2988

■불교서적■불교카렌다■주문카렌다■불교용품■
■연등■4·8카드■생일카드■사찰인쇄전문■

E-mail:tunhwang@yahoo.co.kr
www.tunhwang.com www.dongjin.biz www.동진기획.com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2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고행의 길이며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
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4일 - 8월 4일 (32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앙-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禪이 궁금하다고?



禪을 가까이 하라
참회승 엮음
여시아문 | 7천원

선사들의 가르침 엮은 선수행 입문서
'서장' 등 대표 선서 주요 구절 정리

올바른 공부법을 알지 못한다면 '깨달음'이라는 산을 제대로 오를 수 없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8만4천 법문을 모두 찾아 읽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다.

"참선 경험이 있는 자라도 그 공부를 점검한 다음, 진취가 있거나 그릇된 점이 있을 경우 공부 방법을 바꾸어 주거나 혹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선지식의 역할이지요."

<禪을 가까이 하라>는 역사 조사들의 법어와 가르침을 엮은 선 수행 입문서다. <서장> <선가귀감> <선문촬요> <임제록> 등에서 선 수행을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이 지침으로 삼을만한 구절을 정리했다. 책을 엮은 스님은 법명 대신 '참회승'이란 필명을 내세웠다. "화두 참선에 관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공부를 하다 어려운 점을 질문할 때 마다 틈틈이 정리해 두었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시법문(垂示法門) 자료를 건넸습니다. 선서(禪書)를 찾아 읽거나 일일이 큰스님의 지도를 받기 어려운 재가 수행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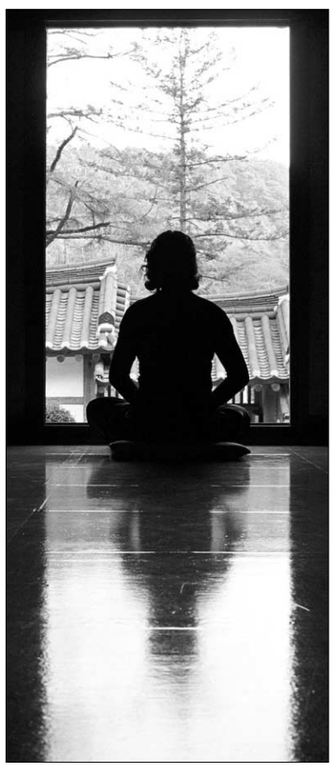
1장 '큰스님 참선 법문'에서는 참선 수행을 권하는 스님들의 법문을 담았다. 무상 선사의 '자기 부처', 성철 스님의 '자성을 깨치는 데는 화두참구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옹 스님의 '참사람' 등을 통해 왜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2장 '좌선의'에서는 중국 남송 휘종 때 자각 선사가 지은 <좌선의>를 통해 참선의 기본 법식을 익히게 도와준다. 3장 '공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4장 '화두 공부하는 법'에서는 공안(公案)의 역할과 목적을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짚어본다. 5장 '올바른 화두 참구법'에서는 좌선 중 일어나는 경계와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즉 화두 참구 시 잠이 오거나 의식이 산란해 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음알이로 공안을 해석하려 하거나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깨우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짚어볼 수 있다.

6장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와 7장 '옛 큰스님들의 가르침'에서는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담았다. "그대들은 오직 이 도리를 참구하는 일만을 하라. 20년, 30년씩 참구해 보아도 깨닫는 바가 없다면 내 목을 자르라"고 했던 조주종심 선사의 말에서 참스승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장 '참선자에게 주는 경책의 말씀'과 9장 '참선자에게 주는 게송 10수'는 수행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수행을 독려하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담았다. '옛사람의 공안에 천착하지 말라' '고요한 경계를 주의하라' 등 참선할 때 생길 수 있는 병통을 박산대의 스님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 풀어준다. 수행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고 수시로 읽으며 '선지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행자에게 선지식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나침반이 된다. 사진은 남양주 봉선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재가불자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새로나온 책

■ **<무엇이 깨달음인가>**(슈리 푼자 지음, 엘리 잭슨 베어 엮음, 김병채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1만원)=1990년 1월부터 91년 4월까지 슈리 푼자와 제자들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을 엮은 책. '무엇이 깨달음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슈리 푼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98년 하남출판사에서 발간됐던 책을 김병채 교수(창원대)가 새롭게 다듬었다.



■ **<종교가 사악해질 때>**(찰스 킴볼 지음, 김승욱 옮김, 에코리브르, 1만4천원)=절대 선(善)과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사악해질 때'는 언제일까? 찰스 킴볼 교수(웨이크포리스트 대학 종교학)는 종교 타락의 다섯 가지 징후로 절대적 진리의 주장, 맹목적인 복종, '이상적 시대'의 확립,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의 정당화, 성전(聖戰) 선포를 꼽는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 **<생명의 노래>**(이철수 글/그림, 호미, 2만8천원)=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느림과 여백은 삶의 소중한 쉼표가 된다. 목판화가 이철수씨의 판화작품들이 사랑받는 이유도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여유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의 노래>는 2003~2004년 두 해 동안 새긴 판화 작품 중 66점을 골라 담은 책이다. 오강남 교수(캐나다 레지나 대학)가 판화 작품 속의 글을 영어로 옮겼다.



소똥 줍는 아이들
최시선 지음
아름다운인연
1만원

"얘들아, 인도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었어"

충주 예성여고 교사인 최시선씨(사진). 17일간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인도에서는 진짜 손으로 밥을 먹나요?" "정말 소똥이 많고 더러운가요?"

"얘들아, 인도 사람들은 거리에서도, 기차에서도, 식당에서도 항상 웃고 있었어. 그들에게서 악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나는 그들에게서 2,500여년 전의 붓다를 발견할 수 있었단다."

여행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던 최씨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행하는 틈틈이 적어 두었던 일기와 <대당서역기> <왕오천축국전> <부처님의 생애> 같은 책들을 뒤적이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인도와 불교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집필 끝에 펴낸 <소똥 줍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써내려간 '인도 안내서'가 됐다. 인도 여행 경험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인도의 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줌으로써 인생에 대해 한번 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불자가 아니라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여행지에서 겪은 에피소드들과 다양한 사진을 곁들였다. '신비의 땅 천축국'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고 철길에서 '볼일'을 보는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인도의 풍습과 문화를 소개한다. '깨침의 땅 보드가야'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 등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를 차례로 짚어보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진정 인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인도의 모든 것을 지우라"고 말한다. 인도라고 하면 무조건 못사는 나라, 손으로 밥을 먹는 미개한 나라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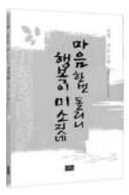
청소년 포교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 조계종이 수여하는 포교대상(청소년 부문)을 받기도 한 최씨는 현재 파라미타의 지도를 맡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2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국
3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4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산색	연관 스님	호미
6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광
7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스님	해조음
8	임제록강설	무비 스님	불광
9	유식삼십송	성윤갑	불교시대사
10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컴퍼니

도서 안내 : (02)737-0695



마음 한번 돌리니 행복이 미소짓네
승명 지음
너울북
8천원

한 생각 바꿔 행복한 사람들

올해 70세의 강일순 할머니는 5년 전만해도 얼굴에 짜증과 고민이 가득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억척같이 3남매를 키워온 강 할머니는 외환위기 때 빌려준 2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화병까지 났던 것이다. 그러나 '남은 인생동안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지 생각하라'는 법문을 듣고 난 후 마음을 바꿔먹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살기만 하라"고 격려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각종 상륜심인당 승명 정사가 펴낸 <마음 한번 돌리니 행복이 미소짓네>에는 포교 현장에서 보고 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44편이 담겨 있다. 병마와 싸우거나 사업실패와 노름, 외박 등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한 생각'을 고침으로써 '작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승명 정사는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보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글에 나오는 심인당(心印堂)이나 정사(正師), 불공(佛供) 등 진각종의 용어들을 주를 통해 풀어 놓아 이해를 돕는다.



마음을 다스려 나를 경영한다
김정빈 지음
물병자리
9천5백원

화 날땐 참지 말고 풀자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은 아마 자신의 마음이 아닐까?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소설 <단>의 저자 김정빈씨는 "화나 고통을 무조건 참지 말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 안에 한 번 쌓인 짜증과 고통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은 다음에야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해소방법의 하나로 김씨는 '명상'을 제시한다.

김씨는 1995년부터 미얀마의 수행센터에서 직접 위파사나 수련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집중수련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제1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불교 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많으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 및 지원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4회 행원문화상을 시상코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상내용		인원	상금
학술 및 역경상	불교관련 학술연구에 큰 업적을 이루신 분 및 불전을 번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시 상 일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①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부
②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 1부
③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2년이내 실적물) ·····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 접수 마감 : 2005년 6월 30일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05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 02)586-6521~2번, fax 521-9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님들께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혜스님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몽을 주신 것입니다.



백의관세음보살님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황토물 지장수를 드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님들께 지장수를 드려 편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나쁜일을 지으면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포교당 연화정사는 자비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항상 선행을 행하며, 부처님 정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 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연화정사**
041)588-7779,010-6772-7485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드립니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북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시간 초월한 경건함과 아름다움

동화사 삼존불 진신사리 친견 및 복장 유물展 (9월 3일 까지-동화사 특별전시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는 4월 12일 통일기원대전 특별전시실에서 동화사 대웅전 출현 삼존불 진신사리 친견 및 복장물 전시대법회를 봉행하고 9월 3일까지 특별전시에 들어갔다.

이날 전시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복장유물은 동화사가 지난해 10월 대웅전의 보존 복원 공사를 위해 삼존부처님을 이운하던 중 발견된 것. 동화사는 6개월 여 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복장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령통 일체, 보물급 전적류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다. 또 이를 기념해 1250년 전 통일신라시대 사경원에서 봉행했던 전통사경 재현법회도 열렸다. 한국사경연구소장 김경호 법사에 의해 기획된 사경재현법회는 국보 제 196호 신라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사성기에 나타난 의식과정을 재현한 것. 원만사 유치원 어린이 20여명이 홍의동자 황의동자로 길을 밝히고 심인고등학교 취타대가 동참하는 등 부처님 법신사리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법당에서 연으로 모셔와 사경법회장인 통일기원대전까지 이운 봉안하는 장엄의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4월 12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특별전시실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조해녕 대구시장(맨 오른쪽)이 후령통과 오보병을 관람하고 있다.

진신사리 · 후령통 일체 등 공개
통일신라시대 전통사경도 재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부처님 복장물 및 사리친견대법회와 전통사경재현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는 신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에는 희망을 줘서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라불교, 고려불교를 오늘날 이 시대에 재현시켜 우리불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신사리를 사경법회장으로 모셔가는 이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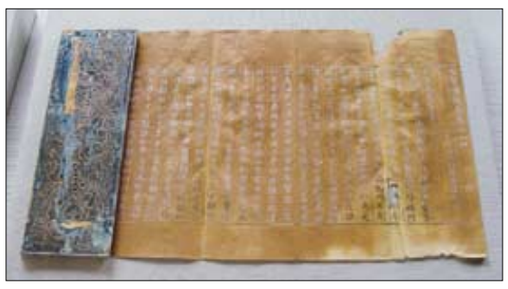
동화사는 9월 3일 대웅전 보존 복원불사를 마친 뒤 박물관에 보관할 복장물을 제외한 복장물, 사경법회 등을 통해 새로 조성한 복장물을 삼존불에 봉안할 예정이다. (053)982-0101

■ 어떤 유물들을 볼 수 있나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 등 전적류만 100여권
'상지은니무상의경 권하'
'상지은니대보적경 권제 94'
고려시대 사경으로 보물급 가치

대웅전중창상량문에 의하면 대웅전 삼존불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옹정 5년(영조 3년)인 1727년 5월 12일에 납입된 것으로, 전적류와 후령통이 주를 이룬다.

이 중 전적류는 총 수량이 100여권이 넘는다. 발원문을 비롯해 고려사경, <묘법연화경>, <지장보살본원경>,<화엄경> 등의 경전과 진언문 및 15세기 이후에 간행된 목판본이 주를 이룬다. 이번 일반에 공개된 고려시대의 사경 2점과 고려와 조선전기 목판본은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약사여래에서 발견된 <상지은니무상의경 권하(橡紙銀泥無上依經券下)>와 <상지은니대보적경 권제94(橡紙銀泥大寶積經券第九十四)>는 상수리 열매로 염색한 하지에 은가루로 경전을 베껴 쓴 고려시대(14세기)의 사경으로 보물급의 가치가 있다. 또, <대방광불화엄경>도 고려시대(14세기) 목판본 경전으로 표지 일부가 얼룩지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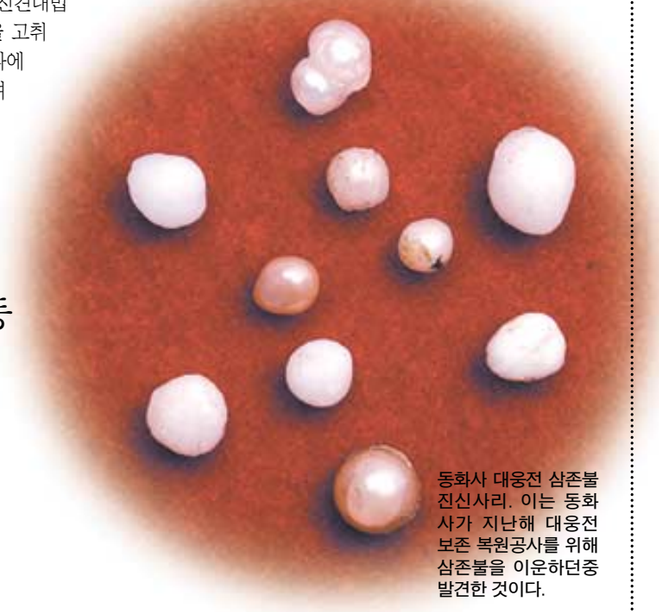


<상지은니대보적경 권제 94>.

그 외 조선전기 간행된 목판본으로 <묘법연화경권 제4>(1417년)와 <지장보살본원경>(1474년)이 전시되고 있는데, <지장보살본원경>은 김수온(1410~1481)의 발문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대불정수능엄경>(1609)과 <묘법연화경>(1629) 등도 선보인다. 다라니로는 1725년 동화사에서 간행된 육자대광명진언을 비롯해 일체여래비밀전시사리보협진언, 칠구지불모심준제진언, 진언집 등이 진열대에 오른다.

사각의 동제 후령통은 복장물을 넣는 복장기로 뚜껑의 끝처리는 팔엽(八葉)을 형상화한 연꽃으로 마무리했다. 후령통 안에는 각각 오방을 상징하는 5색의 동제 오보병과 사리통이 있으며, 그 안에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원형, 금강저, 채번, 산개 형태의 지류와 각종 곡식 약초 등이 들어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화사는 후령통 일체를 일반에 공개, 당시 복장물 봉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동화사 대웅전 삼존불 진신사리. 이는 동화사가 지난해 대웅전 보존 복원공사를 위해 삼존불을 이운하던중 발견한 것이다.



아미타여래 후령통 내부 납입품들.

■ 복장물은?

불상 · 탱화에 영원한 생명력 부여 의미

복장물이란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면서 내부에 봉안하는 여러 가지 유물을 말한다. 법식에 맞게 이들 유물을 넣음으로써 불상이나 탱화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불상이나 탱화에 언제부터 복장의식이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부처님 입멸 후 8개의 국가로 사리가 나누어져 사리탑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공양물을 함께 넣는 사리장엄 의식이 발달했다.

이후 점차 의식의 형태와 복장물의 목록이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복장의식과 복장내용이 <조상경>으로 정립되면서 정형화됐다.

불상의 경우 복장물은 사리와 오보병을 담은 후령통을 중심으로 경전(법사리)과 다라니를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탱화의 경우 복장낭이라는 주머니에 불상과 비슷한 유물들을 넣어 매달거나 탱화 뒷면에 넣어 배접한다.

■ 복장물 납입품

'조상경' 근거로 사리 오보병 오경 등 차례따라

불상에 복장을 넣을 때는 <조상경>에 의해 사리와 사리통, 오보병, 오경, 오곡과 오색사, 불경류, 의복, 다라니 등을 넣는다. 복장물은 후령통과 이를 싸는 황초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 사이에 발원문과 주문을 넣는다. 복장물의 핵심인 후령통은 금속이나 나무, 혹은 종이 등으로 제작되는데 원통형이나 사각형이 일반적이고, 대체로 뚜껑에 둥근 대롱이 끼워져 내부의 오보병을 둘러싼 오색사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후령통 내부에는 5가지 색을 지닌 오보병이 들어있고, 각 병 안에는 오곡과 오향 등 많은 물건들이 법식에 따라 들어가 있다. 보통 오보병은 동 · 서 · 남 · 북 · 중앙의 방위를 상징한다.

동화사 대웅전에서 출현한 후령통에서는 6개의 병이 나왔는데 사리통으로 한 개가 더 넣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령통의 내외에 오륜종자와 오경이 들어간다. 오륜종자는 5방위에 따라 5가지 색의 직물에 방위마다 다른 글자를 써서 납입하며, 오경이란 다섯 개의 거울로 각 방위마다 네모(동) 원(서) 삼각(남) 반원(북) 원(중앙)의 형태로 나타낸다. 금속이나 천을 사용하는데 동화사 대웅전 복장품의 경우는 오색사로 동-서, 남-북으로 엮어서 후령통 외면에 매달아 놓았고, 중앙은 후령통 내부에 봉안돼 있었다. 이 밖에 종이로 오려 형태를 만든 오색채번, 오백저, 금강저 등을 각 방위에 맞춰 후령통에 넣는다.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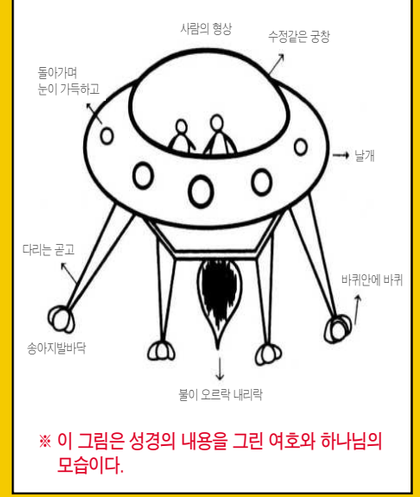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UFO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신변(身邊)에 의식(意識)과 인식(認識)의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며 마음에 새로운 광명이 비칠 것이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쏴: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 명 TEL.042)623-0829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것.
기독교(천주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100% 외계인이라고 증명한 책.
여호와는 神이 아니며 잔인한 외계인일 뿐이다.

※ 이 광고는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에서 후원하는 것임. 후원에 동참하실 분은

농협 751025-51-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卍 · 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卍의 최초 해설서

卍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卍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 · 원 · 모 · 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6

4월 9일

주제 -선 수행의 바른 길

내가 부처인데 밖에서 뭘 찾는가

說禪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자청정(本自淸淨)하니 단용차심(但用此心)하면 직료성불(直了成佛)하리라.

이 한마디 속에 불교의 대의와 선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리자성은 깨달음의 성품자리, 참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참마음은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청정합니다. 모든 번뇌망상과 자아의식이 텅 비어 버린 그러한 성품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텅 비었지만 일체 공능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텅 비었다고 하는 부정 가운데 일체 공능이 구족되어 있는, 전체를 살려내는 긍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참마음으로 살게 되면 곧바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 '단용차심 직료성불'입니다. 먼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달음의 삶, 부처의 삶,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인 참마음만 바로 알고 살면 이것이 바로 선의 삶이예요.

(죽비를 들고)이것 보입니까? (대중이 "예"라고 대답하자 죽비를 치고) 이 소리가 들립니까? (대중이 "예"라고 대답)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다 된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작용 속에는 온 우주법계가 총 동원돼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작용은 온 우주법계가 총 동원되어 연기작용으로 보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비를 본다'고 생각하면 보는 '나'와 죽비라고 하는 '대상'이 설정되어 주관과 객관이 나뉘고 맙니다. 이 '나' 속에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뢰야식 속에 축적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업기운들이 개입이 되어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게 됩니다. 이는 갈등이 되어 수많은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를 통찰해서 괴로움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의 출발은 괴로움 통찰

나를 잘못 보아 이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공(空)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싹 사라집니다. 수행의 목표는 참마음을 깨닫는 일이죠. 이 참마음을 깨쳐 괴로움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목표, 삶의 좌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마음을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수행의 목표, 삶의 좌표가 확립되지 않으면 열심히 수행할 수 없고 진실 되게 살 수 없으며 꾸준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 수행의 좌표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는 불자들은 강의나 법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발심이 된 연후에 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야안목과 반야삼매, 반야행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반야안목, 진정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를 배우고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야안목, 즉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는 일입니다. 만약 반야안목을 갖게 되면, 생사에 자유자재하며 가고 머무름에도 자유롭고, 대조화와 절대평안, 참 행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족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절대평화와 대자유를 얻는 해탈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행자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데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처인데 뭘 밖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서지 않으면 참선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이 의미 없는 거예요.

임제선사는 "스스로를 믿고 밖으로 찾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너의 한 생각 마음위에 청정한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법신불이요,
너의 한 생각 마음위에 분별없는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보신불이며,
너의 한 생각 마음위에 차별없는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화신불이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참마음이 참부처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서야 참선이 됩니다.

흙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흙탕물에는 맑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중들 "있어요")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흙탕물인 상태에도 있다는 말이예요. 흙탕 같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해도 맑은 물 같은 참마음은 여여한 것입니다.

흙탕물의 비유에서 흙탕물을 떠나 맑은 물이 따로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고 듣는 이 일상의 마음에 참마음의 묘용이 여여하다는 이 도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참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야삼매, 정혜일체, 지관등지가 되도록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을 어떻게 비워버릴 것인가. 번뇌망상을 비운다는 것은 선의 삶이 아니라 선수행의 차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수행의 초점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텅 빈 진여, 참마음만 있을 뿐 비울 것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번뇌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있지도 않은 번뇌망상을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을까요? 마치 꿈에서 깨면 꿈의 내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번뇌망상을 인정하고 속으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걸 안다면, 분발심을 내야 합니다.

'나'에 매어 살면 고통 따라

화두만 잘 들면 분별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화두의심에는 분별망상이 붙을 수가 없어요. 마치 불덩이가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불덩이 앞에서는 벌이니 나비니 참새니 다 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의심만 간절하게 일어나면 번뇌망상이 그 순간에 작동을 못합니다. 번뇌망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거예요.

화두의심을 잘 들고 있으면 선정과 지혜가 그 속에 함께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수행입니다. 지혜를 따로 닦고 선정을 따로 닦는 게 아닙니다. 선정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는 것이 화두삼매입니다. 선정과 지혜는 불과 불빛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선정이라면 불빛은 지혜입니다.

셋째는 반야행, 생명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다운 수행은 반야안목, 반야삼매, 반야행, 이 셋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입니다. 반야안목을 갖추고 있으면 반야삼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는 스스로 참생명의 모습으로 반야행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야행의 첫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무아행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반드시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네가 있게 되고 네가 있으면 내가 있게 되니까 대립이 생겨 조화가 깨집니다.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됩니다.



지환 스님은

- 1967년 해인사 입산
- 1969년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 1972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범어사, 해인총림, 덕숭총림, 고불총림 운문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정진
- 쌍계사 금당선원장 역임 · 현 조계종 기본선원장, 동화사 선원장

반야행의 첫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주더라도 상을 내게 됩니다. 나를 비우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듯이 내 생명의 자비한 기운으로 주게 돼 있어요. 생명에는 자비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주는거예요. 내가 비워지면 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수행공동체, 동체적인 관계가 되어 나와 내 가족은 하나의 삶의 터전에서 조화롭게 머무른바 없이 그저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리고 범위를 넓혀 이웃에게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연습을 하다보면 내 마음이 무한히 넓어지고 내 마음이 참마음의 흐름으로 흐르게 되어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수행을 하세요. 사랑은 엄청나게 좋은 수행법입니다. 사랑을 수행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멋지게 사랑하며 사세요. 멋진 사랑을 하는 방법은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서 주어야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나를 비우고 오직 상대만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참생명은 대활(大活)이며 대환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기쁘고 활기있게 사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활기있게 살면 웬만한 장애물은 극복됩니다. 이것이 참선수행을 할 수 있는 반야행을 닦는 기초라 할 것입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6



질의 법사 : 강설 스님
- 1983년 송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 198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해인총림 등 제방선원서 20여년 참선정진
- 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설 스님 : 대중을 대표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화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스님 : 간화선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익숙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온 삶을 참 삶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간화선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수행이 다 어렵습니다.

간화선을 할 수 있는 기본토대,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간화선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땅에 비유하자면 척박하고 자갈이 깔려있는 땅을 파서 돌자갈을 캐내고 땅을 부드럽게 고르고 나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돌자갈과 가시덩쿨이 얽혀있는 척박한 땅을 그대로 두고 씨를 뿌리면 씨가 제대로 나지 않고 씨가 난들 제대로 자라지 않듯이 화두공부를 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두공부를 하면 화두공부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생명은 깨침에 있습니다. 깨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받아야 하지요.

화두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안됐는데 화두를 받아서 '이뭣고' 한들 의심이 나지 않고 공부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간화선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실날 만큼이라도 의심의 뿌리가 났을 때 화두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를 할 준비가 됐으면 스승에게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받으세요. 반드시 스승의 지시대로 공부해 나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야합니다. 스승의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화두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행 하는 사람이 간화선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기초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기초만 튼튼히 하면 아주 쉬운 수행법입니다. 왜냐하면 간화선은 단순명료하기 때문입니다. 화두의심만 일으키면 되는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낍니다.

화두의심을 일으키는 순간 번뇌는 범접하지 못합니다. 간화선을 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되어 제대로 공부하면 간화선이 가장 힘있는 공부고 가장 쉬운 공부예요.

강설 스님 : 간화선과 관법(觀法)을 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환 스님 : 병 따라 처방하는 약이 다르듯이 사람 따라 다릅니다. 관법을 먼저하고 화두공부를 할 사람, 화두 공부와 관법을 병행해도 좋을 사람, 곧바로 화두공부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의심이 나지도 않는데 '화두를 오래오래 하다보면 나중에 화두의심이 생기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재가불자 가운데 곧바로 화두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선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참선을 할려면 화두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큰스님한테 가서 화두 타가지고 참선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심이 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참선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不淨觀)을 한다든지 성내는 진심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慈悲觀)을 한다든지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수식관(數息觀)을 한다든지 기초단계로 관법을 먼저 닦고 화두공부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관법은 반야관법이 있습니다. 반야관법과 간화선은 한 흐름이예요. 그래서 화두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법입니다.

이 반야관법도 반야관법을 먼저하고 화두공부를 해야 할 사람 반야관법과 화두를 병행해서 해야 할 사람, 사람따라 다릅니다.

설동근 거사 : 아함경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 해탈열반 하려면 아홉까지 순서에 입각한 수행인 구차제정(색계 4禪, 4無色定, 滅盡定 또는 想受滅定)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간화선의 선 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환 스님 :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 중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에서 세계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세계가 있고 고정된 세계 속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중생들이 사는 세계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구차제정이라는 선정을 통해 중생들의 세계는 중생들의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차제정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한 선정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단순한 삼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은 번뇌가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마타(止) 다시말해 선정의 측면과, 고요한 마음의 상태로 법을 관찰하는 위빠사나(觀), 즉 지혜의 측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마타(止), 선정 속에 위빠사나(觀)와 지혜의 내용이 함께 있고, 위빠사나(觀), 지혜 속에 사마타(止)와 선정의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지관등지(止觀等持), 정혜일체(定慧一體)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원리입니다.

구차제정은 해탈열반에 이르는 아홉단계의 선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의 멸진정을 통과해야 중생들의 모든 세계가 조작된 유위이며, 연기의 세계라는 연기법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차제정이라는 선정을 통해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달리 말하면 지관(止觀)을 통해 연기법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간화선 수행도 이 수행의 원리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화두의단이 뭉쳐지면 화두삼매가 되는데 이때는 번뇌가 쉬어, 고요하고 적적한 상태(止, 定의 측면)에서 화두의심이 뚜렷하게 흐르는 성성함(觀, 慧의 측면)이 있게 됩니다. 즉, 적적성성(寂寂惺惺)이요 성성적적(惺惺寂寂)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관등지(止觀等持), 정혜일체(定慧一體)의 수행입니다.

간화선에서도 은산철벽(銀山鐵壁, 멸진정의 상태)을 투과해야 화두가 타파되어 확철대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연기실상을 바로 깨쳐서 연기 실상의 흐름, 즉 진여대용(眞如大用)의 자유자재한 깨달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설동근 거사 : 대혜 종고스님은 화두 참구의 목적에 관해서 "만약 곧바로 계합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단박 부수어 버려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생사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화두 참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견성의 방편으로서 화두를 제시하는가 궁금합니다.

지환 스님 : 우리 의식은 동시에 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미운 생각을 하면서 이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미운 생각을 할 때는 미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짧나가 바뀌는 것이지,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생각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화두의심은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진리가 도대체 뭘까, 아니면 달마대사가 왜 동쪽으로 오셨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궁금함과 간절함이 강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집중력을 갖게 해 줍니다.

강력한 집중의 화두의심이 흐르고 있는 화두삼매에는 다른 생각, 망념이 끼어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화두의심이 꽉 뭉쳐 있으면 분별망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이 약할 때는 망상이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계속 부어주면 불꽃이 활활 타오는 것처럼 망상을 피우면 피울수록 망상이 자라는 것입니다. 화두의심이 이어지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질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의 세력이 약해지다가 화두의심의 극점에서 미세 망념의 근본뿌리가 공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홀연히 마음 꽃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돈오견성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견성의 방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의심을 공부의 기초 삼고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 들어야

부정관·자비관·수식관 간화선과 함께해도 좋아



4월9일 범어사에서 열린 여섯번째 설선대법회에서 지환 스님의, 간화선과 올바른 수행법에 대한 법문에 귀 기울이며 공감의 박수를 치고 있는 불자들.



재가 질의자 : 설동근 거사
- 행정학 석사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교육감 역임
- 현 부산시 교육감, EBS 인터넷 수능 자문위원장






김유정 | 조병화 | 정지용 | 천상병

그들의 고향에서 문학 향기에 빠져 볼까?

김유정 · 조병화 · 정지용 · 천상병 문학축제 이어져

봄. 꽃은 산하를 머금고, 시인은 꽃을 노래하고…. 꽃을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근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문호들의 고향에서는 지금 문학 축제의 열기가 뜨겁다. 그 봄 향기 문학 향기 가득한 문학축제 속으로 가족 · 연인과 함께 떠나보자. 지난해 하루 1천 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인 지역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한 '김유정 문학제' 가 4월 22~24일 춘천 김유정문학촌 등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시인 조병화를 기리는 '꿈과 사랑의 시축제', 정지용 문학관 개관축하를 겸한 정지용문학축제, 천상병문학제 등이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 동양의 안델센을 다시 본다. 김유정문학제(4월 22~24일)= '봄봄' '동백꽃' 등 동화 같은 단편소설을 남긴 김유정(1908~1937)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김유정문학제가 춘천 김유정문학촌과 국립 춘천박물관에서 열린다. 문학제는 김유정의 소설 낭송대회, 김유정 작품 속 1900년대의 삶 체험, 시 낭송대회 등으로 꾸며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김유정 문학현장 답사기행을 겸하는 김유정 문학열차. 이는 22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청량리를 출발, 오전 11시 40분 춘천 김유정역에 도착한 뒤 소설적 배경이 된 강원도 춘천 실레마을 일대를 둘러본 뒤 이날 저녁 다시 열차로 서울 청량리역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다. 문학열차 참가비는 3만원. 이와 함께 닭싸움, 민속놀이, 풍물장터 등도 열린다. (033)261-4650

 # 사랑과 꽃을 노래한 시인, 조병화문학축제(5월 4~10일)= 시인 조병화(1921~2003)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자리한 편운문학관은



시인 조병화의 시를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올해 이름을 조병화문학관으로 개칭하고 '꿈과 사랑의 시축제' 를 마련한다. 문학축제는 5월 4일 시인 허영자, 오세영, 이가림 씨 등이 참여해 '조병화를 말한다' 라는 시인을 추억하는 자리로 막을 올린다.

10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 시낭송, 다함께 직접 시 한수 써보기 , 시집 꾸미기 등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시인 조병화의 시 생애 사진전도 열린다. 이와 함께 조병화 시집 52권과 시인의 유품 등이 상설 전시된다. (031)674-0307

 # 영원한 수채화 속 고향의 주인공, 정지용문학제(5월 13~15일)= 시인 정지용(1902~1950)의 고향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정지용문학관' 개관을 겸한 정지용문학축제는 정지용문학관을 포함한 옥천 전역에서 5월 13~15일 열린다. 지용 시화전, 시 '향수' 를 모티프로 한 향수 사진전, 문화의 거리 작품 전시, 지용문학캠프, 판화찍기 등도 마련된다. 전국 청소년 힙합 재즈 프로그램, 남녀시조경창대회, 수석 공예품 전시회 등도 열린다. (043)730-3081

 # 한국의 도연명을 꿈꿨던 시인, 천상병문학제(5월 21~22일)= '귀천' 의 시인 천상병(1930~1993)의 시비가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대에서는 제3회 천상병문학제가 5월 21~22일 열린다. 천상병 문학 세미나, 중 · 고생 백일장, 천상병 시를 모티브로 한 공연 등이 마련된다. 22일 오전 귀천 시비 앞에서 열리는 시 낭송회에는 일반인들이 참가해 천상병 시인의 시 혹은 자신의 애송시를 낭송할 수 있다. (02)720-9875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공연

해인사 '봉축 음악법회' 연다

韓 · 中 · 印 · 日 아티스트 참가
5월 7일 '화엄만다라' 협연

한국불교의 성지 가야산 합천 해인사가 창건 이래 1200년 만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첫 음악법회 '화엄만다라' 를 5월 7일 오후 7시에 갖는다.

화엄만다라는 임동창이 디자인한 새로운 개념의 창작음악으로 불교문화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의 대표적인 불교 음악가와 스님, 신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협연곡이다. '우리는 하나' 라는 진리를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연주하는 화엄만다라는 어떠한 체계나 규율이 없는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일체감을 형성케 할 것이다. 게다가 스님의 법고, 범종, 목어, 운판 등 사물 연주로 시작되는 예불과 조계종 종정이며 해인총림 방장인 법전 스님의 법문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불교문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창(한국, 총연출), 밀린드 다테(인도), 투샨치앙(중국), 마사야(일본) 등 대표적인 불교국가 4명의 아티스트들이 협연하며, 이봉주 유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이 특별히 제작한 100여개의 우리나라 전통 '방짜유기' 가 새로운 악기로서 살아있는 한국적 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 이생강(대금), 전인삼(판소리), 변진심(정가) 등이 참여하여, 전통적인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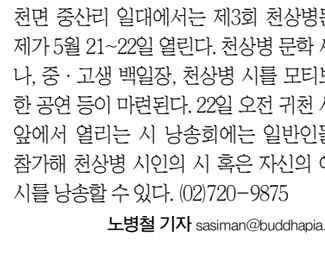
해인사는 음악법회 후 자연스럽게 스님과 차 한잔을 나누며 명상과 참선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1박2일의 템플스테이도 준비했다. (055) 934-3110, (02)2187-6222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이영화 어때요?

한반도는 하나 독도는 우리땅

피묻은 약패 감독: 표광, 출연: 리영호, 등급: 전체관람가



국내 최초로 북한 영화가 상영돼 영화팬들의 가슴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4월 28일 개막되는 2005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되는 '피묻은 약패' 가 바로 그것.

평화로운 독도는 왜구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되고, 천무봉은 세 아들(석조, 석파, 석혜)에게 국보인 약패(지도)를 나눠주며 독도를 지키라고 유언한다. 일본군의 침탈에 가족을 잃은 삼형제는 조국과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 끝끝내 독도를 지켜낸다.

독도의 유려한 풍광과 대역없이 스턴트를 해내는 일본군과의 결투장면은 투박하지만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준다. 특히 영화 속에는 '북한판 독도 주제가' 라고 불릴 만한 노래가 삽입되어, 독도에 대한 애정과 민족의 자긍심만큼은 '남북한' 이라는 서로 다른 이념을 넘어 '민족' 이라는 공통분모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또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약패의 비밀을 따라가는 과정의 재미도 엿볼 수 있고 북한의 액션스타 리영호가 열연하여 오락적 즐거움도 배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피묻은 약패' 의 상영은 다시금 우리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게하는 작품이다.

노병철 기자

게시판

음악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연꽃마을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낮 동안 65세 이상 심신허약 · 중증치매 어르신을 상대로 가요, 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시. (02)365-3677

어르신 무료진료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 26일 오전 10~12시 본관 1층 건강상담실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피부과 비뇨기과. (02)804-4058

효 주제 글쓰기 공모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효를 주제로 '글쓰기 공모전' 을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가능. 공모는 4월13~5월 7일. 시상식은 5월 14일. (02)385-1671

우리역사 · 나라 사랑 공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우리 역사 · 나라 사랑' 이란 주제로 공모전을 갖는다. 공모기간은 4월 20~5월 14일. 참가대상은 전국 중 · 고 ·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02)2667-0874



무료합동 결혼식 송산노인복지회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본 복지관에서 5월 7일 오전 11시에 무료합동 결혼식을 올린다(사진). 대상은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031)852-2595

20면 상식 퍼즐 정답

낙	지		소	화	기	
산		대	금		인	생
사	족					사
	구	사	일	생		고
감		리				락
로		불	국	정	토	
수	소		사		지	구

알 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 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하공원 원주민체험, 쿠할로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관세음응신도' 축광액자



어둠 속에서도 연녹색의 신비스런 빛을 발하는 관세음응신도 축광액자. 주야는 물론 물속에서도 발광하므로 어느 곳에나 여러분께 축복의 빛을 전한다. 모든 중생의 애환을 대자대비로 거두어 주시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32응신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크기 31.5mm×58.5mm. 가격 1만5천원. (02)732-1520

전시

봄맞이 불교 사진전 풍성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전제우 회장 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를 소재로 한 사진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찰꽃살문사진전' 을 5월 29일까지 연다. 불교 사진 전문가로 알려진 관조 스님이 촬영한 30여점의 꽃살문을 선보이는 자리다. 통도사, 쌍계사, 선암사, 범어사 등 색채와 조각 면에서 예술성이 뛰어난 사찰의 꽃살문을 만날 수 있다. (055)742-5951

사진작가 이완교씨는 20~26일 인사아트센터에서 '피안-니르바나' 사진전을 연다. 산, 나무, 풀 등 자연을 배경으로 '피안' 의 세계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온 작품이 공개되는 전시회다. 작가가 참선수행과 선서를 접하며 떠올린 이미지를 몽환적으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접할 수 있다. (02)736-1020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전제우)는 제 10회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사진 전시회를 4차례에 걸쳐 연다. 작품은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싸롱(5월 2~7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5월 8~10일), 삼성동 봉은사(5월 11~16일), 대구 관음사(5월 17~23일)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02)2266-0302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김동선)은 '아름다운 인연' 을 주제로 5월 14~15일 석왕사에서 16번째 전시회를 연다. 사찰 안의 풍경과 일상 등을 담은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017)355-2811

강신재 기자

자유분방한 현대 수묵의 멋

20~26일 돈여 스님 선서화전


돈여 스님 作 '가릉빈가'.

선화와 불교조각 등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을 선보여온 석인 돈여 스님의 개인전이 서울과 전주에서 잇따라 마련된다.

서울 전시는 선서화를 중심으로 4월 20~26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인화 느낌의 회화적인 글씨와 자유분방한 먹의 흔적이 살아있는 그림 40여점이 공개된다. 5월 13일~19일 전주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주 전시에서는 선서화를 비롯해 다구 등 도예 작품도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윤태석씨는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자유로운 수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63)246-0933

강신재 기자

영험 도량



퇴마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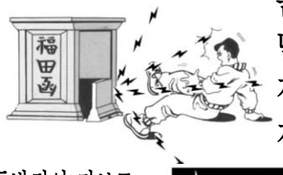
031-736-3734 · 732-379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최면-전생-빙의치유 상담

– 개인상담 및 치유, 교육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 및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섭식장애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 최면 및 전생치료, NLP치료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과 전생퇴행", "NLP의 원리"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kmseol@daum.net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

은행석베개볼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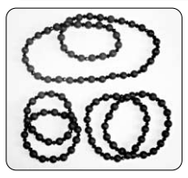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주)금강닥터에서는 북한3대 특산품이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금강약돌을 수입하여 은행석이란 제품을 개발 화제가 되었으며 추가주문이 쇄도하여 감사를 드리며 음이온을 첨가하여 더욱 나아진 신제품 은행석을 추가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베개속에 신비의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을 첨가하여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 머리를 맑게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압상승 억제효과
◆팔 찌 : 전신에 기를 골고루 전달하여 심장박동을 원활하게 하며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석 108염주, 손목힘장주도 제작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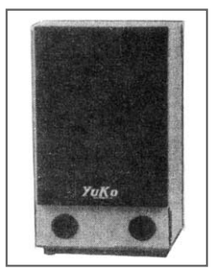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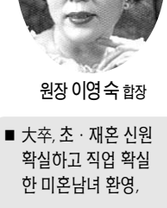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과일의 왕 **두리안**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수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부안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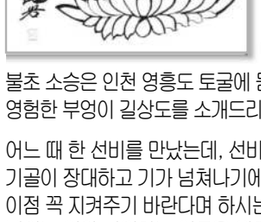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소원성취



영 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인천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납자로서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엉새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바 별다른 일 뜻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H·P : 011-9458-6616
FAX : 031- 316-9114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 합장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말에 끄달리지 말고 뜻을 가지고 행하라!

봄이 오니깐 활동하시기가 좀 유하죠, 아주 추울 때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에도 봄이 와야 살기에 좀 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데 세 가지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응해야 하고, 둘째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셋째는 시대에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날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불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이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한번 숙고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갖가지로 생활에 얽매입니다. 그러나 만물들은 생물들이나 동물 식물이든, 새들이든지, 어떤 곤충이든지, 개든 고양이든 모두가 자기 분수를 안다 이겁니다.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직 한 군데에다 몰두하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이 주어지면 개는 개로서 사는 방식을 허탈하게 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간처럼 아주 악순환을 겪고 얽히고설킨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착과 관습에 의해서 그냥 얽매이고 살지는 않죠.

어떤 큰스님이, 사대 선지식들이, 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끄달려서 아예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하죠. 부처님께서도 '말에 끄달리지 말라, 뜻을 봐라. 뜻을 따라야지 말을 따르면 안 되느니라. 그 말을 들어서 뜻을 가지고 행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렇게 얽매이고 지내는데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아주 편리하게 얽매이지 않고 산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 때문이냐 하면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얽매이고 집착에, 욕심에 분수를 모르고 끄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 많습니다. 아니,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자기 다리가 긴지 짧은지 그걸 모른다면 개천을 건너뛴다 하더라도 아마 개천 중간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자기 다리가 짧은 줄을 안다면 뛰지를 않겠죠. 넓은 데는 뛰지 않고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만 뛰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개천이 넓으나 좁으나 막론해놓고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부하는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분수를 안다면 나부터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지, 말을 많이 들어서 첨단을 넘어서려고 기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자기 자리도 모르는 그런 위치가 되죠. 자기 내면의 자기가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생중생들은 제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모양 같습니다. 어떡하면 빨리빨리 알아질까, 어떡하면 빨리빨리 깨달을까 하지만 내 자생중생들부터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게 되고, 자생중생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또는 자생중생들이 둘 아니게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둘 아니게 돌아갈 줄 알고, 그러니만큼 모든 것은 자생중생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제도를 해야 내가 제도를 받고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내가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하물며 물에서 사는 생물들도 각층의 차원을 가지고 각층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두가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가 공식하면서 공생으로서 공용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동시에 자기가 놀고 있는 그 집이 엄연히 있어서 테두리를 질서정연하게 찾고 또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노는 데서 놀고, 게는 게대로 게 노는 데서 놀고, 각계각층이 자기 노는 데서 논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방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집 찾아가느라고 허덕이다가 죽고 하는 걸 보면, 난 그 생각이 가끔 나요. 해방이 되고 나서 차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오다가 다 그냥 떨어져서 죽는데 머리통이 깨져서 죽고, 다리가 부러져서 걷질 못하고 쓰러지고 이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고기를 방생한다고 풀어놨을 때 제 집 찾아가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과 같았어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무심코 그냥 잡아다가 또 넣고 또 잡아서 가둬놨다가 또 풀어놓고 이러는데, 그거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망친 거와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짜 방생인지도 모르면서, 실천도 못하면서 그림자로만 왔다 갔다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갈대와 같이 쏠리는 마음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제자리를 찾아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잡아먹히고 그대로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깐 말입니다. 그런 하의 동물이나 생명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알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새면 새라는 걸 알고 미꾸라지는 자기가 미꾸라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는 데 대해서 조금도 애타게 고(苦)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서 진화가 되고, 진화돼서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은 애고가 많으니, 병고가 많으니 온통 야단들인데 난 병고다 애고다 고통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고통을 받아보신 분들이 낙(樂)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통을 모르면 남의 고통도 모르고, 또 사람이 발전을 해서 진화돼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동시에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로 알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빠져나갈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알아야 될 일인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잘 비벼서, 비빔밥을 해서 맛있게 해서 먹게끔 하고 나중엔 소화를 잘 시키고, 나중에는 대변을 잘 눠서 속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도 때로는 표현이 부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십시다. 영화를 찍는데 미리미리 대사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영화를 찍지요? 인간들도 자기가 살아나가는 데에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나가는 영화를 돌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화 제작이 되고, 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대사와 모든 것이 그렇게 정신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할 때에 국민이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말을 하면 좀 고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80%, 90%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역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그래서 자기가 한 것대로 방영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요만큼도 빈틈없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태양계가 모든 행성을 이끌고 다니되 태양이 잘나서만이 아니고 행성들이 잘나서만도 아니에요.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이렇게 공용하는 겁니다. 공식이 없다면 공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성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옴죽거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이 도리를 확실히 안다면 한 치도 어긋날 게 없고, 진리에 순응하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생활도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변천되고 바뀌고 하는 대로 발전이 돼서 아마 시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만이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신세계의 이 마음공부를 안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게 나 아님이 없고, 모든 게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든 게 내 삶 아님이 없고 그렇죠.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해야만이 태양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태양계의 지배자가 된다 하더라도 딴 행성 혹성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또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이 된다고 그랬죠? 누진은 한마음의 한 클럽입니다, 전체가. 우주에 관한 건이나 이 진리에 관한, 이 세상살이 만사에 관한 건이나 모든 게 한데 귀합된 지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열반계에 이르러야 된다, 구족해야 된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 앉은 자리에서 모두 커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응해줄 줄 알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앉은 자리에서 자기 원자에서 입자로서 수만 개로 자기가 화해서 모든 다른 혹성이라든가 다른 위성이라든가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인간 생명들에게 모두 응해줄 줄 알아야 지배자가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우물에서 산다면 우물의 이치만 알지 연못의 이치도 모르고 바다의 이치도 모르다가 그렇게 말하지만, 답구지다 하면 지금 비행기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먼 데 가는 짐을 나르려면 비행기 아니면 못 나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구지라는 말을 해야만 옳겠습니까? 시대가 변천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대로 용어는, 뜻은 따르되 용어는 바꿔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자라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체의, 즉 말하자면 천체의 양식을 먹일 수가 있죠. 이 산하대지의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거름이 잘 돼야 잘 살 수 있듯이, 천체의 양식을 먹고 자랄 수가 있고,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잘 자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맞추지 않는다면, 직결돼 있는 맞춤에 어긋나면 밝게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만날 보면서도요, 이 불 들어오는 것도 갖다 맞추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지 갖다 맞추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세상과 모두 가설이 돼 있는 이치와 직결이 돼 있는 이치가, 갖다가 삼합이 딱 맞아야 불이 들어올 수 있고, 삼합이 딱 맞아야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삼합이 딱 맞아야 잉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없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영혼이 없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모두가, 이거는 꼭 영화 속에서 우리가 배역과 대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이, 전부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무대 위입니다, 무대! 지금 무대에서 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를 하는 대로 위로 직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녹음이 되는 대로, 입력이 되는 대로, 그 입력되는 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력되는 대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데서 그 입력이 올라간 대로 잘 검토해서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렇지, '자기네들이 깨달았다, 자기네가 잘한다, 자기네가 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자기가 한 사이가 없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한 예도 없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 예도 없고, 했다고 한 예도 없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한 예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 예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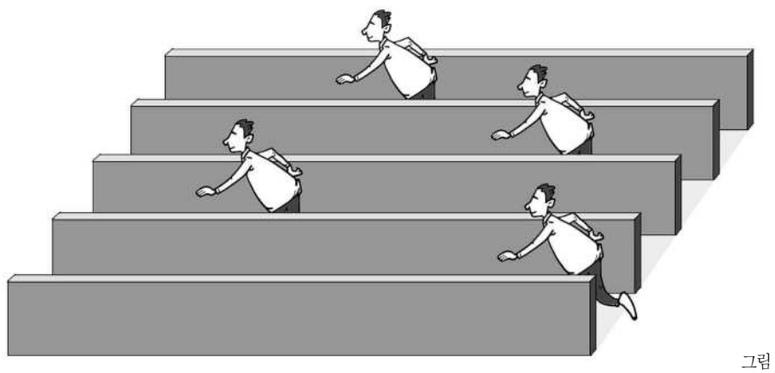
여러분은 나와 같이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 직결된 뜻으로써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진리에 순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가 진짜로 배움이라 생각됩니다. 그저 우리 중들이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그러되 그거를 아니 해도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니 해도. 손은 다섯 개 손가락이 있어야 정상인데,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이게 정상이 못 되죠. 안팎이 다 동등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도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너를 먼저 알게 되면 나 자체도 알게 되니, 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아라, 그냥 따르라. 세 가지가 종합해서 맞는다면 그냥 따르라. 잘 보고 듣고 이 세 가지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말라.'

지금 가만히 보세요. 덮어놓고 종교라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냥, 뭐 아우성을 치고,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부모의 혈육을 받고 나와서, 뜻을 받고 나와서, 고상하고 누(累)가 되지 않게, 자기가 누가 되면 전체가 누가 되니까 누가 되지 않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주 고상한 제일 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점잖고 고상하고 알뜰하고 진실하고 선명하게 살아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얼마 살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몸이 있을 때에, 이 몸이 있어야 상대도 있는 거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것도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마시고 오직 한 생을 점프해서라도, 내가 한 생을 버리고라도, 한 생을 점프해서 내가 탈피하겠다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피안의 세계가 바로 탈피의, 그 얽히지 않는 탈피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살아있을 때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마시고 한 생을 버리고라도 탈피하겠다 하고 실천하세요

모든 게 둘 아닌 도리를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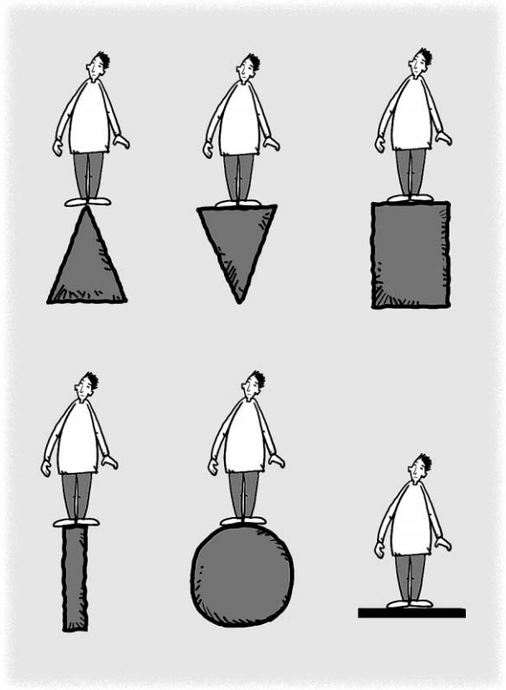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의 세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는 데 가정의 안유나 원하고, 나의 애고나 엷애기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보지 않는다면 되돌아 나올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고통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귀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걸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을 때에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죽는 게 뭐 그렇게 원통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가 곤충인 줄 알고, 자기가 새인 줄 알고, 자기가 뱀인 줄 알고,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자기가 소인 줄 알고, 돼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도끼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고, 매달아놓고 태우고 이래도 자기는 즐겁게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 그 모습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건 줄 안다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엉뚱하게 사람 짓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고양이 대접밖에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깐 고양이가 고양인 줄 알아야만이 그 고양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일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나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는 주인을 살리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의 그 모습과 행을 전부 배워가는데, 배워가고 있는데 내 스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약에 개가 어느 집안에서 살아나갈 때에, 사람이 행동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의 정신 두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전체를 자기가 배워가지고 나간다면 자기 스승 중에도 스승이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아는 개라면 반드시 주인을 스승으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알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구합니다.

그와 같이 오계의 첫째,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랬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배운 사람은 생명을 죽여도 살생이 되지 않고, 이 마음공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였다 이런다면 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잘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상 용도에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됐거나, 어떤 사람이 허기가 져서 뭐를 잡아서 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그 순간 생명을 죽일 때 벌써 그 모습을, 무명을 벗기고 자기 속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 바로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냥 사람으로서 화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살생이 되지 않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너, 나니깐 그냥 살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깨달아서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도 공해서 없는 도리를 알아야만이 너는 네가 있고 뚜렷하게 나는 내가 있고, 이런 뚜렷한 법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몰라서 덮어놓고 그저 비구니는 비구니대로 비구니니깐 업신여기는데, 비구니 비구를 누가 낳았습니까? 모든 비구니 비구 또는 사부대중이 다 자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씨는 줬다 하더라도 이 산하대지의 밭이 다 만물만생을 다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해요? 어떻게 돌부리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긴들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곤충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들의 분자니까, 이 도리를 역력히 아신다면 심성과학에서 천체물리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건지고 저 세상에서 건지고, 이 세상 저 세상이 따로 없이 아마 건질 겁니다.

우리는 조금도 빈틈없이 저 갈고리에 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바다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당신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한 사이도 없고, 어떤 거를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나는 한 사이도 없다고 했겠지요. 허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길을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게다 이겁니다. 역력히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진리와 그분의 마음과 세상과 전부 일체만물만생과도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는 여여하듯 부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여여하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스승을 또 찾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바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써놨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잘 파악한다면, 바로 팔만대장경을 한 꺼풀 두 꺼풀만 제껴서 조목조목 본다면 다 터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만 그냥 따라서 원숭이처럼, 그 말씀하는 것만 따라서 외운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뻐할 리 없습니다, 절대로! '종자가 내 종자가 둘이 아니게 돼라.' 한 것이지, 허허! 그리고 '모든 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라.' 이런 것이지, 그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란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곤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금강경 화엄경 이거를 몇 독씩이나 하고 이거를 잘 안다.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뭐 걸릴 게 있느냐!" 이러겠지만, 천만의 말씀! 화엄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아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었겠죠? 화투가 십이 개월까지 있죠? 그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아니, 이 세상 열두 달 돌아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대로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이 하도 정월에 심심하니깐, 그거를 한판 하자고 그래서 한판 하고 난 뒤에 "아이구, 화엄경을 디굴디굴 굴렸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과언이 아니죠. 하여튼 어떠한 거든지 거리낌없이 우리가 점프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물리가 터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거듭거듭,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도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뭐, 도리천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또 그런 지배자가 되고 지배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 지상에 산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왕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모습으로 다니면서 한다면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표현하자면, 나는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짐작하고 아는 걸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원자에다가 입자들을 그냥 수없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름만 다르지 뜻은 다 똑같아요.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내놔서 활동을 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여기 여기만, 여기 자생중생들이 모인 이 세계만 믿고 모든 걸 '주인공의 뿌리에서 뿌리가 가닥가닥 해아릴 수 없이 있는 이 자체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구나! 여기로 모든 게 드는구나! 나고 드는 게 거기구나! 그러니까 너만이…!' 이렇게 해서 다 거기다 놓고 자생중생들이 '아, 이거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모두가 돌아가는구나!' 하고 다 알았을 때, 그때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 다 이렇게 나가서 조절하고 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같이 돌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에 아들이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자꾸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럭할 때는, 여기서 딱 내 마음에서 탁 나가면 벌써 여기서, 그걸 이름을 하자면 입자로서 그 활동을 하게 돼 있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요. 허허.

그러니까 입자로서 거기 가서, 입자라도 원자가 될 수 있고,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오고, 나온 그 입자가 바로 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깐요. 일할 땐 원자가 되는 거죠, 그 속에 들이 아니게 가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원자에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그쪽에 가서는 원자가 되고, 원자가 돼서 그쪽에서 그 뜻을 알았으면 '아, 야! 이거.' 그러면 또 전화를 해주고 아, 이러면 자연적으로 공부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여의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신계의 이 공부를, 마음공부를 아니 하신다면 앞으로 살기가 극난히 어렵다. 왜냐? 앞으로 물질세계의 발전은 고도로 진전이 되겠으나 물질세계의 공부를 하려면 이 정신세계의 공부가 없이는 물질세계도 광대하게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드리면 또 엇갈려서 이러실 테니까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재현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느끼고 이렇게 숭상하시도록 빕니다, 빌어요!

여러분은 배우신 분들이 돼서 나보다도 더 아주 영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지금 시대에 공부한 거기에 탁 물리를 맞춰서 '아! 그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겠죠? 왜, 왜 그렇게 흐릿합니까? 다 모자라는 게 있죠. 여러분은 정신계의 그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정신계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그 이름을 잘 모르고, 전부 이름을, 영어로다가도 해놓은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까막눈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피차에 모르는 걸 서로 배우면서, 서로 도반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충전합시다. 그럼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다음호에 계속)

고통과 즐거움은 동시에 평등한 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백초, 당신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기재배
체질개선 체력증강에 좋은
신비의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황토삼백초에는 "후라본"계 물질 수용성 탄닌, 필수아미노산, 희귀미네럴 등이 골고루 들어 있어 우리 몸 건강에 좋습니다
삼백초 연구원장 김상목
• 드시기 편리하게 차, 엑기스, 환, 발효원액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 구비하고 있습니다
• 황토삼백초를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즐겁습니다
• 체력이 강해지면서 다이어트나 생리통 피부미용에도 좋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드셔도 부작용이 없는것이 특징입니다
• 차나 음료수로만 드셔도 만족한 건강을 유지하 실 수 있습니다
건강상담이나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농장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5)945-0075~8
대구지사 : 053)655-3363, 3477, 018-502-6849
서울지사 : 02)921-0859, 011-9038-4594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d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전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전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 작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의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수시모집(주문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꼬은칼라지붕공사

불면증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부인 최경희씨(42 · 서울 서초구 방배동)는 최근 몇 주 동안 새벽 4~5시까지 뜬눈으로 지새웠다. 2~3시간 자고 일어나 남편과 아이를 배웅하고 나면, 오전 11시 쯤 피곤이 몰려와 저도 모르게 자리에 눕게 된다. 최씨는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정신이 맑지 않아 종일 무기력하다"고 호소했다.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좀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회사원 김형조씨(28 · 경기도 안산시).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도 몇 번씩 깨기를 반복하고, 다음날 피로가 쌓인 채로 출근해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불안을 느낀다"는 김씨는 "잠이 오지 않으면 부담감을 잊기 위해 TV를 틀어놓고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말한다.



스트레스 ·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원인…약물 의존 말고 생각 · 행동 바꿔야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도 막상 눕기만 하면 정신이 또렷해질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면증'은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들더라도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스트레스와 흥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나타난다.

서울시립은평병원 정신과의사 이유진 박사는 "불면증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수면제 같은 약물치료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생활습관을 짚어보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

숙면을 취하는 방법

△수면주기 파악, 심적 부담 줄여라=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 가능한 많이 자려고 한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개인의 수면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을 자야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수면주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 여덟 시간은 자야 하는데', '불면증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거야', '남들은 잘들 자는데 왜 나만 못자는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잠만 더욱 쫓아낼 뿐이다.

△낮잠 등은 수면 리듬 저해…기상은 규칙적으로=몇 시간을 자는 가보다는 언제 자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양질의 수면은 잠든 후 30분 뒤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를 '델타수면(Dalta sleep)'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델타수면에 가장 잘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되도록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 하루 종일 잠만 잔다면 오히려 수면리듬을 깨트리게 된다. 비록 실제로는 잤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몸은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수면'으로 인식한다. 낮잠을 많이 자거나 저녁 내내 소파에 늘어져 있으면 오히려 취침 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전날 늦게 자도 기상시간은 규칙적으로 지켜야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의 불면증 정도는?

해당항목에 체크를 하신 후, 항목의 수를 계산하여 아래에 나와있는 설명을 참조하세요.

- ☐ 머리속이 복잡해서 잠들 수 없다.
- ☐ 자다가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
- ☐ 걱정거리가 많아서 항상 긴장을 풀 수 없다.
- ☐ 밤에 잠을 잤지만 아침에 여전히 피곤하다.
- ☐ 때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것이 두렵다.
- ☐ 몇 시간 못자고 깨어난다.
- ☐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 ☐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쑤신다.
- ☐ 잠을 잘 수 없을 때 우울하게 느낀다.

해당항목의 수에 따른 평가

△**1~3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가끔씩 발생하는 수면장애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단, 한 항목만 해당되더라도 많이 힘들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4~6개**: 수면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커피, 술, 담배 등을 삼가하고 낮에는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7개 이상**: 전문적인 의사(수면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심각한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 자료제공: 대한수면의학회

△잠자기 4시간 전 자극적 활동 피해야=저녁에는 운동이나, 자극적인 활동 또는 열중해야 할 일 등을 자제한다. 이러한 것들은 몸과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 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오히려 각성효과를 일으키므로 삼가 한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경우에는 침실에 있는 시계마저 치워버리는 편이 낫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계속 신경 쓰다보면 오히려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서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명상 · 호흡법으로 정신 집중, 잠 유도=TV나 컴퓨터를 켜는 대신 어두운 방에 가만히 눕거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 20~30분 정도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한다. 우선 편안히 잠자리에 누워 이완감이 점차 온 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본다. 그 다음, 복식호흡에 주의를 집중한다. 한 손은 배 위에 놓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 숨을 천천히 쉬거나 깊게 쉬려고 애쓰지 않고 단지 배로 호흡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되풀이하며 정신집중을 통해 숙면을 유도한다. 숨을 내쉴 때 조용히 '들숨' '날숨'이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해 생각하거나 숨 쉴 때 배가 오르내리는 것에 정신을 집중한다. 이러한 명상에 집중하다보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이 풀어져 효과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장애센터의 그랙 제이콥스 박사는 이 같은 명상방법이 포함된 '불면증 자가치료 6주 프로그램'을 개발해 10년 이상 된 환자들의 수면장애를 100% 개선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규지'서 47종 때빠, 43종 왜껜 병 언급

두 번째 기본에너지는 때빠(膽, mKhris-pa)이다. 때빠는 티베트에서 화염(火焰, flame)을 의미한다. 병리학적 개념의 화나 열이 아니라 생리활동에 필요한 화의 개념으로 본성이 뜨거운 성질이어서 불의 요소와 매우 연관이 깊다.

때빠는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와 흡수를 도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한다. 또한 허기와 갈증을 느끼도록 하고 피부를 윤기나게 하며 감기와 오한을 막아주는 기능도 한다. 정신적으로는 담력과 결단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

몸에 열이 너무 많으면 그 열이 대사계를 태우고 간장 소장 그리고 담낭과 같은 내장기관을 상하게 한다. 또한 고혈압과 다른 혈액관련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고 시력을 손상시키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열이 너무 적으면 항상 기가 꺾여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다. 염증성질환 감염증 및 순환기질환들은 모두 이 때빠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때빠질환은 인도같이 기후가 무더운 나라에 흔하다. 규지에는 47종의 때빠병이 나와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때빠만 소개하겠다.

첫째, 소화때빠(消化膽)는 위와 장에 위치하고 음식물의 소화가 주된 기능이다. 음식물의 영양분과 찌꺼기의 분리를 도와 열을 발생시키고 다른 네 가지 때빠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때빠에 장애가 생기면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와 설사 같은 소화기질환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실행때빠(實行膽)는 심장에 자리하며 무언가 할 마음이 내키도록 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생각과 마음 기개 욕망 그리고 자만심을 내게 하고 성공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망을 이루도록 돕는다. 실행때빠에 장애가 생기면 생활에 관심을 잃게 될 수 있다.

셋째, 조색때빠(調色膽)로 간에 위치하여 주로 음식물의 영양 색소를 변화시켜 혈액의 붉은색 담즙의 황록색 근육의 적색 그리고 대변의 갈색과 같은 여러 색깔을 내도록 한다.

넷째, 시각때빠(視覺膽)는 눈에 있어 시각을 책임지며 색깔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시각때빠에 교란이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명색때빠(明色膽)는 피부 표면에 위치해 피부에 건강하고 활력있는 맑은 윤기가 돌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빠에 문제가 생기면 안색에 이상이 오게 된다.

티베트의학의 세 기본에너지 마지막은 왜껜이다. 티베트에서 왜는 흙을 뜻하고 껜은 물을 뜻한다. 점액(粘液) 혹은 담(痰)으로 의역된다. 타액(침) 진액 그리고 다른 액성 성분의 기능과 관련되어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돕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한다.

몸에 체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또 너무 넘쳐도 몸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한 체액의 부조화는 혈액순환과 릉에너지의 미세한 흐름에 영향을 미쳐 부종 과체중 신장질환 그리고 각종 소화기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소화와 흡수에 관련된 질환들이다.

때빠-생리적인 화, 소화 돕고 담력 · 결단력에 영향
왜껜-체액 균형 담당, 흡수력 이상시 관절 부종 유발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중년 여성들의 다리나 발목 부종도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모두 흡수력 장애와 신장기능의 이상과 관련이 깊다. 왜껜의 본성은 차고 물의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규지>에는 왜껜에 43종류가 언급되어 있으나 역시 중요한 5가지 유형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의존왜껜(依存痰)은 가슴에 흉곽을 따라 위치하며 체내의 수분과 진액의 균형을 조절하며 다른 네 왜껜의 기능을 지원한다. 의존왜껜에 이상이 생기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릴 수 있다.

둘째, 분해왜껜(分解痰)은 '혼합(mixing)' 혹은 '반죽(kneading)' 왜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 소화관(위장)의 상부에 위치하여 음식물을 반유동성 물질로 잘게 분쇄하는 기능을 한다. 이 분해과정은 소화에 관여하는 다른 두 인자 소화때빠 및 화반릉과 협동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가 덜된 음식물이 변에 섞여 나오면 바로 이 분해왜껜의 이상증후로 볼 수 있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2005년 어린이날 기념 ·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제1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
제21회 연꽃 문화제

일시: 2005년 5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부산 금정산 범어사



참가부문: 크레파스화 부문 – 유치원 · 초등 1, 2학년
수채화 부문 – 초등 3, 4학년
판화 부문 – 초등 5, 6학년.
글짓기부문 – 초등 3, 4, 5, 6학년

참가방법: 하나 5월 5일 당일 행사 참가
둘 작품(우편) 공모 참가

참가비: 무료(복지시설, 재활원 등의 시설단체 어린이, 시설 자체 차량 이용)
5,000원(개인 참가 및 우편 응모시 작품과 5,000원 우표 동봉, 법회 및 단체 참가시 4,000원)

준비물: 도시락, 화판, 참가부문 미술도구(크레파스, 물감, 조각도), 필기도구, 돗자리 , 모자 착용

기념품: 참가자 전원 범어사 무료입장, 기념 T셔츠 등 선물 증정

주 최: 범어사, 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후원: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한국박물관협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사)불국토, 부산불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재)보덕학회, 불광사 불광법회, 도솔회, 보문회, 신흥인쇄, 불교방송,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신도회

협찬: 롯데월드, (주)포춘쿠키, 가위 바위 보 가방, 대림지류유통, 선우, 밀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금강」, 월간「불교」

참가신청 및 문의 전화 ● 월간불광 02 – 420 – 3200 ● 목아불교박물관 031 – 885 – 9952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051–864–4569 ● www.bulkwang.org/grim.html

불기2549년 마하몰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등



▮ 황금연등
· 20,13,10.5,8,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 공단등
· (大)23Cm,(中)18cm,(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흰색(영가등)



▮ 캐릭비닐터만월등
· 32cm ×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초록,색상별



▮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주황,연두,보라



▮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염인쇄 · 1박스 = 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노랑초록,빨강,파랑



▮ 팔각조립등
· 26cm ×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봉축빨강,봉축노랑,
성도일빨강,성도일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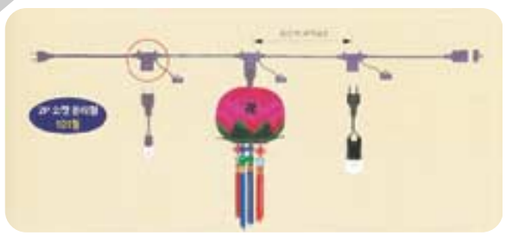


▮ 종 등
· 40cm × 27cm
· 노랑,연두,분홍,빨강,오렌지



▮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초록,파랑

연등전선







▮ 사찰용 연등전선 (법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수막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 봉축현수막 :세로(실사) · 6m (60,000원)
· 7m (70,000원) · 8m (80,000원)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봉축캐릭터용품



▮ 봉축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100개 1세트



▮ 연꽃리본
· 25,000원 ※ 100개 1세트



▮ 동자승 캐릭터 스티커
· 소 : 크기 60×156mm (30매) 30,000원 · 중 : 크기 130×176mm (60매) 60,000원



▮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인쇄 및 내용변경 가능



▮ 봉축 버튼 · 4,000원 ※10개 1세트



▮ 봉축 풍선세트 · 30,000원 ※ 100개 1세트(대롱 포함)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 4개 1세트

▮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 90Cm×135cm
※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



▮ 차량용 깃발
· 4000원
· 20X30cm



▮ 봉축카드세트 · 6,000원(10장 1세트)
※ 200장 이상 주문시 사찰 · 단체명 인쇄 및
속지 인쇄해 드립니다.

단체주문상품



▮ 캐릭터 벽시계 (플라스틱)
· 15,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 헤드폰 알람시계
· 24,000원
(하늘색,은색)



▮ 순금카드
· 15,000원
· 25,000
(케이스포함)



▮ 황향목 담채연꽃차걸이
· 8,000원(1개)
· 34,000(5개)



▮ 운월 달마족자
· 50,000원
· 청곡 이한동 화백작품
· 220mm X 430mm



▮ 캐릭터 벽시계 (원목)
· 20,0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LED라이트 알람시계
· 18,000원
(핑크,그린,화이트)



▮ 연실열쇠고리
· 6,000원
▮ 연실합장주
· 6,000원
▮ 연실핸드폰걸이
· 6,000원



▮ 풍경차걸이
· 4,000원
· 갈색,분홍,연두



▮ 이미지 큐브
· 10,000원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